



성도의벗 2
1978

밀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부대판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든 태너
메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고든 비 헝클리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매리온 디 험스
제임스 에이 커리모어
로버트 디 헤일즈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제147반 연차 대회 보고	1
의의 기초	3
주님의 방법	8
행복한 결혼 생활	12
참으로 기적이었습니다	15
비극의 주기	19
교회 본부 역원 지지	23
의로운 순종의 축복	25
하나님과 인간의 일	30
우리는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34
교회 역사에서의 특별한 순간	37
희생: 선교사의 모습	40
젊은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43
신권의 열 가지 축복	48
다섯 개의 "수"	52
주를 의지하라	57
의로운 음성에 순종함	61
용서의 힘	67
복음의 빛	73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77
구원의 봉사	81
청녀—참다운 수호자	84
길드앗의 유향	88
가장의 역할과 책임	93
복음이 안겨 주는 안전성	97
귀환 선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100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 일	104
그들은 단념하지 않았다	105
오 주여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106
최고점	107
예수 그리스도	111
복지사업: 실천의 복음	114
복지사업에서의 감독의 역할	121
금식의 법	125
복지에 관한 신전 정원회의 책임	129
가장의 임무	132
그는 간관한 자에게 손을 떠며	135
말일의 사마리아인	138
지역 지도자 메시지	141
밀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142
지역 소식	144

통권: 제151호, 제14권 제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1978년 2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경 편집인: 유헨 피 팀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밀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건수

1978년

제단 범인

밀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소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7반 연차 대회 보고

1977년 10월 1, 2일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개최된 반연차 대회 말씀 및 순서

또 보라, 이는 이 신권에 성임되어
나아가라는 사명을 받은 모든 자
에게 주는 하나의 예이라.

“또 성신으로 감동되는 대로 말하여
야 함도 저들에게 주는 하나의 예이라.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
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
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 : 2-4)

이와 같이 주님은 1831년 11월에 예
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약속대로, 스펜서 더블류 킹볼 대관장
과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최근에 열린 제147 반연차 대
회에서 말씀하셨다.

전세계에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11명의 총관리 역원 지역 관리자, 158

명의 지역 대표 및 각 지역의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 그리고 각 지역과 섬에
있는 수천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모임은 10월 1일 토요일과 10월 2일
일요일에 열렸다. 스펜서 더블류 킹볼
대관장이 모든 모임을 감리했으며, 대
관장단의 일원 즉 킹볼 대관장, 제 1 보
좌인 앤 엘든 태너 부대관장, 또는 제
2보좌인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이 사
회하였다. 63명의 총관리 역원 중 28 명
이 말씀을 했다.

대회에서 취해진 관리에 관한 주요
조치는 총관리 역원과 칠십인 제일 정
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부름 받은 3
명을 포함한 교회 본부 역원들을 지지
하는 것이었다. 새로 부름받은 3명은
유타주 출신의 교회 멜기세덱 신권 본
부 위원회의 일원인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와 독일 출신의 지역 대표인 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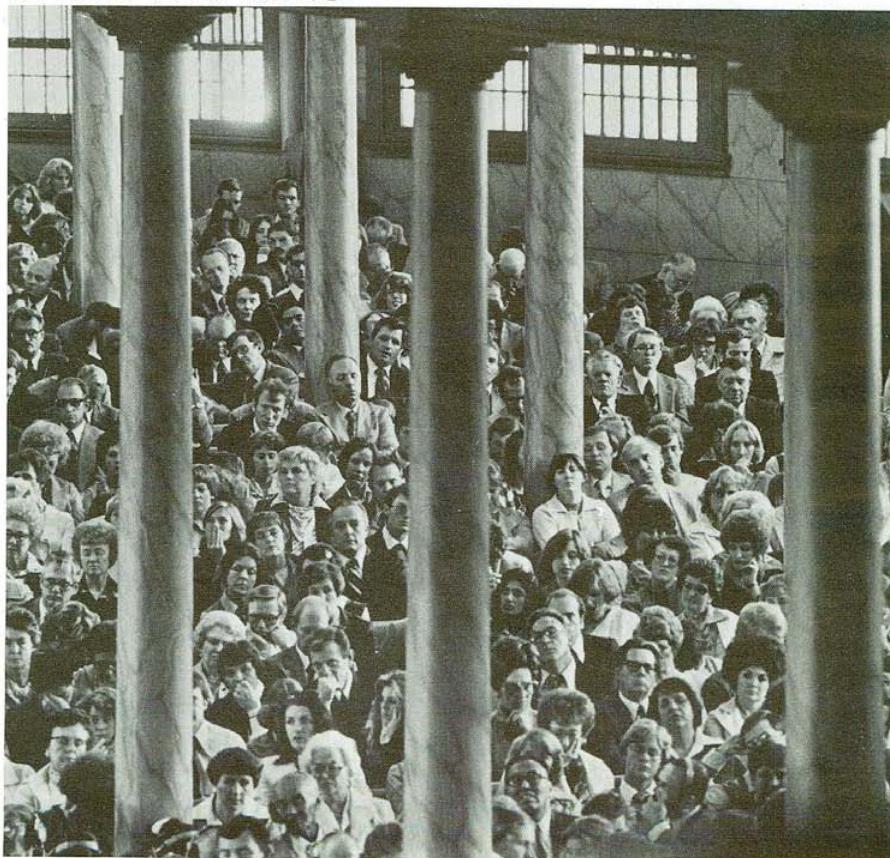
엔지오 부쉬 장로와 일본 출신의 스테이크 부장인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이다.
(역원 지지는 23페이지를 참조한다.)

모임은 템플 스웨어의 태버내클에서 열렸으며 어셈블리 홀과 근처의 솔트팰리스에는 추가로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개최된 모임은 다음과 같다. 토요일 오전 7시—10시(복지 모임), 오후 2시와 7시(신권회, 전세계의 많은 지역에 폐쇄 회로로 방송됨),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일반 총회).

이외에, 9월 30일 금요일에는 지역 대표 세미나가 하루 종일 교회 본부 건물에서 열렸는데, 이 모임에서 킴볼 대판장은 “비활동” 회원을 위한 활동 촉진과 선교 사업을 “더욱 더” 강조하시는 영감에 가득 찬 말씀을 하셨다. 교회 활동 위원회, 수정된 교회 체육 프로그램, “비활동”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활동, 촉진 그리고 지도력의 원리에 대한 중요한 광고와 발표가 있었다.

—편집자—

태버내클 기둥 사이에 앉아 있는 회원들



1977년 10월 1일, 토요일 오전 모임

의의 기초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복음의 율법과 계획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데 가장 확실한 지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연차 대회를 맞이하여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가정의 밤

가정의 밤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저녁을 가족과 함께 집안에서 보내거나, 가족과 더불어 어떤 재미있는 곳을 찾아가 즐기는 것은 가정의 밤의 필요 사항 중 극히 일부만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생활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파티에 간다거나, 낚시질을 하러 가는 것은 실제의 필요 사항의 절반만을 충족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자녀들에게 복음과 경전을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모든 자녀가 각자의 경전을 갖고 경전을 사용할 줄 알게 하도록 부모들에게 권고해 왔습니다.

축복사의 축복

오늘날은 참으로 행복한 시대입니다. 이는 축복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사실이 교회의 공식 기록에 기재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는 축복사를 신뢰하며, 그 축복을 진심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말일성도로 주님과 가까이 하며, 항상 경전을 공부하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진실하고 충실히 하다면 특별한 권리와 부를 받은 축복사가 주는 축복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아버지는 그의 가족의 축복사로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줄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버지가 특히 자녀들이 학업 때문에 가정을 떠나거나 선교사로 나가거나 결혼할 때 성스러운 축복을 주어 그들이 그 축복을 그들의 일지에 기록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기록

개인 일지와 기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어려서부터 일생 동안 일기나 일지를 쓰도록 권고합니다.

모든 가족이 가정의 밤을 가질 때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중요한 활동을 일지에 기록하도록 가르친다면, 그들이 학업이나 선교

사부름 때문에 가정을 떠날 때 반드시 그
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

우리는 많은 회원이 가내 경작에 대한 권고에 따르고 있음을 알고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여 먹는다는 점에서 볼 때 가내 경작은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활동입니다. 곳곳에 채소밭이 많이 있는 것을 보니 기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채소밭을 가꾸어 돈도 절약하고 즐거움도 맛보았다고 보고하는 가족과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도 항상 이러한 경험을 가져 그들이 손수 재배한 것을 식탁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채소밭 외에도, 회원들이 울타리를 바로 세우고 주위를 깨끗이 하며 사용하지 않는 낡은 헛간은 헐어버리기 바랍니다.

합창단

우리는 많은 감독이 보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훌륭한 합창단을 조직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며,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교육

교회는 초기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 (교성 93:36)라는 원리를 매우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원들에게 지혜와 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부하며 준비하도록 권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규 대학 교육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직업 훈련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문 지식이든 예술에 관한 것이든, 직업에 관한 것이든 대학이나 전문 학교의 교과 과정에 속한 것이든 어느 것이나 찬성하고 권장하는 바입니다.

파괴 행위 및 절도

우리가 어떤 지역에 절도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신의는 크게 손상되게 됩니다.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고객을 가장한 절도자들에 의하여 수백만 불이 도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중이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인이나 어린이가 친절한 상인과 이웃의 물건을 훔쳐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파괴 행위로 인해서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행위로 만족감을 얻기 위해 파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파괴하는 것으로 자랑으로 삼느니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음의 한도내에서 겸손하게 생활하고(복지 모임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부채를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출 20:15)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는 여러 가지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재를 구경하기 위해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죄를 기독교인에게 들려 썬 로마의 황제, 베로와 같은 가학성 범태성 욕자들입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경기장에서 베풀어지는 갖가지 가학성 행위를 보기 좋았습니다. 파연 인간이 그려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인간은 웃을 줏고, 유리창을 깨뜨리며, 무죄한 사람을 때리고, 방화를 하고 폭탄을 터뜨립니까?

주님은 이에 대하여 이같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레위기 26:3, 6, 12)

목인과 허용

현대 사회에서 목인하고 허용하는 경향이 점증하고 있음에 우리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간음, 사통, 남성이나 여성 간의 동성애, 낙태, 춘화, 산아 제한, 알코올 중독, 아내를 구타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잔혹한 행위, 부정직, 만행, 폭력, 범죄 등등이 결혼하지 않고 둘러 생활을 하는 죄악과 더불어 늘어 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에게 가정을 강화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와 자녀간에 좀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게 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중요시해야 할 점은 훌륭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점증하고 있는 목인과 허용 행위에 대항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에게 시민으로서 할 말을 하고,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춘화나 기타 사악한 목인과 허용 행위에 끊임없이 대항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인간의 육신을 더럽히는 큰 죄악을 적극 반대합니다.

전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과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에 틀어 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세상 사람에게 우리는 이와 같이 멀어진 도덕 표준을 목인하는 자들은 결코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악을 용납할 수 없으며 죄를 범하는 사람과는 달리 교회의 가르침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범죄자를 도와 교회의 우정 증진 활동을 통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회개의 축복을 받아, 그릇된 행위를 그만두고 죄악의 길에서 단호

히 돌아서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저장하기 위해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저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저장소에는 물을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을 저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가족 복지 프로그램에 따라 행하며, 애급 땅에서 7년의 풍년 기간에 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장래의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의 저장소, 우리 생활이 불안정할 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겨 내기 위한 용기의 저장소, 고된 일과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신체적인 힘의 저장소, 선행의 저장소, 활력의 저장소, 신앙의 저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의 저장소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우리는 굳굳하고 의연하게 서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부패한 [참으로 가증하고 사악한]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힘이 빼앗기고, 영적인 활력이 없어지며 우리가 끌어내려질 때, 우리는 성장하여 앞으로 성인이 될 청소년을 지루하고, 힘겹고, 무서운 순간에 안전하게 이끌어 주고, 실망과 환멸과 역경과 결핍과 혼란과 좌절의 수렁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신앙의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장소를 짓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부모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자녀를 낳은 부모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자녀를 위한 기초를 닦고 광을 짓고, 저장통과 저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기적을 낳는 신앙, 배쳐렛 출판사, 110~111페이지)

음모를 꾸미는 인간의 기만

우리는 우리의 순결한 생활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의 하나는 음모를 꾸미는 인간의 기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만자는 출을 양조하고 판매하여 전세계

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하며 그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읍니다. 한편 주님의 말씀인 진리는 오늘날 빈곤, 건강의 상실, 가정 파탄, 상한 마음, 비능률적인 관리로 인한 산업의 침체, 생산의 감소, 계획적인 결근,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무시하려는 생각으로 자행되는 무서운 교통 사고 등이 없어지도록 가정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에 관한 목인과 허용 행위가 “새로운 도덕”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온갖 성범죄의 부도덕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들어와 물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고대인들의 범죄는 현대 인간의 마음에 점점 더 깊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없을까요? 우리도 역시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간 백성이나 민족이 한 대로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고, 영혼을 썩히며, 멸망되어야 하겠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물당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의 윤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용서라는 보상을 가져오지만 죄악은 사망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매일 간음과 남성간의 동성애나 여성간의 동성애에 대하여 점점 더 많이 듣습니다. 남성간의 동성애는 흥악한 죄악입니다만, 그럼에도 널리 성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경고시키고, 이미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도와 주기 위해, 그것을 명백히 밝혀 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죄악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인의 방탕 전후에도 있었읍니다. 그것은 회랑에서도 허용되었읍니다. 부패한 로마 사회에서도 성행되었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고대 도시는 롯의 방문자들이 나타내는 사건과 같이, 이러한 성적 도착증에 관해서는 극도의 사악한 행위의 상징이었읍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행위를 입법 조치를 통해 합법적으로 행하게 하자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춘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취하려 할 정도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낙태를 합법화시켜, 이 흉악한 범죄로 인한 죄의 낙인을 셋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을 덮어 주는 것이 구제책이 아님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옳건 그르건, 의로움이나 죄악이 인간의 해석이나 습관이나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러한 행위의 품격이 바뀌지는 않으며, 그린 것이 옳게 되지는 않는다. 만일 세상 모든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동성애를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은 나쁜 중죄임에는 변함이 없다.”(용서가 넣는 기적, 북크래프트사, 79페이지)

우리가 니느웨와 바벨론과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둘이켜 생각해 볼 때, 역사는 그렇게 되풀이될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 세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국가에서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높고 고귀한 원리를 잊고 있거나 않습니까?

나는 일본이 항복할 때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군사 동맹, 세력 균형, 국제 연맹은 차례로 실패했읍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더 크고 보다 공평한 제도를 고안해 내지 못한다면, 아마겟돈이 목전에 이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신학적인 것과 인간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구하려면 우선 정신적인 것부터 구해야 합니다.”(더글러스 맥아더, “최후의 기회”, 타임지, 1945년 9월 10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의 이름을 말할 때나, 주님의 날 곧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때, 일할 때나, 상업이나 폐락을 추구하

는 면에서 불경스런 언행으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든 것을 모독할 때는 종국적인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고 세상에 평화와 의로움이 것들게 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시내산으로부터 너희와 같이 내려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내산으로 가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되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찌니라

“간음하지 말찌니라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출애굽기 20:3, 7-8, 12-17)

주님이 탄생하신 지 어느덧 1977년이 되는 금년에도 멀망한 제국에서 우리가 목격한

그와 같은 악이 우리 주변에도 있으며, 모든 나라에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벨사살과 같이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이 파탄하도록 내버려 두며 결혼 생활이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의 적을 증오하고, 간음과 육욕을 충족시키는 일로 우리 육신을 더럽히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인내심이 끝이 날 때, 파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동안 그저 멀고만 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명하게 벽에 쓴 글을 알아보고 과거의 슬픈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배워 주께 돌아와 그를 섬기겠습니까?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사업은 그의 사업이며, 그는 이 세상의 하나님이십을 간증합니다. 나도 우리가 의를 기초로 삼아야만 우리의 생의 목적을 이루고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율법대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만 제2보좌



주님의 방법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의 복지 계획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세워진 것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종 종 우리는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주 말씀 믿으라”(찬송가, 113장)는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펜서 더블류 킴벌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나는 서부의 십자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솔트레이크시티는 지구상의 각처에서 몰려드는 여행자들의 성지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수만 명의 인파가

알타와 브라이튼과 파크시티와 스노우버드의 아름다운 스키장으로 몰려듭니다. 여름에는 브라이스와 자이언스 계곡으로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유서 깊은 태버내들이 있고 높은 첨탑으로 된 신전과 누구는 따뜻한 손길로 맞이하여 주는 아름다운 방문자 센터가 있는 텁풀 스퀘어는 계절에 관계없이 뜻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와는 좀 멀어져 있는 곳에, 또 다른 유명한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다운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연로자와 신체 장애자가 구세주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조용히 봉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감독의 창고로 알려진 웰페어 스퀘어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중심지와 세계 전역의 다른 여러 곳에서, 과일과 야채 통조림이 만들어지고, 일용품이 생산되고 포장된 후 저장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의 실업 수당을 받는다거나 금전을 주고받는 후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다만 성임 받은 감독이 서명한 출고증만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신문 기자들은 이 독특한 복지 계획에 경의를 표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돌보는 데 자부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글을 씁니다. 흔히 많은 방문객이 경탄하며 호기심을 갖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1) 이 계획은 어떻게 운영 됩니까? (2) 복지 계획의 경비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3)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와 같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진지한 물음에 대답해 주는 일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내가 도맡아 왔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운영 됩니까?”라는 질문에 나는 대개 이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1950년부터 1955년까지 솔트레이크시티의 중심부에서 1,000여 명의 회원을 보살피는 감독으로 일한 적이 있었읍니다. 회원 중에서 86명의 과부가 있었으며, 약 40명의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하여, 때와 정도에

따라서 복지 프로그램에 따른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년 나는 수천 명의 다른 감독과 함께 다음 해에 우리 회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일용품 예산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러한 예산은 모두 철저히 검토하고 종합하였으며, 예산에 따라 교회단위 조직에 특정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사람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단위 조직별로 회원들은 고기를 생산하고 오렌지를 재배하며 야채나 밀가루나 기타 주산물을 각각 맡아 생산함으로써, 창고에 가득 채워 늙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창고는 교회 회원의 현물로 유지되나니, 과부와 고아는 이곳에서 지급을 받으며 가난한 자도 그려하니라.” (교성 83:6) 그리고는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졌야만 하나니” (교성 104:16)라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 내가 살고 봉사했던 곳 가까이에서, 우리도 양계 사업을 했습니다. 대체로 그 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창고에는 신선한 계란과 살찐닭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일로 해서 자원한 농부들의 손에 물집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십대의 아론 선원 청소년들이 양계장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양계장에 모인 열성적이고 활기애찬 젊은 일꾼들은 단숨에 잡초를 뽑고, 한데 모아 잡초와 쓰레기를 가득 쌓아 놓고 불태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옆에서 우리는 핫도그를 먹으며 홀륭하게 치운 것을 서로 자축했습니다. 양계장은 깨끗이 정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한 가지 난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음과 불길로 인해서 달이 약하고 신경이 예민한 5000여 수의 암탉들이 놀라 갑자기 날뛰며 알까기를 그친 것입

니다. 그 이후로는 잡초가 조금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둔 결과, 더 많은 계란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꾸물을 저장하며, 무우를 캐고, 닭을 기르며, 연료를 모아 들이는 일 일정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절대로 궁핍한 사람을 도와 주는 경험을 잊거나 후회하는 적이 없습니다. 혼신적인 남성과 여성은 영감을 받아 실시되는 이 방대한 사업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 계획의 성공은 결코 노력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 사업이 주님의 방법에 따라 신앙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 비롯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열왕기상에 있는 기록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충고에 따르고 불쌍한 사람을 돌볼 때,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원리를 새로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이 그 땅을 훤히 쓸고 있었습니다. 그 후 기근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주님으로부터 홀륭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체하게 하였느니라” 그가 그 과부를 찾았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려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녀의 대답은 그녀가 참으로 가련한 입장에 처해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었으며, 아들과 자신이 먹을 음식이 없어, 그들도 죽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는 엘리야의 말은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
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밀대로 하였더니 저
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려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왕상 17:9—
11, 13—16) 주님의 복지 계획이 세워지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고 영감을 준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지 계획의 경비는 어떻게 마련합니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금식 혼금의 원리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참된 금식을 설명했습니다. “또 주린 자에
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빙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끌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빚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
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예
기 있다 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민족케 하며… 너는 물
엔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셈
같을 것이라”(사 58:7—9, 11)

이 원리와 하나님의 영감받은 예언자들이 제시하고 가르친 계획에 따라 말일성도는 매 달 하루를 금식하고 최소한 금식한 두끼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개의 경우 그보다 많은 금액을 금식 혼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스러운 기금으로 창고를 운영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혼금으로 도와 주고, 돈이 없는 병자의 치료비를 지불해 줍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매달 집사 신권을

소유한 소년들이 안식일 아침 일찌기 각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 기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번은 내가 관리하고 있던 지역의 소년들이 잠이 멀 깐 눈을 비비며, 웃차림도 단정치 못한 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을 투덜거리며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한 마디도 꾸짖지 않았으나, 2주 동안에 우리는 그 소년들을 테리고 웰페어 스페어로 가서 구경시켜 주었읍니다. 그들은 우선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 교환의 일을 하는 것과, 어느 노인이 물건을 정리하고, 여인들이 의복을 간추리며, 장님이 징통에 표를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각 개인이 혼신적인 노동으로 생계비를 벌고 있었읍니다.

소년들은 말없이 자기들이 매달 수고하며 성스러운 금식 혼금을 모으기 위해 돋는 일이 불쌍하고 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직접 목격했읍니다.

그 뜻깊은 날을 보낸 이후로는, 집사들에 게 전혀 권고할 필요가 없었읍니다. 금식 주일 아침이면 그들은 일요일에 맞는 단정한 옷을 입고 아론 신관 소유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열의를 갖고 7시 정각에 모였읍니다. 그들은 단순히 봉투를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들이는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그들은 주님의 방법대로,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며, 집이 없는 사람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이었읍니다.

그들의 얼굴은 더욱 밝아지고, 발걸음은 더욱 힘차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 차분해졌읍니다. 그들은 힘찬 복소리에 발맞추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차
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
라”(마 25:40)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와 같이

현신할 수 있습니까?"라는 마지막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고,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함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독으로 일할 당시 이제는 고인이 되었으나, 당시 생산업을 하고 있던 내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여 나는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밀감을 가득 넣은 상자를 반 트럭 창고에 보낼 테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창고 관리인에게 트럭이 갈 테니, 비용은 내지 말라고 일려주게. 그렇지만 누가 보냈는지 밝히지는 말아 주게." 이 자선 행위가 가져다 준 기쁨과 감시를 나는 일찌기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그 익명의 은인에게 영원한 보상이 주어졌으리라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선 행위는 드문 것이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어지는 길목 어구에 다리를 절며 늘 고통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사는 육십 노인의 집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한참만에야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나는 깨끗이 정돈된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에만 난방 설비가 되어 있었으며, 부엌은 섭씨 4, 5도로 냉랭한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방에 난방 설비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벽에는 도배를 해야 했고, 천장도 말라야 했으며, 천장도 텅텅 비어 있었읍니다.

내 친구를 방문한 후 심한 충격을 받고, 나는 감동과 상의하였습니다. 진실로 간증에 힘입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와드 회원들로 조직된 사랑의 봉사대가 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내 친구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와서 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나무 한 포기 없던 양쪽의 보도는 큰 포플러 나무들이 심어졌고, 문도 새로 달리고, 천장과 벽은 깨끗이 도배되었으며, 페인트 칠로 단장되고, 지붕도 새로 얹히고, 천장도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집 안에서 냉랭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어서 오라는 속삭임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루는 맨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의 침대에는 그의 백도날드가의 문장을 수놓은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사랑의 손길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앞서 나는 청년반 반원들이 매주 그에게 더운 음식을 가져와 함께 가정의 밤을 갖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찬 기운이 가시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수년 동안 손대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던 것도 말끔히 수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 실의를 물아내고, 사랑이 승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인생 드라마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행 20: 35) 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새롭게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목소리를 높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복지 계획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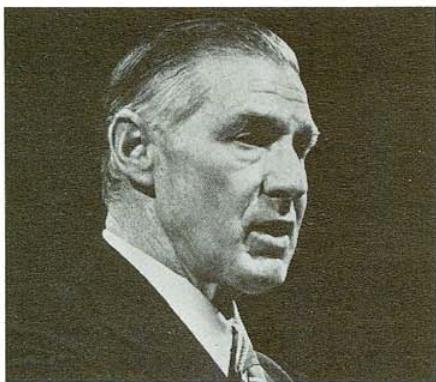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솔트레이크시티로 오셔서 복지 광장을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빛나고, 여러분의 가슴은 뛸 것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해 보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행복한 결혼 생활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결혼 생활은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것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는 어느 부인과 상담한 일이 있는 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혼의 이유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 나는 여려해 동안 그 부인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리에서 그 부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랫 동안 의로움과 낙담으로 보낸 혼적이 한 때 행복했던 그녀의 얼굴에 뚜렷이 보였습니다. 몇 마디 인사말을 나눈 뒤에, 그 부인은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기에 지쳤다고 말했

습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인의 허락을 받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혼이란 나쁜 것이예요. 이제 전후 사정을 다 아니 말씀이지만, 다시 그런 경우에 처한다면, 절대로 이혼은 하지 않겠어요. 이혼은 월션 더 나쁜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미국에서 100명의 기혼 부부 중 50명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이혼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 연감, 1976) 현재와 같은 증가 일로의 이혼율이 감소하지 않는 한, 1980년대 초에는 100명당 70명이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인간의 삶을 망치게 하고 가족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혼하는 당사자들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습니다.

실은 이혼을 겉으로만 보아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충분히 알 수도 없습니다. 확실히 이 큰 비극을 겪고 돌아킬 수 없는 불행한 삶을 보낸 사람들을 좀더 큰 동정심과 이해심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성취감을 맛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의 행복이 덧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혼으로 인한 가슴을 에이는 고통이 오랫 동안 자국을 남기며 무죄한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다 큰 행복과 큰 희망으로 첫 출발하는 결혼 생활에 어떤 요소가 빠졌습니까?

나는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오랫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오랫 동안 취급해 온 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이니, 이혼이니, 가정 파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익숙해 있습니다.

나는 또한 사랑하는 아내인 롯 차메의 덕

택에 참된 행복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나는 결혼 생활을 통해 가장 큰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에 관한 복잡하고 힘든 문제에 관하여 한 마디로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읍니다. 이혼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기심, 부정, 약속 불이행, 의사가 소통되지 않음, 불신앙 등의 실각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이유도 있읍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전철을 밟기는 했으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결혼 생활이 빠로고 되고, 힘들고, 지루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 그 생활을 소중하고, 특별하고,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 준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읍니다. 아담은 이브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창 2:23)

우리는 변함없는 애정과 믿음과 조화와 어려운 중에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 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했거나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솔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간단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는 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결혼 생활과 배우자에게 이로운 점을 생각하는가?

둘째, 나는 배우자에게 한 약속이라면, 어느 약속보다도 충실히 지키는가?

셋째, 나의 배우자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가?

넷째, 나는 나의 배우자를 훌륭한 인간으로 존중하는가?

다섯째, 우리는 돈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는가? 돈 그 자체는 부부를 행복하게 하

는 것이 아니며,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이기심의 상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섯째, 우리 사이에는 영적으로 거룩한 유대가 맺어져 있는가?

나는 킴볼 대관장님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저서에서 “두 배우자 중 둘 다 또는 어느 한쪽이 갖고 있는 힘을 제외하고서는, 결혼 생활을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은 없읍니다.” (결혼과 이혼, 메저렛 출판사, 17페이지)라고 하신 훌륭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 드립니다.

결혼 생활의 관계는 훌륭한 의사 소통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읍니다.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침들기 전에 잠시라도 기도한다면, 많은 의견 차이가 해소될 것입니다. 나는 의견 차이를 강조할 생각은 없으나, 그것은 사실상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재미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견 차이란 그조만 소금덩이와 같아서, 그로 인해 결혼 생활이 더 달콤하게 될 수도 있읍니다. 우리는 미소를 짓는다거나, 머리를 만진다거나, 어루만져 주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전달하지만, 매일 “사랑합니다”라든가 “여보, 정말 아름다워요” 등의 말을 해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읍니다. 적당한 때에, “미안해요”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청도 훌륭한 의견 교환이 됩니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상호간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데에는 불충실보다 더한 것이 없읍니다. 간음의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읍니다. 이같이 가증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은 그대로 계속되며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수도 있읍니다. 이같이 되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받은 자가, 모든 것을 다 잊고 용서해 줄 만한 큰 사랑을 지닌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

을 범한 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악을 벼려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반려자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면에서만 충실햄해서는 안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충실햄해야 합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녀 교제나 질투심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우리의 결혼 상대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어떠한 것이든 피해야 합니다.

정절이란 혼들리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게 하여 주는 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말라”
(교성 42 : 22)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 중에는, 남성과 여성의 진실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면에서 함께 결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는 그의 희곡 “헨리 5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합시키시느니라”(헨리 5세, 5 : 2) 하나님께서는 또한 결혼 생활을 가장 잘 지켜 주십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절보기에는 하찮게 보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 결실을 누리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닻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성스러운 요소가 하나씩 없어지면 결혼 생활의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연계 되는 축복과 영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요소가 부족한 탓입니다.

나는 거의 20여 년 동안 감독과 스테이크부장으로 일하면서 십일조를 내는 것이 이혼을 막는 가장 훌륭한 보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영적인

발전기가 작용하지 않을 때에 그 발전기가 계속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밧데리를 충전시켜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위대한 사랑의 화음을 끊임없이 발산하는 것보다 훌륭한 음악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훌륭한 음악은 두 사람의 음성이 합쳐서 하나님의 영적인 독창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상호간의 존경과 성숙과 예의와 약속과 정직을 토대로 하여 가장 위대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편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은 다른 어느 것을 통해 느끼는 행복보다 수천 배나 더 큰 것입니다.

부부가 부모가 될 때 결혼 생활의 의미는 더욱 깊어지고, 영적인 성장 과정은 일종 강화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아들은 성장하여 아버지로서 가족을 돌보게 되어야 합니다. 딸은 성숙하여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됨으로써 완전한 사랑의 의미를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 지상의 모든 성소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는 큰 것은 항상 작은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도와 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것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 : 20)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인 모든 결혼 생활과 가정에,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의 결혼 생활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어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기적이었읍니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물론경은 계시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영감을 받아 번역된 것이며, 인간이 지어 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 책임입니다. 첫장부터 끝까지 그 내용은 참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부름에 대해 간증드리며, 물론경이 번역되고 발행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우리의 구속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도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했읍니다.

요셉은 참된 교회 즉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다시 회복되는 데 쓰인 도구가 되었읍니다. 그는 물론경을 세상에 내놓았읍니다. 그는 금판의 기록을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했읍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회복된 영원한 복음을 전세계에 전파했읍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으며, 그것은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와 교회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각처에서 보여드 수많은 밀일성도를 모아 일리노이주, 나부에 상점과 기름진 농토와 교회와 학교와 대학이 들어선 큰 도시를 세웠읍니다. 그는 밀일성도의 서부 아주와 그레이트 베이슨 분지에서의 정착과 그의 계승자인 브리감 영 대관장에 의해 행하여진 사업을 계획했읍니다.

그는 위대하게 살았고, 위대하게 죽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했읍니다. 그리고 고대에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는 피로써 자신의 사명과 간증을 인봉했읍니다. (교성 135 : 3 참조)

그가 남긴 이름과 명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세월이 감에 따라 교회가 복음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국민에게 전해 가면서, 그의 이름은 그의 부름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수백만의 충실한 자들에 의하여 한층 더 빛날 것이며, 그들은 그의 이름에 경의를 표시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는 말일에 이 큰 일을 행하도록 하늘에서 예임되었읍니다. 그는 영예와 영감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고,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섭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영광을 돌렸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위대한 예언자의 어린 시절은 그저 평범하였읍니다. 그는 농촌에서 자랐으며, 정규 교육도 별로 받지 못했읍니다. 소년 시절의 그의 감정은 그 당시

미국의 개척지였던 서부 뉴욕주에 있었읍니다.

집안 식구들은 숲속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농장을 만들었읍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읍니다. 그들은 빈곤과 역경을 많이 겪었으나, 부지런히 노력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아 잘 살았읍니다.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는 예언자 이사야가 그의 보잘것없는 어린 시절과 초기 교육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언한 바 있읍니다. 이사야는 실제로 그를 학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읍니다. 이 예언은 인물을 확인하는 데 확실한 표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29장의 주제를 소개하면서 멸망당할 어느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부터 책이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그 사건은 팔레스타인이 땅을 다시 차지하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은 현재 그가 본 대로 기름진 옥토로 변해 가고 있으며, 그 책은 출판되었읍니다.

이 책의 출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한 점이 많이 있으나, 그中最 한 가지는 학식이 없는 사람과 학자가 관련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었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 당시에는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책이 출간되어 벙어리도 그 책의 말씀을 듣고, 장님도 보고, 약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기뻐하게 된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읍니까!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 그 책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론경입니다. 물론경은 어떻게 출현되었읍니까?

미대륙에 살았던 고대 민족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갑자기 멸망되었읍니다. 그 백성은 수백만 명에 달했읍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는 의로웠으며, 그들 중에는

금속판에 성스러운 역사를 쓴 예언자들도 있었읍니다.

그들이 최후로 멸망하기 직전에, 그 중 한 예언자가 땅 속의 돌상자에 안전하게 그 기록을 파묻었읍니다. 이 책이 현대에 와서 발견되고, 번역되고 출판되자, 고대 민족은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티끌 속에서 말했읍니다.

이 기록은 세상에 어떻게 출현되었을까요?

1823년 9월 22일, 뉴욕주 팔마이라 근교에서, 하나님의 한 천사가 요셉 스미스라는 18세의 소년에게 그것이 묻혀 있는 장소를 보여 주었는데, 당시 그는 학식도 없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농사꾼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현대의 예언자로 존경을 받고 있읍니다.

그 기록은 금판으로 되어 있읍니다. 각 금판의 두께는 보통 양철 두께만 하였읍니다.

각 판의 크기는 가로 17.5센치였으며, 쉽게 넘겨 볼 수 있도록 금속 고리로 한데 묶여 있읍니다. 그 책의 두께는 15센치 가량 되었읍니다. 각 판의 양쪽에는 고대 문자가 조그마하나 아름답게 새겨져 있읍니다. 그 책은 수세기에 걸쳐 돌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읍니다.

나는 여기서 잠시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그 당시에 그와 같은 기록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있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록이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1977년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기록이 확실히 있다는 대답을 할 수 있읍니다.

예를 들면, 고고학자들은 약 주전 750년 경의 앗시리아의 사르곤 왕의 금은으로 조각된 기록이 돌 상자에 보관되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최근에 발굴해 냈읍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은 다리오왕의 금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두 고대 기록은 번역되어 책으로 출판되었읍니다.

책과 같이 한데 묶인 이와 비슷한 금판은 한국에서도 발견되어,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볼 수 있으며, 이태리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 기록이 보존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돌상자는 특히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조그맣고, 아름답게 조각되어 보석이 들어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더러는 식품을 저장할 수 있을 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돌상자는 고대에서 흔히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기록의 실제 번역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요셉스미스는 자신이 우림과 둘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그에게는 번역이란 손대 볼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적들이 속출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 요셉을 죽이려 하였을뿐만 아니라 그의 일을 저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여 그가 행한 일에 대한 평叛을 나쁘게 하려 했으며, 그의 이름을 헐뜯으며, 억칠하고, 그의 일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예언자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대 계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를 깎아 내리고, 그에게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물론경 번역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이 그 책을 지어 냈다느니, 스풀딩의 것에서 따온 것이라느니, 심지어는 요셉이 시드니 리그돈의 이름을 들기도 전에 그 책이 출간되었는데도, 시드니 리그돈이 그것을 썼다느니 하는 말로 그의 일이 “인간의 힘”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번역 사업이 “인간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받도록 노력하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이 성경을 표절하여, 그대로 베껴 물론경을 만들었

다고 말함으로써, 요셉에게 전혀 가당치도 않은 지식과 능력을 부여하였으니,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금판의 기록을 번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필기자로 일했던, 올리버 카우드리도 그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그것을 번역하여 불러 주는 대로 (몇 페이지를 제외한) 물론경 전체를 내가 직접 기록했습니다.” (“루벤 밀러 일지”, 1848년 10월 21일)

이외에 필기자로 일하였던 마틴 해리스도 그와 똑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예언자의 충실한 아내요, 이 번역에 진행되는 동안 그의 곁에서 내조하고 때때로 필기자로서 일도 도와 준 엠마 스미스 자매도 이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영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도 원고를 받아쓸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필기자로 일할 때면, (요셉은) 내게 몇 시간씩 받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또는 잠시 쉰 다음에 돌아오면, 그는 원고를 보거나 조금이라도 읽어 볼 짬도 주지 않고, 즉시 그가 끝낸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곤 했습니다. …박식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그와 같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인츠 헤랄드, 1879년, 26 : 290)

그렇다면, 젊은 요셉 스미스가 성경에 있는 구절을 발췌하여 물론경의 일부가 되도록 훌륭하게 뜯어 맞출 수 있을 만큼 박식하다는 비난이 과연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의 요셉이 성경을 통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알맞은 구절을 골라서 물론경에 그같이 적절하고 능숙하게 맞추어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서 성경도 제대로 읽어 보지 못한 그는, 실제로 글쓰는 데나 편집하는 데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었다 해도, 그 당시 그의 능력에 비추어 그와 같이 책을 지어 내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물론경은 문학적, 종교적인 결작품이며, 한갓 농촌 소년의 꿈이나 능력으로는 지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책에 기록된 구세주의 홀륭하신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주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유의 하십시오.

우리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요셉 스미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더 보충시키려고 흡정역 성경 구절을 삽입하여 구세주의 말씀을 다시 쓸 만한 능력이나 뻔뻔스러움을 지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예언자 물론보다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어떤 비평가의 그럴 듯한 논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는 경전 원본을 작성하는 데 흡정역 번역자들이 예언자 물론보다 낫다고 생각할 만한 지식이나 판단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삼아 그렇게 생각할까요?

물론은 나무랄 데 없는 영감받은 예언자였습니다. 요셉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농촌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물론의 일을 개선시킬 수 있었을까요?

젊은 요셉은 자신의 말은 바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물론의 파업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아빈아다이의 능숙한 변론이나, 말라기나 이사야의 기사에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전히 번역자였을 뿐, 편집자나 작자도 아니며,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 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물론경 번역 사업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 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사 29:

14)

그러나 비평가들은 물론경과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똑같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

냐고 질문합니다. 그것에 대해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년 전에 영국에 살았을 때 런던에 있는 국립 박물관에 가서 흡정역 성경에 관한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번역자들이 일을 잘 하려고 영감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 한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영감을 받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두 책이 비슷한 것은 오히려 흡정역 번역이 정확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 책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물론경 전편에 미쳤으나 흡정역 성경에도 거의 그러했었습니다. 물론경은 그것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흡정역 성경을 교회의 공식 경전으로 받아들임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겉장에서부터 끝장까지 물론경은 계시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영감을 받아 번역된 것이며, 인간이 지어 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 책입니다. 첫장부터 끝까지 그 내용은 참됩니다.

요셉 스미스가 그것을 번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을 올리버 카우드리는 기록했습니다. 그는 물론경 번역 사업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적이었음을 확인했으며,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평범한 소년 시절을 보낸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로 이루어진 책이요, 세상의 구세주의 신성을 증거하는 두번째 증인인 새로운 경전이 출현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 책을 세상에 내놓을 것이며, 그 책의 출현은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말했음을 우리는 물론 비평가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언은 과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겸손하게 이 모든 사실이 참되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

비극의 주기

매리온 지 룸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주님은 멸망에 대하여 새로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계시하셨습니다.

지 상의 주민들이 오늘날 혼란에 빠져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회를 위협하는 혼돈 상태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연되어 있는 인간의 행동과 나라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끝내 큰 재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역사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6,000년 동안 인류 문명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여 역사는 같은 주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백성들이 변영과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율법에 순응할 때 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예언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율법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 되

풀이해서 들려 주십니다.

문명은 이러한 율법에 순응하는 한 계속 번영했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만큼 문명은 쇠퇴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완전히 무시될 때 문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담의 시대와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 이래로, 주님은 지상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주신 의로운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역사 기록과 그렇지 못한 역사 기록은 모두 이 예언의 정확성을 입증해 줍니다. 태초에 주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의로운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에 사탄이 저들에게 와서 이르되, ……이 말을 믿지 말라 하니 저들이 믿지 않게 되었으며, 도리어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하니, 그때로부터 인간은 육체와 육욕과 악마를趨는 차가 되었더라”(모세서 5:13)

여러 세기에 걸쳐 예언자들은 아담의 자손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녹의 백성들만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읍니다.

다른 백성들에게는 예언자 “노아가……하나님의 일 곧 태초에 있던 그대로를” 가르쳤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읍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나의 영은 항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저들의 날은 일백 이십 년이 되리라.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홍수를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에 노아는 인간의 자녀들을 불러 회개하라 하였으나 저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더라.”

“……모든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허황되며 끊임없이 악하기만 함을 보셨더라”(모세서 8:16—17, 20, 22)

그러나 노아는 계속해서 경고했읍니다.

“믿고 죄를 회개하여……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칩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신을 받으리니……너희가 만일 이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홍수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였으나 저들은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 ……세상이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세상에 폭력이 가득합이라. 보라, 나는 땅에서부터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리라 하시니라.”(모세서 8:24, 29-30)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도 같은 주기를 거쳤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받았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도와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창 19:24-25)

예루살렘은 멸망되었으며, 그 백성들은 멸망되었으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생활의 윤법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지구상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그들에게 회개를 경고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치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 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는 한탄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마 23:34-38)

미대륙의 두 민족인 야훼인과 니파이인의 문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의로운 윤법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주님은 그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의 사악함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셨으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비슷한 주기의 마지막에 접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극도로 사악해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1831년 11월에, 주님은 그의 현대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다.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깨뚫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복음을 배반하는 자는 많은 슬픔으로 절림을 받으리니, 저들의 죄악이 지붕에서 이야기되고 저들의 은밀한 행위가 드러날 것임이니라.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교리와 성약 1:1-4)

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러한 제자의 입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들이 나아갈 것이며 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땅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저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입할 일에 대비하

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십이라”

다음은 구속주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께서 진노하시고 주의 검이 하늘
에 채기웠은즉 땅의 주민 위에 떨어지고,
“주의 팔이 나타나리니, 주의 음성을 듣
지 아니하며…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교리와 성약 1:5,
11-14)

주님은 지상의 주민들이 오늘날 처한 처
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은 바로 주님의 식별법이었습니다.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
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
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
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
질은 하나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벨론
곧 멸망할 때 바빌론처럼 파멸하리라.

“그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한 재앙을 알
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
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
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 그들
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나
니”(교리와 성약 1:15-18)

세상에 선언된 것들 중에는 임박한 재난
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를 들
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황폐하게 하는 벌이 땅의 주민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때때
로 벌을 받아 부으리니, 드디어 땅은 공허
하게 되며 그 주민은 내가 올 때의 밝음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
이니라.”

이것은 바로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백성에게 고하였던 것같이 이 일을 네게 이
르노니, 지금까지 나의 말이 증명되어 온
것 같이 이번에도 증명되리라.”(교리와 성약

5:19-20)

후에, 주님은 요셉 스미스를 부르시어 이
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구속주요…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나의 선택된 자를 모으는 부름을
받았나니…

“…악인에게 환난과 파멸이 임하는 날을
대비하여, 스스로 마음을 준비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도록 하라 하셨느니라.

“때가 가까왔고 세상이 무르익는 날이 다
가왔음이라.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벼그루터기같이 되리니, 악인이 땅 위
에 있지 못하도록 내가 태워 버리리라. 만
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때가 가까왔음이요, 나의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은 성취되어야만 함이라. 이는
저들이 이야기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임이
니라.

“나는 편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만군과
함께 하늘에서 나타나 지상에서 천년 동안
인간과 더불어 의롭게 거하리니 악인이 견
디지 못하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큰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으로 변할 것이요, 별들이 하늘
에서 떨어지며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더 큰 징조가 있으리니,

“많은 무리 가운데 눈물을 흘려 슬퍼 우
는 일이 있으리라.

“또한 큰 우박이 떨어져 땅의 곡식을 멸
하리라.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는 악인에
게 보응하리니, 저들이 회개하려 하지 아니
합이라. 나의 분노의 잔이 가득찼도다. 보
라, 저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피는 저들을 깨끗이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지면에 파리를
보내리니, 그 주민에게 달라붙어 저들의 살
을 먹으며 저들에게 구더기가 생겨나게 하
리라.

“저들의 혀는 굳어서 나를 거스리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요, 저들의 살은 그 뼈에서 떨어지며 저들의 눈은 안강에서 빠지리라.”(교리와 성약 29:1, 7-11, 14-19)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듣기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참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백성에게 고하였던 것 같이 이 일을 네게 이르노니, 지금까지 나의 말이 증명되어 온 것 같아 이번에도 증명되리라. (교리와 성약 5:20)

이와 같이 임박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주민들은 죄악과 사악함에 젖어 있으며, 매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경고만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길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은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가르치셨던 것과 똑같은 단순한 진리를 새롭게 계시해주셨습니다. 요약해 볼 때,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교리와 의식을 제정하여 주는 것이며, 이 복음은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입은 독생자이시며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손인 지상의 주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상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은 원한을 품은 폭군의 독재적인 칙령은 아닙니다. 계명은 인과 관계의 문제로서, 평화와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윤법과 의식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계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과거에도 언제나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늘 자연적인 결과로 실패와 재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난의 전조로 닥쳐 오는 비극의 주기의 종국은 지상의 주민이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믿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능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과 꼬임을 대관장님이 오늘 이 연단에서 이미 말씀하신 계명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님이 고대에 하신 말씀은 지금도 참된 말씀입니다.

“나는…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찌니라

“간음하지 말찌니라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네 이웃에 배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출애굽기 20:2-3, 7-8, 12-17)

지상의 주민들이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고, 아울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사랑하라”(마 22:37, 39)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예언된 재난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 시대의 비극의 주기를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에도 시온이 있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자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된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될 시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

1977년 10월 1일, 토요일 오후 모임

교회 본부 역원 지지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우 리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예언자요 선지자요 계시자로, 그리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 엘든 태너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대관장단 제 2 보좌
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헬
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
워드 더블류 혼터, 고든 비 힙클리, 토마
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
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형제들을 십이사도 정
원회 회원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 축복사로 엘드리드 저 스미스 형제
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

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와 교회 축
복사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으로 그리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프랭클린 디
리차즈,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에이 디어도어 터틀, 닐 에이 맥
스웰, 매리온 디 행스, 폴 에이치 던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
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엘
마 소니, 스털링 더블류 실, 헨리 디 테
일러, 디어도어 엘 버튼, 버나드 피 브록뱅
크, 제임즈 에이 켈리모어, 조셉 앤더슨,
윌리엄 에이치 베넷, 존 에이치 밴먼버그, 로
버트 엘 심슨, 오 레슬리 스토운, 윌리엄 그
랜트 뱅거터, 로버트 디 헤일즈, 애드니 와
이 고마쯔, 조셉 비 워스린, 에스 딜위스
영, 하트만 렉터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찰즈 에이 디메이, 윌리
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칼로스 이
애시, 엘 러셀 빌라드 이세, 존 에이치 그
로버그, 제이콥 디오거, 본 제이 페더스토
운, 던 엘 라슨, 로이든 저 매릭, 로버트
이 웰즈, 저 호머 더럼, 제임즈 엘 페리모
어, 리차드 저 스코트, 휴 더블류 피녹크,
에프 엔지오 부쉬, 요시히코 기꾸찌, 이상의
여러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터 엘 브라운 형제를 관리 감독으로, 에
이치 베크 피터슨 형제를 제 1 보좌로, 제이
리차드 클라크 형제를 제 2 보좌로 지지하시
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 대표 전원.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바바라 브래드쇼우 스미스 자매, 제 1 보좌로 제네스 러셀 캐넌 자매, 제 2 보좌로 매리언 리차즈 보이어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주일학교 회장으로 러셀 엔 넬슨 형제, 제 1 보좌로 비 로이드 포울먼 형제, 제 2 보좌로 조 제이 크리스틴슨 형제,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청남 회장으로 닐 디 세이러 형제, 제 1 보좌로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형제, 제 2 보좌로 퀸 지 맥케이 형제,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청녀 회장으로 루스 하더 평크 자매, 제 1 보좌로 호텐스 에이치 차일드 자매, 제 2 보좌로 아메스 지 캠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된 위원회 위원 전원.

초등협회 회장으로 나오미 맥스필드 셈웨이 자매, 제 1 보좌로 콜린 부쉬먼 레몬 자매, 제 2 보좌로 도러시어 루 크리스찬슨 머독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교회 교육 기구 임원으로 스펠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엔 엘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힙클리, 토마수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넬 에이 맥스웰, 매리온 더 행스, 빅터 엘 브라운,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이상의 여러 형제 자매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 위원회 위원으로 윌포드 저 에들링, 해롤드 에이치 베넷, 웨스트 이 해밀튼, 데이비드 엘 케네디, 위렌 이 퓨, 이상의 여러 형제들.

태버내를 합창단 단장으로 오클리 에스 이반스, 지휘자로 제롤드 디 오틀리, 보조 지휘자로 도날드 에이치 리플링거, 태버나를 올겐 수석 반주자로 알렉산더 슈라이너, 올겐 반주자로 로버트 컨덕, 로이 엘 달리, 존 통거스트, 이상의 여러 형제들.

이상의 여러분을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

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킴볼 대관장님, 이상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 전원이 만장 일치로 지지되었읍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받은 형제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층 회중석에서 들리는 음성 : 태너 부대관장님 ? 태너 부대관장님 ?

태너 부대관장 : 네 ?

위층 회중석에서 들리는 음성 : 제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보지 못하셨읍니까 ?

태너 부대관장 ?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

위층 회중석에서 들리는 음성 : 여기 위층입니다.

태너 부대관장 : 네. 그 위에 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위를 보지 못했읍니다. 이 모임이 끝난 후 즉시 헝클리 장로님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

기꾸찌 장로 부처



의로운 순종의 축복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데 절대 필요한 순종을 배우는 방법에 대한 제언

제 자매 여러분, 이 생에서 우리가 열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이같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자발적으로 거룩한 성약을 맺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로운 순종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줍니다. 진실로, 의롭게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원한 진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 지도자의 말

씀에 따르거나 구속력이 있는 의식을 받게 되면 그들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스스로 택합니다. (엘 41:11) 아직도 많은 사람은 혼련되지 않은 생활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을 버리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리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니까”라는 말로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과 그의 선택된 종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고 영화롭고 거룩한 인간이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완전한 순종을 배우시어, 그로써 그는 우리의 울음을 세우신 자요 주님으로 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다음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히브리서 5:8-9)

우리는 지금 그가 밟으신 것과 같은 길을 걸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각자에게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 표적과 경고를 분명하게 표시해 주어, 우리가 길을 잊지 않고 멀어져 나가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치상 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승리에 이르게 하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우도록 주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대로 실천하여 주님의 인정을 받고, 이 생에서의 축복과 내세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혼자 견도록 버려

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인간에 관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주님의 계획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율법은 성경과 물론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로 이루어진 교회의 표준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계명을 알지 않고서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우리가 이미 받은 계명에 따르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계명을 알기를 바랄 수 없읍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56페이지)

경전 공부에 관해서, 예언자는 또한 이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을 가장 자주 읽는 사람이 경전을 가장 좋아하게 됩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56페이지)

경전에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큰 보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 보기로 합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살가들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신명기 28:1, 9)

이번에는 물론경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또한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며,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경하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를 축복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리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시나, 너희가 이를 행하면 즉시 너희를 축복하시니 이미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이며 그 일로도 너희가 빚을 진 것이요, 현재가 그러하여 장차도 그러하며 영원토록 그러할 것이며, 너희가 무엇을 뽑낼 수 있겠느냐?”(모사이야서 2:22-24)

다음에는 교리와 성약에서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해의 영광의 세계에 있을 곳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요구한 바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준비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78:7)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마지막으로 값진 진주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 하여지리라.”(아브라함서 3:25-26)

이러한 경전 구절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보상이 약속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두번째 방법은 살아계신 예언자와 그 의의 교회 지도자의 충고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언자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충고하고 인도해 주시는 시대에 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뜻을 예언자를 통해 전해 주시며, 주님의 예언자들이 그의 백성들을 그릇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교회 회원들에게 명백하게 말씀되었읍니다.

“.....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교리와 성약 21:4-5)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얻게 된다고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자우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흘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리와 성약 21:6)

주님은 또한 스테이크 부장과 지방부장, 감독 및 지부장 등 지역의 지도자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1973년 1월 29일자, 대관장단 공문에서, 교회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권고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 즉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가 영적인 일에 관하여 조언을 주는 고문과 세상적인 일에 관하여 조언을 주는 상담자를 대할 수 있게 조직하셨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을 잘 알고 있으며, 환경과 문제 상황도 잘 이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충고를 주는 데, 필요한 분별력과 주님의 영감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란 바로 감독과 지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이나 지부장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스테이크 부장이나 선교부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판리 역원으로부터 조언을 받게 됩니다.

문제가 이러한 일차적인 단계의 과정에 의해서도 흡족하게 해결될 수 없다면, 우리는 더욱 큰 충고를 받을 때까지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순종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만사를 행함에 있어서 자기 수련을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훈련시키는 한 가지 과정은 회개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생활에서 과거의 불순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용서가 낳는 기적, 35페이지)

우리는 지상 생활은 우리에게 모든 육욕을 이겨내야 하는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실생활의 습관과 행위에 관한 죄를 회개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경에서 앤 윌리엄스의 말씀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너의 구원의 날이리...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생을 누릴 동안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의 어둠이 다가오느니라...

“이 생에서 너희 육신을 다스린 그 영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너희 몸을 다스리리라.” (엡 34:31-34)

분명히 우리는 현세에서 자기 수련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서 자기 수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세주가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로 해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대의 경륜의 시대의 성도들의 생활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역경과 고난과 박해와 개인적인 고통에 의해서 단련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받는 일에 익숙해 있었던 유흥은 시련을 겪으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욥 23:10)

요셉 스미스는 극심한 고난을 받아 절망하고 있던 중에도, 고난을 통해 육으로 난 인간이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

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도 3:19) 할 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 하였습니다.

때로는 영원한 내세에서, 우리의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역경이나 고난은 우리에게 경험과 단련을 쌓게 하고 완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세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은 우리가 순종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 경륜의 시대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곧 해의 왕국의 율법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해의 왕국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의 왕국의 율법에 충실히 따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와는 다른 더 작은 영광이 마련되었다고, 경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하여 성별되지 아니한 자도 다른 왕국을 상속받아야 하나니, 달의 왕국이나 별의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무릇 해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88:21-22)

해의 왕국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저들의 손에 맡기신 자なり.

“저들은 제사와 왕이요 그의 충만하심과 영광을 받은 자요.”(교리와 성약 76:55-56)

이러한 큰 축복에 대한 약속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보다 오히려 못한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을 평가하여 기본적인 해의 왕국의 율법 즉 순종의 율법에 관하여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목표로

어느 왕국을 선택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자녀에 관한 주님의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고 생각해 보는가?

② 나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의 충고에 따르는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동의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다른 것은 무시하는가?

③ 나는 나와 내 가족에 관한 문제에 관해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의 충고와 권고를 받아들이는가?

④ 나는 나의 욕욕을 자제하고 자기 수련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가?

⑤ 나는 최선을 다해 파거와 현재에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옳은 일을 하여 그것을 시정하려 하는가?

⑥ 나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받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를 간직하는가? 나는 불평하지 않고 나의 짐을 짊어지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힘든 짐이 되지 않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은유하고 결손하니 나의 명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쉽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9-30)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항적인 성품으로는 해의 왕국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일 순종하기를 아직도 배우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온갖 악이 가득하며 성도로서 합당하게 저희 중에 가난한 자와 피로움을 겪는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는 도다.

“또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용화



왼쪽부터 다이도어 엠 버튼 장로, 버나드 피 브록뱅크 장로, 윌리엄 에이치 베넷 장로, 존 에이치 반
멘버그 장로,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오 해슬리 수토운 장로,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장로, 로버트 디 헤
일즈 장로, 이상 모두 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임

단결에 따라 일치 협력하지 아니하는도다.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05 : 3-6)

“나의 백성은 순종을 배우기까지 필요하면 저들이 겪는 고난으로 징계받아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05 : 3-6)
경전을 읽고, 하나님의 예언자와 그 외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교회 지도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수련을 하며, 신앙의 짐을 참아 내면, 우리의 본성은 연단되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 성도들에게 글로 써서 전해 준 다음과 같은 현명한 말씀을 명심해야겠

습니다.

“순종에는 순수하고 참된 기쁨과 평화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주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본질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정해 주시거나, 계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율법과 의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영광과 선이 끊임없이 주어질 것입니다.”(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5 : 135)

“주님이 명하실 때는, 실천하라”는 것은 이 경륜의 시대의 첫 예언자의 생활 철학이었읍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생활 모토와 실천 사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하나님과 인간의 일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인간의 가르침과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진리 사이의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한 고찰

여러 형제 자매님께 인사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나는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을 주제로 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인간의 일은 인간의 영에 의하여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전 2:11 참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고전 2:14) 나는 그 말씀을 인간의 지혜만을 믿는 자는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예언자께서 들려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도 수천의 교회가 난립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이사야 24:5-6)

그는 인간의 계율을 따른 수천의 교회를 마음속에 생각했음이 분명하며, 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께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이사야 29:13-14)

이제 나는 인간의 방법 및 가르침과 주께서 거룩하신 예언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진리 사이의 차이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자 요셉이 시현을 보았을 때, 전 기독교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육신도 없고 지체와 감정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둘을 귀나 볼 눈이나, 말할 입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도세도 이 상태가 널리 유행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까닭으로 그는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 갔을 때, 그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열국

중에 흘어져, 사람의 손으로 만든(즉 사람이 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리라고 말했습니다. (신 4:26-28 참조)
그것은 요셉 스미스가 시현을 보았을 당시에, 전 기독교 세계에서 섬기던 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일에(그런데 우리는 말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4:29 참조) 요셉 스미스는 주님을 찾았는데 결국 그를 만났습니다.

한번은 예언자 요셉이 미국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그에게 그의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을 묻자, 예언자는 “우리에게는 성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성신과 함께 하게 되면, 그는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것이 됩니다. 즉 그는 인간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리석게 생각되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됩니다.

이번에는, 예언자 요셉의 경험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해 볼시다. 청년 시절에, 그는 야고보의 권유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왔으며 그 빛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서 17절)

그러자 모든 개인과 단체의 옳고 그름을 심판할 권리를 갖고 계신 세상의 구세주께

서 요셉에게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요셉은 주님께 모든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들이 모두 인간의 교훈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까닭도 그들이 계시보다는 인간의 계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우리의 신조와 다른 몇 가지 점을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의식을 변경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가서서 침례받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더 이상 침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내려갔으며, 요한이 그를 침례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엡 4:5)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구세주께서 요단강에서 침수로 씨의 침례받으신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 아이들은 목사에 의하여 유아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부모의 행위입니다. 맷모섬으로 추방당한 요한은 위대한 날에,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계 20:12 참조) 어린이는 그들 자신의 의지로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부모의 행위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예수께 데려오자 제자들은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14) 그리고 그는 어린 아이들을 안아 올려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일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이해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형태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물을 조금 뿌리는 것이며 그것은 침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전세계에 사도들을 보내셨을 때, 그는 그들에게 모든 나라에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으며,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침례받을 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역시, 그러한 상태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팔에 안아 올리심으로써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물론경에서 우리는 예언자 물론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한 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몇 마디를 여러분께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을 침례함은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조롱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의 능력을 혼되다 하는 자라.”(모로나이서 8:9, 20)

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는 유아 세례는 아담과 이브의 죄를 씻어 낸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겨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이 성구가 사실이 아니라면, 또 아담과 이브가 범한 원죄를 씻어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담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같이 율법과 의식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자) 오늘 날 우리에게는 예언자와 사도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예언을 포함한 모든 것은 끝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주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살도록 하신 이래 그의 백성들을 지시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실 예언자를 내세우시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이는 우리의 보조 조직의 가르침과 가정 복음 교육과 신권의 가르침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그들이 행하는 봉사를 통해서 오는 것), 그의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위대한 선교사 프로그램)를 두시어 “…우리가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 4:11-13 참조)

우리는 믿음에 하나가 되지 못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도구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14)

거룩한 선지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인간의 철학을 따를 때, 우리도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목사들이 “예수께 와서 그를 알고,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분께 죄를 고백하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그것은 옳은 길로 들어서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는 그런 까닭으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께서 떠나가라”(마 7: 21-23)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께서 그의 교회에 두신 기반과 교회의 회원이 따라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구세주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뿐이라면, 달란트에 관한 구세주의 비유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다는 말이 있읍니다. 얼마 지난 뒤 그가 돌아와서 그 종들과 회계를 해 보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만들고, 두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만들었읍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말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태복음 25: 21, 23)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가서 그것을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는 이같이 말했읍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에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마태복음 25: 24-25)

그런데 구세주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마태복음 25: 28-30)

뿐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도 야고보가 악마들도 주님이 구세주이심은 알면서도, 죄를 범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약 2: 19 참조)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약 2: 20)이라고 말했읍니다.

요한이 마지막 날의 장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맞아, 죽은 자들은 물론 대소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보았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들이 빠져 있어, 모든 사람은 책에 쓰여진 기록에 따라,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가 아니라, 각기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았습니다. (계 20: 12 참조) 이와 같이 행위는 교회 회원들에 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차이점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일일이 거론할 시간이 없읍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린 도둑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 43)고 말씀하셨으므로 도둑이 구세주와 함께 천국에 간 것으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인간의 지혜로 사물을 이해하려 드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가 천국에 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진리에 따르면, 그는 구세주께서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정해 놓은 낙원에 간 것 뿐으로, 그가 성결케 되고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차이점은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한 바와 같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알게 되고, 인간의 사정은 인간의 영에 의하여 알게 되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고전 2: 11-14)라고 말한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어 주의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지도를 따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백하는 것

우리는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폴 에이치 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장단을 대신해 서, 우리 정원회에 세 분의 새로운 형제님이 들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회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나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으며, 이 대회와 다른 모임에서 귀 기울여 들면 중, 우리 대관장님께서 교회를 떠났거나 비활동적인 회원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분은 앞서 아주 재미있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인용해 드리자면, “예방은 치료보

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미 결혼했거나 하지 않은 젊은 분들과 전세계의 청소년들은 이 말씀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내 딸들이 성장기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우리 집 차를 타고 여행한 일이 많았는데,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아빠, 언제 그 곳에 땅게 되요?” “얼마나 먼 곳이예요?”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질문은 어른들도 상당히 많이 묻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거나, 학업을 마치거나, 좋은 직장을 갖게 되거나, 일정한 수입을 갖게 되거나, 아기가 태어나거나, 병에서 회복되거나, 새 차를 갖는다거나, 골치 아픈 일을 끝내거나, 은퇴를 하거나 또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인생이란 야영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우리에게 즐겨 가르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특히 청소년과 신혼 부부들이 인생을 전체로 보고 훌륭한 여행을 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찌기 파부가 되어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던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에둔 손녀 딸이 그릇과 퇴색한 수건 등을 싸는 것을 거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재봉틀?”하고 할머니가 말했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면 언제나 모자를 쳐기다 놓으셨단다. 나는 그 때마다 ‘모자를 고리에 걸어 놓으세요.’라고 말하곤 했지. ‘모자가 언제나 재봉틀 위에 있어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는 폐염으로 네 명의 어린 아이들과 나를 남겨 두시고 세상을 떠나셨단다. 그 후 얼마나 많은 세월동안 나는 할아버지가 직접 재봉틀에 모자를 올려 놓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텐데! 하고 생각했는지

모른단다.”

이 이야기 속의 할머니와 같이, 우리는 사소한 일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특별한 의미나 목적도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모임에 시간을 보내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무관심하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도 잔소리를 퍼부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귀한 시간에 대한 추억을 갖기보다는, 결점들을 둘러싸며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일이 헛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게 “왜 이렇게 할 수 없지?” “왜 그 일을 하지 않소?” “언제든 내가 시간이 나면...”하고 말하는 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딱내 딸이 지난 달에 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자, 그 딸 아이와 함께 매일 같이 생활한 십팔년의 세월이 잡자기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어떤 시간과 분, 어떤 낮과 밤이 그렇게도 즐겁고, 웃으며 성장한 세월을 삽여 버렸을까요? 딸 애가 떠난 그 날 밤에, 나는 그 애의 침실로 들어가, 녹음기를 보고는, 지난 날을 회상하며,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음악을 틀어 볼까?” 나는 또한 앞으로 얼마나 많이 음악을 듣고 싶어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와 부모가 앞으로 길이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딸 자넷은 지금 병실에 누워 있으나, 우리는 함께 중요한 순간을 나누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넷은 우리의 큰 소망이요, 일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귀중함을 돌연히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은 왜 그다지 맞기가 힘든가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속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는 사람의 결점을 들추어 내며, 비난하고 꾸짖게 되는가요? 그것은 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시 에스 루이

스는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조심 하십시오. 오를렛을 만들지 않고도 계란은 깨뜨리기가 쉬운 것입니다.”(리차드 엘 이반스, 리차드 이반스의 인용집 중에서 인용, 솔트레이크시티, 퍼블리셔즈 프레스, 1971, 169페이지.)

우리 각자는 분주하고, 숨돌릴 사이도 없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많은 집회가 있는 중에서도, 멈추어 서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는 중요한 모임도 있지만, 잘 계획되거나 합당하게 조직되지 않은 다른 모임도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임이나 할 일을 대하게 되면, 진실로 알아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가도 알아 보고, 머리에 빛이 비칠 때의 머리 모양도 알아 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야 하며,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어머니가 한번은 매우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려고 뒤늦게 서두르고 있었답니다. 그녀가 방에서 뛰어 나왔을 때 베살난 작은 딸이 엄마를 가로 막으며 말했었답니다. “엄마, 엄마..”

그 말에 어머니는 “내가 바쁜 줄도 너는 모르니?”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엄마한테 말할 게 있어”

“지금은 안돼!”하고 어머니는 성급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린 딸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그러니?”하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참으로,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서면 젊으나, 다시 한번 돌아서면 그 때는 이미 늙습니다. 일분 일초가 과거

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열 여덟 살이 되었다가 스물 여덟 살이 되었다가 다시 마흔 여덟 살이 되었다가 어언간 벌써 반백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비난하고, 불평한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꽃 냄새를 맡을 시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상원 의원에게 줄리아 와드 호 자매가 한번은 “나는 어느 특별한 사람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데요.”라고 말한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줄리아, 나는 아주 바쁜 사람이오.”하고 그는 말했읍니다. “나는 개인적인 일로 관심을 쏟을 시간이 없오.”

그녀는 이에 답했읍니다. “참 놀라우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지경까지는 이르지 못하셨는데요.”(리차드 이반스의 인용집, 165 페이지 참조)

먼저 여러분 스스로 개인에게, 관계 당사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십시오. 이보다 더 문제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되든지, 다른 어느 것 보다 먼저 인간의 영혼을 구하시는 주님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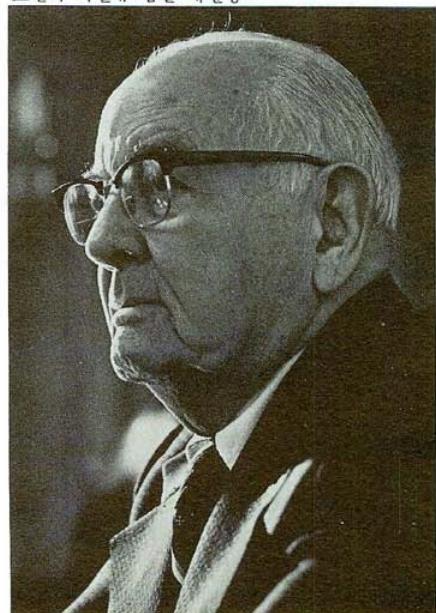
요전번 밤에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대회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읍니다. 살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비행장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자, 나는 기대감과 흥분으로 가득차 올랐읍니다. 나는 마치 우주에서 귀환하는 영웅과 같은 느낌을 받았읍니다. 이러한 감정은 어디서 연유된 것인가요? 나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 대학으로 떠나가 버린 자녀, 남편의 사망으로 다시는 영뚱한 곳에 모자를 두지 못하는 것 등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함께 하는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상기시켜 주지 않

습니까? 흐르는 세월에서 보면 그것은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이런 면에 비추어 우리는 사소한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그치고, 함께 하는 모든 아름다운 순간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곳에 놓게 될까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아빠,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하고 참을성없는 아이들은 가끔 질문합니다. 어른들은 삶의 암박을 느끼게 되면, “언제나 그곳에 이르게 될까?”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함께 해왔으며,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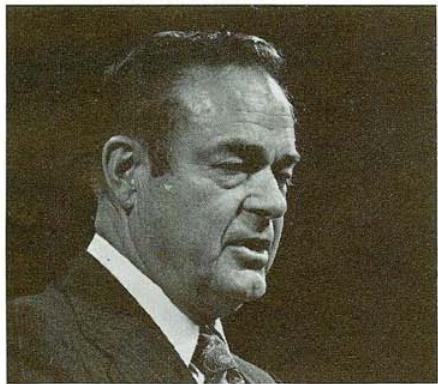
컴블 대관장님께서,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은 위대한 여행임을 아는 지혜를 주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향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증드립니다. 아멘. *

스페서 더블류 컴블 대관장



교회 역사에서의 특별한 순간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1974년 4월 4일 이래, 사태는 참으로 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냉담하게 내버려질 수 없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브라질에 있는 성도들의 특별한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며, 사용파울루에 짓고 있는 새로운 신전 건축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는 우리의 간증과 복음의 진보에 크게 기여한 교회 역사에 빛날 특별한 순간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역사를 기록한 분들에 의해서 여러 번 기록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1974년 4월 4일에 일어난 일

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야기는 1973년 1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께서 바로 그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었읍니다. 25년 이상이나 교회 회원들은 해롤드 비 리 장로가 대관장이 될 때를 기다려 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 분은 비교적 젊은 편이었고, 모두 연노하셨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과 메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뒤를 이어 선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관장이 되시리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해롤드 비 리 장로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었읍니다. 교회의 복지 및 신권 프로그램에서 그가 보여 준 지도력과 그의 강력한 인품 및 그의 전진한 판단력은 가장 주의를 집중시킨 사도의 한 사람으로, 또 가장 존귀한 영향력과 충고를 들려 주는 사람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힐 만한 영적인 자질을 분명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결친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비상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분이 대관장이 되셨을 때, 2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실 것으로 모두 생각하 였읍니다.

부름받은 지 겨우 1년 반 밖에 되지 않았는데, 틀연히 그 분은 떠나가셨읍니다! 대관장이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죽음 아래 처음 당하는 일이었읍니다. 요셉 스미스가 일리노이주, 카테지에서 순교를 당했을 때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걱정과 더불어 견잡을 수 없는 의문이 떠올랐읍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예언자 없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세상을 떠나셨다. 이러한 비상 사태 하에서도 교회는 지속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교회가 지속되겠지만 전파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스페서 더블류 킴볼 사도가 대관장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생전에 보여준 것과 같은 지도력을 갖추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가 다음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그려저녁 이끌어 나가겠지만,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사정도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시여, 킴볼 대관장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는 참으로 “주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나이다.” 비탄에 잠긴 그 당시의 말일성도는 누구나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1974년 4월 4일로 다시 되돌아 가봅시다. 그날 아침, 교회 본부 사무실에는 교회 총관리 역원 전원과 지역 대표 및 전세계에서 온 그밖의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철 년 동안 정기적으로 해온 대로, 다시 한번 지시를 받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경우에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지도력의 기강을 확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의 부재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없이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 “김볼 대관장님이 이 빙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다시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김볼 대관장님이 일어나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연설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직책을 맡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리 대관장님의 서거를 애석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난 해에 리 대관장님이 지시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별로 질지는 않았지만, 김볼 대관장님이 말씀하는 동안, 회중들은 문득 전

혀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놀라운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전에 가졌던 어떤 모임과도 전혀 같지 않은 어떤 특이하고 강력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적으로 말씀하는 것과 같아서, 머리카락이 쭈뼛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생기를 되찾게 되었고, 우리의 귀에 울려오는 초월적인 메시지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킴볼 대관장님이 신과 함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자고 손짓해 부르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전능자의 목적을 볼 수 없게 가렸던 장막을 걷어내어, 우리에게 복음의 운명과 그 사명의 시현을 함께 보자고 권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사람은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실, 나는 킴볼 대관장님의 말씀을 다시 읽지 않았으나,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나 생생하게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암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님의 영이 킴볼 대관장에게 임하시었으며, 그로부터 명백한 실체로 우리에게 전해져, 즉시 우리는 감동과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화로운 시현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세주 당시에 사도들이 행한 성역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와 똑같은 사명이 어떻게 해서 요셉 스미스가 이끈 사도들에게도 주어졌는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한 믿음과 신앙으로 정진해 나갔으며, 큰 권능에 힘입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완전한 신앙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지 못한 까닭을 지적하셨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현실 그대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향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표어가 된 “걸음의 폭을 넓힙시다. (엔사이, 1974년 10월호,

5페이지)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그 때였습니다. 누구나 그 말을 지금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말을 말하기 쉽게 바꾸어 보자면, “시작해 봅시다” “나아갑시다!” “일합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다른 메시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청소년은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에 문호를 개방합시다” “멕시코, 남미, 일본, 영국 및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냅시다” (“세상이 개종될 때” 엔사이언, 1974년 10월호, 2~14페이지 참조) 이것은 노인들에게는 불안을 주면서도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새로운 시현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언젠가는 대관장님은 우리들 중에 누구든 아니면 모두를 불러 먼 나라로 보내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겠구나” 그로부터 6개월도 안되어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포르투갈로 가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한 시간 십 분 동안 특별히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돌아가시자, 그 뒤를 이은 브리감 영이 나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한 1844년 8월 8일의 경우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펫츠버그에서 배도한 시드니 리그顿은 돌아와서 교회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브리감 영이 일어나자,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 그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변형되어 요셉 스미스의 모습과 목소리를 내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간증했습니다. 그 순간 교회 역사가 결정되었고, 1974년 4월 4일의 경우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이 말씀을 마치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일어나 감동어린 목소리로 참석한 사람들의 감정을 대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 여태까지 이려한 모임을 가진 이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훌륭한 말씀을 우리는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예언자이십니다.” “참으로 나는 1974년 4월 이래 사태는 전과 달라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킴볼 대관장님이 교회의 다른 어느 대관장보다 더욱 뛰어난 인물로 추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든지 주님의 예언자에게는 영적인 힘이 계속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킴볼 대관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게 하여, 참으로 큰 걸음의 폭을 내어 더딜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누가 대관장이 되든지 아무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연히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 그야말로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과 함께 그는 근 10,000명의 새로운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많은 새로운 나라에 문호를 열었으며, 레이맨인들의 일을 알리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참된 사자가 되라고 했으며, 죽은 자를 위한 시급한 사업을 새로이 강조했고, 많은 새로운 신전의 건축을 추진시켰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러한 것과 같이,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부도덕, 불신앙, 명탐, 나태, 부정직등과 같은 모든 악과 불의를 일소하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식품과 원예 및 경제적인 안정을 준비하고, 가정과 가족을 정리 정돈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시온 백성이란 일컬고 있으므로 킴볼 대관장님도 우리가 시온 백성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관장님도 주님도 다시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1974년 4월에 우리가 들은 것과 그 이후로 우리가 들어온 것은 모세나 말라기와 브리감 영이 말씀한 것과 아주 흡사하지 않습

니까? 나는 킴볼 대관장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 주님은 행동하지 않는 지도자, 귀기울이지 않는 회원들, 특히 맞이나 나침판이나 심지어는 조종사를 포함한 모든 것을 배척하는 정신없는 세상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여 침례받고, 신권을 수여하며, 왕국을 건설하고,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천사와 사자와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실 만큼 판대하시므로, 우리는 냉담하게

내버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에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974년 4월 4일 이래, 사태는 참으로 전파 같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가 킴볼 대관장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큰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아직도 미래에 있습니다. 예언자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희생 : 선교사의 모습

애드리 와이 고마쯔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개인적인 희생은 완성과 축복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에 대하여 간증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끊어 앓아 물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격 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마가복음 10:17-22)

희생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신앙과 사랑과 기타 많은 미덕을 줍니다. 많은 큰 축복은 영원한 희생의 율법에 순종할 때 오게 됩니다.

희생은 언제나 선교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브리검 영은 이렇게 기록했읍니다. “십이사도 몇 명과 함께 나는 1839년에 영국으로 파견되었다. 우리는 돈 한 푼 없이 집에서 출발했으며, 거의 모든 십이사는 병에 걸려 있었다. 떠날 때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오하이오를 경유하는 동안 병에 걸렸다. 테일러 형제는 죽지는 않았지만, 늙은 아버지 클트린에 의해 질가에 남겨져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나는 한 구역쯤 되는, 그렇게 멀지도 않은, 아니 반도 되지 않아 보이는 강가까지도 걸을 수 없었다. 강을 건널 배를 타기 위해 강가까지 가는 데도 부축을 받아야 했다. 당시 우리의 상황은 모두 그러했다. 나는 코트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나는 배낭에서 조그만 누비 이불을 꺼내, 코트대신 뒤집어 쓰고 뉴욕주까지 여행했으며, 거기서 나는 초라한 무명 코트를 얻어서 걸쳤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낯선 땅 영국에 건너가서, 외국인들 사이에 머무르게 되었다.”(프레스頓 니블리, 선교사 경험, 북크래프트사, 1975년, 90페이지.)

오늘날, 선교 사업은 얼마간 달라졌으며 희생의 정도도 달라졌지만, 교회에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선교사가 되어, 모두 함께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친구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복음 선교사와 선교부장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의 훌륭한 영을 느끼는 것과 그들이 맡은 일에 헌신함을 보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주님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선교 사업을 하도록 제한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의 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4-25)

부인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개인적인 욕망을 희생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교사의 희생이란 그의 인생의 2년을 주님을 섬기는 데 보내는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흔히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특히 그 일이 힘들거나 실망스런 일이 겹치게 되면,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선교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알게 되고,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의 왕국 전설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희생하며, 자신을 잊고 일에 전념하면, 선교사 일을 하는 데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을 하면 간증이 강화됩니다. 선교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며,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를 부인해야 하는 힘든 개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에 나는 어느 선교부장으로부터 선교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한 젊은 선교사에게 통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를 만나 본 뒤에, 우리는 위대한 물론경 예언자인 베냐민 왕이 가르친 원리를 토론했습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할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할진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이 되리라.”(모 3:19)

이 젊은 선교사가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그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끝까지 즉 선교사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 젊은 선교사는 다시 주님께 헌신하여 지금은 선교 사업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주님과 그의 영을 구하면, 이 교회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시하심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봉사한 어느 선교사가 쓴 시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되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네.
온종일 쉬임없이 일하고 걱정도 하지만,
어떤 이가 복음의 참 진리를 안다고 들려
주는 것만으로도,

그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없겠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는 것.
처음에는 이것이 파연 희생이라 생각했네.
이제는 그런 것은 전혀 희생이 아님을 알았네.

이곳에 있게 된은 위대하고 놀라운 특권이라네.

말도 배우기 쉽지 않으나, 이제는 많이
안다네.

조정해야 할 것은 많이 있으나,
시련과 슬픔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네.

나 어느 것과도 이것을 바꿀 수 없네.
나는 담배를 끊은 사람을 보았네.
나는 그의 행복한 미소를 보았네.
기도하면서 한 가족이 무릎꿇는 것을 보
았네.

성도들이 더욱 크게 성장하는 것도 보았
네.

그들이 거룩한 신전을 갖게 될 그 날은
얼마나 행복한 날인가.

선교사들은 주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
고 참다운 사랑으로 희생하기 때문에 지극

한 열성을 갖고 훌륭하게 일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와 기량을 겨루어 보고자 하거나 또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은 순종하고, 희생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선교사가 되어 가정에서의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친지와 친구와 이웃을 축복하는 것 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은 이 원리를 실행하고, 서로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는 가장 훌륭한 장소입니다. 집안 일과 가족 활동을 서로 도움으로써 가정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가족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각 가족은 영원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희생과 가족의 단합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전도 세울 수 있고, 가정을 강화시키고, 훌륭한 인품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구세주의 희생과 순종과 고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친 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8-9)

우리가 매일 희생의 원리를 실천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부인한다면, 우리 역시 성령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인류의 구세주이십을 나는 알고 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부름을 받아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키도록 성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로 큐볼 대관장님은 큐브으로 주님의 예언자이며, 전세계의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들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젊은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도덕적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고, 부모와 가까이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뒤에 계신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불려주신 “의와 진리 지키기에”라는 찬송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나는 물론경에서 “새로운 세대”라고 말한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의 청소년 여러분에게 출직하고 꾸밈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옳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청춘 남녀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영입니다. 여러분은 거의 6,000여 년 동안 보유되었다가, 유혹과 책임과 기회가 최대한으로 많아진 이 시대 곧 현대에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소망과 목적과 영광은 여러분이 순결하고 흠없이 주님께 되돌아가, 주님의 면전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단련시키기 위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분은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아브라함 3:25) 보기 위해, 자유의지 즉,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홀륭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지도자는 혼신적으로 여러분을 돋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늘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 역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파멸시키려 합니다. 그는 계명으로 여러분을 단련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곧,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마약을 복용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의 충고와 계명을 거스리는 자유를 줍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젊고, 혈기 왕성하여, 세상에 매혹되기 쉽고, 새로운 감정에 몰입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청소년기란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한 인생의 봄철이며, 청소년은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모험을 즐기고 새로운 것에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이 때는 육체적인 면에서도 정력과 건강이 넘쳐 훌륭 신중히 절제하는 태도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일생의 황혼기가 까마득하게만 보이는, 시간

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라는 세대는 현재가 곧 과거가 될 것이며, 그 때에는 현재를 슬픔이나 회한 또는 기쁨이나 풍요로운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우선 놀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과 같이 비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은 현재도 행복하고 복음 생활을 통해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의 한 사람으로, 또한 시온 청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여러분의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충고를 드립니다.

첫째, 도덕적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앤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다 참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라.” (엘 41: 10)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 좋은 느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순간의 쾌락을 추구하여 어리석은 회열에 빠지게 되면 주많은 행복한 세월을 잃게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복이란 그의 유혹에 사로잡힐 때에만 오는 것이라고 믿게 하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의 산산이 부서진 인생을 보고 왜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우게 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보낸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속에서, 다른 소녀들이 저와 같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경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아무런 때가 묻지 않은 그 행복하고, 자유스런 시절로 되돌아갈 수 만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또는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바치기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슬픔과 파멸로 몰아 넣는 구렁으로 제가 빠져 들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현재 제 마음속에 가득차 있는 고통과 회한, 그리고 자존심의 상실과 인생의

가장 귀한 은사가 제게서 빠져나갔다는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도 인생에서 흥분과 쾌락을 구하였으며, 그것은 결국 제 손에 재만을 뛰게 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이 생에서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해틀드 비리, “너희는 거룩한 곳에 있으라” 엔사이, 1973년 7월호, 122페이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표준에 주의한다면 그와 같은 짐과 가슴 아픔은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행복하게 되는 표준의 하나는 도덕적인 순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표준은 옛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바로 부도덕을 말하는 소위 새로운 도덕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도록 종용합니다.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는 영원한 순결의 표준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재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 나름대로의 표준을 갖고 있고, 교회는 다른 표준을 갖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혼전 성 경험을 찬성하기도 하나, 주님과 그의 교회는 여하한 혼외 성관계와 기혼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음란하고 무절제한 성관계를 확고하게 비난하신다. 자칭 권위자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이나, 교회에서는 이 것을 철저히 반대한다……그와 같이 부정한 행위는 고대의 예언자들이 비난했으며, 현재에도 교회에서 비난한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기적을 놓는 신앙, 메ஜ렛 출판사, 1972년, 175페이지)

이 표준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래 반적인 표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천국의 도덕 규범은 결혼 전의 완전한 순결과 결혼 후의 완전한 신뢰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킴볼 대관장님께서는 남성과 여

성에게 적용되는 똑같은 표준을 명백히 규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혼한 성적인 죄로는 애무가 있다. 이것이 혼히 사통, 임신, 낙태 등 모두 추악한 죄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극히 악한 것이어서 혼히 젊은이들은 이것이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되는지조차 모르게 마련이다. 그들은 육욕에 사로 잡히고 악한 생각과 성적인 욕구에 휩싸이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죄와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스펜서 더블류 킴볼, 용서가 넓는 기적, 북크래프트, 1969년, 67페이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순결은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성관계는 맷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도덕한 속에서 결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은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라고 베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임프르보먼트 이라. 1953년, 498페이지)

둘째, 부모님과 늘 가까이 지내십시오. 세상에는 어른들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지혜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 젊은 여러분의 열정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에게는 어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되어, 보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열의와 힘에 가득 차, 농부를 위시하여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험을 들게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느 아름다운 가을 아침에 어떤 농촌으로 들어 갔는데, 저쪽에서 좀 허리가 굽은 노인이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험 의무원은 활기 있게 농부에게 걸어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좀 보세요. 노인장, 생활해 나가시기에 바쁘시지요.”

나이든 농부는 할 수 있는 한 허리를 꿰고,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저 아름다운 들판이 보이지요?” 의무원은 정말 아름답다고 시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도 있지요?”

“예,”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알맹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돌보기 위해 허리가 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 분들은 속이 꼭꼭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한 연륜과 경험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합정에 빠지지 않게 도울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청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때, 인생의 아름다운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내 사무실로 찾아와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열 여덟 살쯤 되었는데,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그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뒤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축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친께 축복해 달라고 해본 적이 있으? 부친께서는 교회 회원이시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 선권을 받으신 분입니다마는 비활동 장로인 편입니다.” 내가 “부친을 사랑하십니까?”하고 물자, 그는 “예, 벤슨 장로님, 부친은 훌륭한 분이시고, 저도 부친을 사랑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이행해야 할 선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셔요. 교회에 잘 나가지도 않으시며, 일조를 제대로 내시는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친은 좋은 분이십니다. 가정에도 충실하시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기회를

보아서 부친께 가장의 축복을 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 어떻겠오.”

그는 말했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깜짝 놀라실 텐데요.”

나는 다시 말했읍니다. “그렇게 해 보겠오? 나도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 보겠습니다.”하고 그는 말했읍니다.

며칠 뒤에 그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벤슨 형제님, 우리 집안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읍니다.” 그는 일어난 일을 나에게 말해주면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읍니다. “적당한 기회가 와서, 내가 아버지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 정말 나에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니?’ 나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읍니다. ‘예,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 다음 그는 말했읍니다. “벤슨 형제님, 아버지는 정말 제게 아름다운 축복을 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축복을 하는 동안 내내 결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부친께서 축복을 마치셨을 때 우리 가족에게는 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한 감사와 사랑과 애정의 유대가 이루어졌읍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가까이 하십시오.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이 제안되면, 미루지 마십시오. 함께 참가하여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가족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한 가정에는 세대차가 있을 수 없읍니다. 악마의 또 다른 무기는 자녀를 쫓아내고 부모와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까이 하십시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고 드리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아 떨 같이 채로 치려 하는도다.”(니시 18:18)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유혹이라도 막을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판장은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 주셨읍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하루에 두 번씩 하나님께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간구하는 젊은 남녀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흑이 탁친다 해도, 그들은 그들이 받은 영감으로 그것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토대는 다져지게 되고, 우리가 성실하고 솔직하게 주님의 영의 인도를 구한다면,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복음 표준, 솔트레이크시티, 임프로브먼트 이라, 1969년, 26페이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여러분은 진심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참된 감정, 의문점, 불안, 기쁨, 마음속의 소망 등을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단순히 똑같은 날랄파 구절로 습관적으로 기도할 뿐입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내어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기도의 응답은 흔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으로 식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시련과 유혹을 거쳐야 하나, 그 앞에는 위대한 영원의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일어나, 빛을 발하”(교성 115:5)며, 세상에 빛이 되고, 타인의 모범이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거하나, 세상의 죄에 물들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즐겁고 아름답게, 그리고 더러운 죄에 물들지 않고 생활해 나갈 수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와 같이 생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기뻐하라, 젊음이여, 그대의 날이 밝아

음이라.

밥이 되기 전에 많은 시간이 그대에게 있으니,

저 멀리 있는 겹은 구름인들 무엇이 두려우랴.

구름넘어 영원한 빛이 밝지 않는가.

오늘 그늘이 그대의 길을 흐리며

낯선 길이 어디든지 나 있어 그대를 손짓하고,

세찬 폭풍우가 그대를 혼드는 것은

그대 어떤 일이 닥쳐도 용감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속 깊이 시현을 본다면,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꿈과

아름다운 내일에의 약속은

그대에게 나침판과 별이 되어 주리.

오늘, 그대의 좋은 점을 높이 들어 올려, 세상의 표준이 되도록 하라. 미움과 전쟁과 실망과 쓸쓸함이 물러나, 정의와 사랑과 자유가 들어서라.

(모드 오스몬드 쿡, “젊은이는 시현을 보게 되리,” 솔트레이크시티, 멜빈 에이 쿡 재단, 1972년, 59페이지)

새로운 세대인 젊은이들이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여, 세상의 부정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가장 합당하고 순결한 도구가 되어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어긋남이 없도록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태버내를 기둥 사이에 앉아 있는 회원들



1977년 10월 1일, 토요일, 신권회

신권의 열 가지 축복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회원이 됨으로써 축복이 시작되며 그 축복은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그의 대리인이며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비적인 반차인 아론 신권이나 주님께서 지상의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높고 위대한 권능인 멜기세덱 신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권에는 장로와 칠십인과 대제사와 축복사와 사도의 다섯 가지 직분 또는 부름이 있으나, 신권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권은 어느 직분보다도 더욱 큰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왕국이며, 신권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평등한 회중입니다. 왕국의 모든 장로들에게는 자유로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사도만을 위하여 마련된 축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축복은 행정적인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종과 개인적인 의로움에 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멜기세덱 신권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신권의 열 가지 축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복 :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찰되고 살아 있는 교회의 회원이며, 우리는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속되나니,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나는 해도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84 : 19, 17)

복음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복음은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이요 수단이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자녀는 진보하고 발전하여, 그와 같이 될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권은, 지상의 인간에게 위임되어,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권리입니다.

멜기세덱 신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복음도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이 없는 곳에는, 참된 교회도 없으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인간을 구원할 권능도 없습니다.

둘째 축복 :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았으며,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별시키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높이 세워 주는 놀라운 영적인 엔디우먼트인 영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신앙을 토대로 하여 신회의 한 분의 끊임없는 동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것은 계시를 받고, 시현을 보고, 조물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론 신권을 갖고 있던 요한은 죄사함을 위해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멜

기세례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였던 예수님은 성신과 불로 침례를 주었읍니다.

성신은 계시자입니다. 그는 영생을 알고 있는 거룩한 분들인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이 대신권은……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교성 84 : 19)

영적인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유행하는 기적과 병고침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의 인간에게 놀라울 정도로 내려 주시는 진리와 빛과 계시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받은 계시에 따르면 멜기세덱 선권은 “교회의 모든 영적인 일에 관한 축복의 열쇠를” 지닙니다. 이 거룩한 반차를 지닌 모든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받아 알게 되는 특권을 가지며 여러 하늘이 저희 앞에서 열려 하나님의 장자의 교회와 그 모든 회중과 서로 친교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 친교를 맺으며 임재하심을 누릴 권능이 있느니라.”(교성 107 : 18—19)

세째 축복 : 우리는 영에 의하여 성별되어, 불로 악을 불태워 흠없이 깨끗하게 되어 신과 천사들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성신은 성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교성 84 : 33) 그들은 거듭 나며, 성신으로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고대에 강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에 대하여 엘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이 거룩한 신권의 부름을 받아”—즉 멜기세덱 선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성별되었고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의 옷은 깨끗하게 씻겨졌느니라. 저들이 성신으로 성별되고 옷이 깨끗하게 씻겨진 후 하나님 앞에 티없이 순결하게 되어 죄를 미워하였으며, 실로 정결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저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였으매”(엘 13 : 11—12)

네째 축복 :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함에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복음을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선교사로 일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선한 일을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의 의식을 수행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계명을 지키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기적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일에 참되고 충실하다면, 우리도 그같은 특권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리인이며, 그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 와 일하신다면 적절 행하시고 말씀하실 때로 우리도 행동하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축복 :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주가 아버지와 하나님 되심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될 권능이 있습니다.

“너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도 없는 자의 반차를 쫓는 자니라” 주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는 내 안에 있어 하나님 되나니, 하나님의 한 아들이니라. 이같이 모든 인간은 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니라.”(모세서 6 : 67—68)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또한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될 때까지 전보하고 발전할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롬 8 : 17—29)

여섯째 축복 : 우리는 축복사의 반차, 곧 영원한 결혼의 반차이며, 가족이 해의 왕국의 영광을 계속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는 반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영광에 오르고 영생을 이루는 빛과 영광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말하는 “신권의 반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성 131 : 1—

4 참조)

일곱째 축복 : 우리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 세상의 왕국과 지상의 모든 요소와 힘을 다스리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경전에는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그의 자손들에게 스스로 맹세하시니, 이 반차와 부르심에 따라 임명된 모든 사람은 신앙에 따라 산을 부수고, 바다를 나누고, 강물을 마르게 하고, 물줄기를 돌릴 권능을 갖게 되리라.

“나라의 군대도 무찌르고, 땅도 나누고, 모든 구속도 풀고, 그의 뜻과 명령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며, 모든 권세와 권력도 굽복케 되리라. 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창 14:30-31, 영감역)

실로 멜기세덱 신권은 그리스도가 몸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계 11:15) 하시게 될 그 때에 열국을 다스릴 바로 그 권능입니다.

여덟째 축복 : 우리는 신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받을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생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것은 첫째, 가족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 둘째, 아버지의 충만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모든 자들은 주님과 성약을 맺게 됩니다. 각 사람은 엄숙하게 약속합니다.

나는 신권을 받기를 성약합니다.

나는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성약합니다.

나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교성 84:44) 것을 성약합니다.

주님 편에서도 그와 같이 충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 즉, 하나님 왕국에서의 영생을 주시겠다고 성약하십니

다. (교성 84:38, 84:33-44 참조)

그런 뒤에 주님은 약속을 결속시키심을 나타내기 위해, 약속된 보상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몸소 판계된 이 맹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멀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시 110:4)

그리고 멀기세덱 신권을 받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경전에 이렇게 써어 있습니다. “이 신권에 성임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니라.”(히 7:3, 영감역)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고, 그들의 신권은 영원히 계속되며,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장자의 교회의 회원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저들의 손에 맡기신 자니라.

“저들은 제사와 왕이요, 그의 충만하심과 영광을 받은 자요,

“가장 높으신 이의 제사니, 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요, 에녹의 반차를 따른 자요, 독생자의 반차를 따른 자니라.

“그런고로 기록된 바와 같이 저들은 신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따라서 만물은 저들의 것이라. 살았거나 죽었거나 현재 것이나, 미래 것이나, 다 저들 것이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교리와 성약 76:54-59)

아홉째 축복 : 우리는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할 권능을 갖고 있으니, 우리 가 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모든 것에 참고 충실한다면, 우리는 영생으로 인봉될 것이며, 주님의 면전에서 조건없는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더욱 분명한 예언의 말씀은 어느 사람이 성 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계시 및 예언의

영으로써 영생에 이르도록 결봉된 줄 알고 있음을 가리키느니라.”(교성 131 : 5)

특히,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성역의 말년에 성도들에게 의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어, 그들의 부름과 선택받을 것을 확고히 하고, “네가 승영하리라.”는 하나님 의 말씀을 들도록 하라고 열심히 권하였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0 페이지)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 이 경륜의 시대에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본보기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주 네 하나님이고,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 것임이라. 진실로 내가 네게 승영을 맺어 주며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네가 네 조상 아브라罕과 함께 앉을 보좌를 마련할 것임이니라.”(교성 132 : 49)

열째 축복: 우리는 순결한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죄와 슬픔의 세상에서 육신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권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인간에게는 가장 영화로운 축복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왕국에서 모든 자를 차별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93 : 1)

주님은 멜기세덱 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너희가 온전히 결손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시기와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내 앞에서 결손하여지면 장막이 걷혀져서 나를 보고 내가 존재하는 줄 알리니, 이는 곧 너희의 특권이요, 이 전도 사업에 종사하기로 선임된 너희에게 주는 약속이라. 육욕적인 마음이

나 육체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입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데를 막론하고 육체로 하나님을 본 자는 없었느니라.

“또 육체적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으며 또 육욕적인 마음을 쫓는 자도 거할 수 없느니라.

“지금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고 성역을 베푸시는 천사와도 머물 수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참고 견디라.”(교리와 성약 67 : 10—13)

이러한 것이 신권,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 신권의 열 가지 복으로, 이 신권은 고대의 성도들이 신의 이름을 너무 자주 반복해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멜기세덱을 따라 부른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경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 의를 행하였더라.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사자의 입을 막고, 맹렬한 불길도 껐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정을 받은 그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맷은 성약의 반차에 따라 대제사에 성임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것으로, 이 반차는 인간도 아니요, 인간의 반차도 아니고, 아비나 어미도 아니요,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나는 해도 없으며, 다만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

“그것은 그 자신의 음성의 부름에 의하여, 그 자신의 뜻에 따라 그의 이름을 믿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노라.

“멜기세덱은 이 반차의 제사였으며, 그리하여 그는 살렘에서 평안을 얻어 평강의 왕이라 불리웠느니라.

“그의 백성은 의를 행하였고, 천국을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땅의 것과 구별시켜 취하여 말일 곧 세상의 끝날을 위해 남겨 두셨던 에녹의 도시를 구하였다.

“맹세코 하늘과 땅이 함께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에 단련되어야 하니라.

“이같이 의를 세운 멜기세덱은 그 백성들이 천국의 왕, 다시 말해서 평화의 왕이라 불리웠느니라.

“그는 음성을 높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그가 맷은 성약에 따라,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한 축복에 따라 그에게 부와 명예와 영원히 소유할 땅을 주셨노라”(창세기 14:26-29, 33-37, 40 영감역)

형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입니다. 그것은 멜기세덱과 아브라

함을 축복한 것과 같이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은 여기 있음을.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는 참되며, 그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길 수 있으며 후세에서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땅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있으며, 인간이 내어줄 수 있는 모든 명예보다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 관대하신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물려 받을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다섯 개의 “수”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예전에 소년이었던 어른과 곧 어른이 될 소년들에게 주는 충고

오래 전부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 온
브루스 맥콩키 장로의 뒤를 이어 말씀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훌륭한 군목들을 대회에서
만나뵈니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
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이공에 도착했을 때 월남 여행을 마치고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형체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을 머금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혼합된 감정으로 이곳을 떠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세계 각처에서 훌륭하게 협신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혼합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바로 얼마전 오후 전국 소년단 챔보리에 참석하였을 때, 출기차게 내리는 비에 나도 흠뻑 젖었는데, 그때 어떤 소년

이 진흙 둑에서 진흙탕으로 미끌어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에 젖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애야, 비가 와도 기분이 나쁜 것 같지가 않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나쁘기는요, 선생님.”

나는 말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난단 말이냐.”

“안나요, 선생님, 집에서는 절대 이런 짓을 못하게 하거든요!.”

내가 오늘 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명의 그 또래 소년과 두 명의 훌륭한 남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씀의 주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들은 여러분과 같이 우수한 청소년들이고, 어른들은 교회와 사회내에서 선택된 지도자들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그런 아버지에 속하는 한 사람과 그의 다섯 살난 아들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곧 선거가 있을 것인데, 그는 시장으로 출마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내가 시장으로 출마할까?”라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싫어요.” 하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몇 분이 다음 주에 우리 스테이크로 와서 나에게 계속해서 스테이크부장으로 있어 달라고 할 것이다. 그 분들이 그러면 그려겠다고 할까?”

“싫어요.” 하고 소년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하고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냥 보통 아빠가 되어 주셔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재미있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안은 전통적으로 교육적인 면에서 수재들을 배출해 온 터이라, 그 아버지는 고등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성적표에 “미”가 있는 것을 아내가 보여 주자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화가 나서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그를 서재로 불러, 엄하게 성적을 따졌습니다.

“도대체 성적표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렇지만요, 아버지.”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다섯 개의 ‘수’를 보아 주셨으면 해요.”

소년편에서 볼 때 아버지가 보통 아빠가 되면서 다른 중요한 일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른의 입장에서도 아들의 성적표에 “미”가 있을 때 “수”가 눈에 잘 띠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전에 소년이었던 어른과 곧 어른이 될 소년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른은 소년 시절을 기억할 수 있으나, 소년은 어떻게 어른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년들은 어른, 곧 어떤 형태로든 어른이 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며,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훌륭한 소년이 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른들과 같이, 여러분도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어른들은 우리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일이 어떤 성과를 가져온다해도 큰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다섯 개의 “수”와 “미”에 대한 이야기에서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완전은 합당한 목표이며 좋은 성적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은 서로 다른 능력과 은사를 갖고 있으며,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것이며, 학교 성적은 솔직하고 정직한 노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진실로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점은 모든 인간 문제의 근본이 되고, 세상의 기회는 모든 인간 기회의 근본이 됩니다.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며, 기회를 최대로 선용하는 사람은 올바른 것을 우선으로 하고 성품이 원만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자 관계에 대하여 말할 때,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님도 내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가 없거나, 또는 아버지가 있다 해도 아버지로서 보여주어야 할 최선의 모범과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많은 소년들의 경우에 대하여 나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소년들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을 표명해야 합니다. 훌륭한 어머니를 갖고 있는 소년이라도 남자 어른의 보살핌과 사랑과 모범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게는 남자 어른이 어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나쁜 행동을 행하고 괘씸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른들이란 돈이나 범죄 행위나 노름이나 싸움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방함으로써 어른이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모임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소년들을 찾아 보아야 하는가는 설명할 수 없으나, 우리 가족과 함께 신앙을 지키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년 소녀의 친구가 되어 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것이 우리의 첫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동안 나와 함께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칠판의 한쪽 끝에 별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은 알렌이라는 소년을 나타냅니다. 나는 별을 둘러싸는 원을 그리겠는데, 그 원은 그를 매우 사랑해 주는 어머니와 그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 해 주는 아버지를 포함한 알렌의 훌륭한 가족을 나타냅니다.

칠판의 다른 한편에도 딕을 나타내는 다른 별을 그리겠습니다. 딕은 별로 행복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알렌과 같은 가족이 없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면, 별 밖에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알렌의 가족의 원과 딕을 나타

내는 별로부터 바퀴살과 같은 선을 그려봅시다. 우리 모두 즉, 초등협회, 주일학교, 청남, 청녀, 소년단, 신학원 중등부, 아론 신권 정원회 회원 및 회장단, 정원회 고문, 가정 복음 교사 등의 모든 지도자들이 맡은 바 일을 다해 나갈 때, 각 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훌륭한 요인을 그 선에 써 넣는다고 해 봅시다. 멀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지도자도 물론 딕과 알렌에게 똑같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가족은 모든 면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반면, 자신을 인도해 줄 아버지가 없는 소년은 그만큼 친구를 필요로 하게 되며, 특히 훌륭한 어른은 어떠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훌륭한 요인은 겸손하게 기도하며, 현명하게 계획하고, 조심스럽게 구성하고, 자신 있게 위임시키며, 효율적으로 겸토하며, 그런 다음에는 청남 청녀가 필요로 하는 일에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빈틈없는 감독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들 청소년은 감독단이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사용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온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청년으로 그러한 관심을 받아 적합한 반응을 보여준 경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여기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소년이 약국에 들어 와서, 약방 주인에게 자기는 헬렌 브라운의 아들인 봄 브라운인데, 그 약국에서 외상으로 가져간 약값을 치루기 위해 자기가 그 약국에서 대신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약방 주인인 존 스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는 않았으나, 이 열 일곱 살난 고등 학생의 남다른 양심에 감명되어, 봄이 토요일에 시간제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첫날 약방 주인은 크게 감명되어, 그는 일이 다 끝나자, 서로 합의한 임금인 12달러가 든 봉투를 소년에게 전네 주

었습니다. 소년은 봉투에서 1달러짜리 두 개를 꺼내더니 존스씨에게 그 중의 하나를 잔돈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봄은 1달러 20센트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80센트는 10달러짜리 지폐와 함께 봉투에 넣어 존스씨에게 전네주면서, 우선 약값으로 그 정도만 내도 되겠느냐고 물었읍니다. 존스씨는 봄에게 돈을 더 많이 가져 가라고 했습니다. “너는 학교에서 돈이 필요할게다.”하고 그는 말했읍니다. “그밖에도, 앞으로는 네 임금을 올려 주기로 작정했단다. 12달러의 반이라도 가져 가도록 하거라.”

“아닙니다.” 17세의 소년은 말했읍니다. “다음에는 좀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해도, 오늘은 의상값 10달러 80센트를 깊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몇몇 봄의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함께 영화 구경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집에 가야 하므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짓궂게 그에게 함께 가자고 추근대자, 그는 단호히 돈이 없어서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존스씨는 그들 사이에 끼어 들어 봄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려는 찰라에, 봄을 장난스럽게 밀쳐 대던 한 소년이 봄의 주머니에서 20센트가 찔랑거리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시 놀려대기 시작했읍니다. 드디어 봄은 조용히 말했읍니다. “사실 나는 돈을 조금 갖고 있어. 그렇지만 그건 내 돈이 아니야. 집 일조를 낼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 해 두었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어머니가 어찌신지 보아 드려야겠어.”

봄과 그 친구들이 약방에서 나가자, 존스씨는 전화기 있는 데로 가서 의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읍니다. “여보게.”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 해 동안 자네의 처방대로 약을 조제하면서 자네를 훌륭한 의사로 존경해 왔다네. 난 또한 자네가 물론 감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네의 종교

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네. 그런데 지금은 자네 교회에 나가는 한 소년이 내 일을 도와 주고 있는데, 그에게는 다른 소년과 아주 다른 점이 있어, 그와 같이 훌륭한 소년을 배출해 낸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봄 브라운이 존스씨의 생활에 면친 조약돌은 과문을 크게 벗져 나가, 약사와 그 가족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성도들과 함께 생활에 나가는 따스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되었읍니다.

봄은 어려서부터 원리를 익혔으며 그를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별시킬 수 있는 인품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면에서 보나 정상적인 소년입니다. 그가 장차 훌륭한 남성이요, 어진 남편이 되고, 정상적인 아빠, 다른 많은 사람을 도와 줄 유능한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하고 성실한 가족은 사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가족을 크게 강조해야 하며 또 늘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 각 가정의 힘보다 더 강하게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도 가정에서 해야 할 것을 대신 할 수 없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소년과 소녀, 남성과 여성성을 있는 그대로,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가 접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그들을 밀어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 주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릇된 결정을 하여, 그들의 여러 친구들이 취하는 그릇된 길을 따른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기다려 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결국은 머리를 쑥이고 집으로 들어온 탕자를 기다린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죽은 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눅 15 : 20) 우리는 주께서 2,700여 년 전에 주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도 자비로 기다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지켜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온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휼히 여기려 하십이라”(사 30 : 18)

청년 여러분(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훌륭한 청녀 여러분)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족을 강화시킬 책임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가정에서 건전한 관계를 이룩하고, 한편 어른인 우리들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모두 다 가정을 갖고 있지 못한 젊은 형제 자매 및 친구들인 다른 사람들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성스런 임무를 이룩하게 되고, 그들도 우리가 받는 축복을 함께 받고 누릴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항이 실제로 적용된 것을 내가 직접 보게 되었던 두 가지 실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내가 대회 모임에 참석하여 연단에 섰을 때, 어느 작은 소년이 통로로 나와 연단위로 올라서서 아마도 학창단에 들어있는 어머니를 찾는 모양이었읍니다. 그는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으며, 귀여운 어린 소년이었으므로, 나는 잠시 멈추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이름과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가를 물었을 때, 어느 키 크고, 잘 생긴 젊은이가 좌석에서 일어나 아이를 데려 가려고 앞으로 나왔읍니다. 그 아버지가 연단 앞에서 아이를 안아 올리더니 입을 맞추어 주었을 때, 나는 그만 목이 다 메이는 듯했읍니다. 전혀 당황하거나, 떼리거나, 육하고, 화내는 기색이 없었읍니다. 단지 가볍게 키스하고 큼직하고 ‘힘찬 팔로 사랑스럽게 안아 올려, 그곳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길이 잊지 못할 경험을 행복한 소년과 현명하고 의젓한 아빠가 전해 주었읍니다.

그런 다음, 최근에 나는 내가 담당한 스

테이크 대회에 참석해서 동시에 갖고 있는 그 스테이크 유년주일 학교를 찾아 보았읍니다. 내가 교실에 들어 섰을 때, 한 여자 아이가 매우 외롭고 무서워 하는 표정으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맡기고 어른들의 모임에 참석하러 갔읍니다. 곧 어느 훌륭한 젊은 교사가 그 아이에게 다가와 곁에 무릎을 놓고는 그 아이를 감싸 안아 주며 안심시켜 주었읍니다. 어린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는 평안을 되찾았읍니다. 곧 이어 제 2막의 장면이 시작되었읍니다. 다른 어린 아이가 나와서 앞서의 아이와 같이 무섭고 의로운 표정으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아이를 그대로 안고 있던 젊은 교사는 둘째 아이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놓고 한 팔로 안아 주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읍니다. “엘렌아, 이 어린 숙녀가 무섭고 쓸쓸해 한단다. 친구를 안심시켜 주는 테 도와 주겠니 ? ”

먼저 어린이는 이제는 웃물도 훌쩍거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 어린이는 이내 선생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안심이 되어, 서로 도우며 조용히 있었읍니다. 교사는 의사 세 개를 나란히 놓고 두 어린이 사이에 앉아 양손으로 가만히 잡아 주었읍니다.

그날 아침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명백히 본 듯했읍니다. 보다 많이 살아오신 분과 함께 생활하며, 사랑하기를 배우고, 서로 돋기를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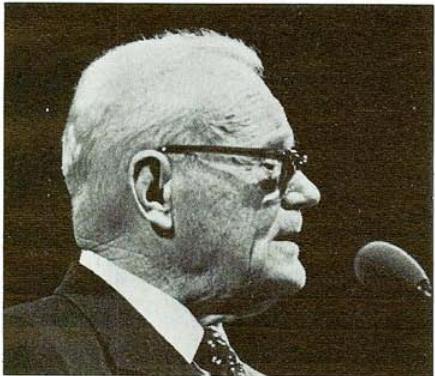
경전에서 간단한 글로 훌륭한 설교를 들려 주는 구절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 갈 수 있으리이까”(창 44 : 34)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과 어른을 다같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를 의지하라

매리온 지 루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우리의 역사는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라”를 말씀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합당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특히 아론 신권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분들이 이 모임이 끝나도 내가 말씀드린 것이 주를 의지하라는 것이었음을 오늘 밤에 기억하시어,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계명은 주께서 몸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열 달 전에, 주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이람 스미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어두움 속에 비치는 빛이라. 나의 권능으로써 네게 이 밀을 주노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 곧 정의를 행하게 하며 겸손히 걷게 하며 공정하게 심판하게 하는 영을 신뢰하라. 이것이 나의 영이라.”

“.....네 영육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 11-13)

2년 후에는 감독인 뉴웰 케이 휘트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당황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털 한 오라기도 아무도 떨래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교리와 성약 84: 116)

1841년에 윌리암 로가 나부에 있는 성도들이 병을 앓고 있어 자녀들의 건강을 염려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려므로 나의 종 윌리암으로 하여금 나를 신뢰하고 이 땅에 있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염려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 땅의 질병은 너희 영광을 높이리라.”(교리와 성약 124: 87)

사악한 노아 왕에 의하여 황무지로 쫓겨난 사람들을 위로시키기 위해 앤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저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니라.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면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니 주의 백성에게도 이같이 하시리라”(모 23: 21-22)

주를 의지함으로써 받은 보상에 대하여 경전에 기록된 가장 극적인 증거의 하나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이 큰 공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집전하게 되었던 일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블레

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풀짜기 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듣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즉 키가 9척 6치였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무게가 120파운드나 나갔다고 합니다. (삼상 17:1, 3-5)

“그 밖에도 그는 등에 놋방패를 메고, 다리는 무거운 놋경갑을 쳤다. 그가 손에 들고 다니는 창은 자루가 베를 채 같고, 창날의 무게만도 18파운드가 넘었다고 한다.” (더 블류 클레온 스키우슨, 4000년의 세월, 북크레프트, 1966년, 19페이지)

이 싸움 대장은 사울의 군대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 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하니라.”

골리앗은 이와 같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사무엘상 17:8-11, 24)

이런 참에, 어린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에서 복무 중인 형들에게 아버지의 전갈을 가지고 진지에 왔습니다. 그가 골리앗의 싸움 청하는 소리를 듣자, 그는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판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왕이 다윗이 한 말에 관한 것을 듣고는, 그를 소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자신을 말함]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전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님과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이제 우리는 이 소년들이 주를 의지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전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전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7:26, 32-37)

그런 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으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는 너무 무거웠고, 또 그는 군복에 익숙치 못했으므로, 벗어버렸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꼴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엉신여기니——기록에는 그가 엉신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

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하고 다윗은 계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불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불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아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즉 그가 급히 뛰어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쭉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놋투구 바로 밀을—들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것은 블레셋 사람에게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머리에 맞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사무엘상 17:40—50)

다윗이 이같은 공훈을 세운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태가 그와 같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 떨었으며, 그날로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전에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경에 들어있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 주시는

가를 훌륭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힐라멘이 소위 2,000명의 아들에 편하여, 그의 지도자인 모르나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암몬인의 아들들이 이를 청소년은(개심한 레이맨인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나, 이 청년들은 서약을 할 만큼 철이 들지 않아 그 서약에 구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니파이인들을 도와 레이맨인의 공격에 대항하여 싸우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니파이인의 군대가 막강한 레이맨인의 군대에 위협을 받자, 힐라멘은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어찌 하겠느냐? 저들을 마주 대해 싸우려 하느냐?

이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보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지 않으시리니 우리를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아들들은 싸워 본 경험이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목숨보다는 부모들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참으로 저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운자였더라.

“저들이 모친에게서 들어 배운 말을…… 되풀이 하며 말하기를 모친들께서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셨더라.

“이에 우리 니파이 백성들은……”하고 힐라멘은 모르나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계속했습니다. “…레이맨인들을 포위하고 쳐 죽이니, 마침내 무기를 내어 던지고 저들의 몸까지 던져 포로가 되니라.

“저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하고 나서, 보라나와 함께 싸운 젊은 용사들이 얼마나 맞아 죽었을까를 염려하면서 인원을 헤아려 보니, 보라, 단 한 사람도 맞아 땅에 쓰러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충천하였으니, 참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힘을 입은 듯 싸웠으며, 이렇게 기적적인 힘으로 싸운 사

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못하였노라.”(엘마서 56:44, 46-48, 54-56)

후에 다시 전투를 한 다음에, 힐라맨은 계속해서 이같이 썼습니다.

“나의…소부대만이…레이맨인들 앞에 굳게 지켜…모든 명령에 복종하며 분명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으니, 참으로 매사가 저들의 신앙대로 이루어졌느니라. ...

“나의 이천 육십 명 중에는 쿠렐로 인하 여 기진한 자가 이백 명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으매 우리는 크게 경탄하였으며 우리 적들도 크게 놀랐느니라.

“우리 측에는 전사자가 천여 명이나 있었음에도 나의 이천 육십의 아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 남은 사실은 모든 군사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이러한 일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었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어 의심하지 않는 자들을 큰 권세로 보호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배운 대로 굳건히 믿는 신앙을 가진 때문이었더라.

“이가 바로 내가 이야기한 자들의 신앙이었으나, 저들은 어리며 저들의 정신은 굳세며 계속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느니라.”(엘마서 57:19, 21, 25-27)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보상을 다른 각도에서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는 당시 목요일에 열린 금식 모임에서(초기에는 목요일에 금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감독님이 현금을 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랜트 대관장의 호주머니에는 은행에 예금해야겠다고 생각했던 50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의 호소에 큰 감명을 받아 50불을 모두 감독에게 냈습니다. 감독님은 그 중에서 5불을 떼고 나머지 45불은 도로 전네 주면서, 그의 둑으로는 5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랜트 대관장은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울리 감독님 무슨 권리로 내가 주님께 빚을 지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오

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네 배로 보상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모친은 홀로 계신데, 200불을 필요로 하신답니다.”

“저런,” 감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머지 45불도 받으면 자네에게 곧 200불이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가?

“물론입니다.”하고 그랜트 대관장은 대답했습니다.

감독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을 의지함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머지 45불도 받았습니다.

그랜트 대관장은 일터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 곧 218불 50센트를 만들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몇 년 뒤에 그는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런 일은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할 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열고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값진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물질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축복해주신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임프로브먼트 이라, 42:457)

지난 6월의 선교부장 회의에서 토마스 에스 폰슨 장로는 랜德尔 엘스워드라는 선교사의 주님에 대한 큰 신망과 믿음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는 파테말라의 대지진으로 매몰되었다가, 아마 1시간은 그렇게 짓눌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자신이 허리 아랫 부분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신장 기능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조금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릴란드로 공수되어…병원에서 텔레비전 보도원의 접견을 받았습니다. 그 보도원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당신이 다시는 걸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스워드 장로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파테말라에서 선교사로 일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니, 파테말라로 가서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

"그는 의사들이 제시한[필요 조건]을 두 번씩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신권의 축복을 받았으며,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나갔습니다. 의사들과 전문가들도 놀랐습니다. 그는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의사들은 그에게 '교회에서 허락하면 선교 지역으로 돌아가도 되겠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파테말라로 보냈습니다. 그는 그가 부름 받은 나라, 뭄시도 사랑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이곳 저곳을 다니며, 복음 전파로 바쁜 일파를 보냈습니다. 그의 선교부장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스워드 장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왜 지팡이를 버리고 걷지 않소?' 그러자 엘스워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부장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어 주신다면 지팡이를 가져가십시오.' 그는 지팡이를 내려 놓고는 다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부장 훈련 세미나, 1977년 6월, 태이프 수록, 선교사과)

형제님, 특히 젊은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우리도 아직 젊은 동안 배우고 실천하여, 이러한 경험이 간증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의로운 음성에 순종함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 특수한 그룹의 교사들이 있는 보통파는 다른 형태의 교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실의 학생은 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범죄자 수용소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25년 이상 또는 평생 동안 복역하는 교도소 수형자로부터 교육을 받기 위해 온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청소년 인식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모임에 최근 참석한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팔에 문신을 새겨 넣은 열 네 살 가랑되는 소년을 포함해서 20명의 청소년이 있었는데, 모두 좀도둑질에서부터 폭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법적인 면에서 오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버스로 도착하여 의기양양하게 으쓱거리며 유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시간 후에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는 거의

눈물을 머금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선생님”들이 그들에게 교도소 생활에 대하여 직접 그 내용을 들려 주자 태도가 변화되었읍니다. 거친 언사와 여러 번의 폭력의 위협(한번도 시행되지는 않았지만)으로, 교실의 반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관심한 젊은이에서 벗어난 듯 귀를 모으는 청중으로 변했읍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준 “교사”의 이야기를 몇 마디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마흔 다섯 살인데, 다시는 바깥 세상 구경을 못하게 될거요.”하고 기절 살인범은 말했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력을 다해서 이곳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를 수감시키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군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헬리우드 교도소 실정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매일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뜻나기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어느 선교받은 유괴범은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16년 동안 여기서 살아왔는데, 여러분은 한두 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오. 여러분이 앞으로도 범죄자가 될 생각이라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솔트레이크 트리지, 1972년 7월 19일, 1~2페이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간에 항상 우리에게는 행동 방법을 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단지 다른 점은 누가 우리에게 말해 주며,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에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올바른 음성과 올바른 원리에 순종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며 신권을 소유하고 있어, 행복한 생활을 위한 예비 조

건을 이미 갖추었을 터이니, 여러분의 특별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있으며,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며, 구원과 승영을 누리려면, 다시 말해서 주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입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행하는 권한인 신권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 외에도, 인간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전설하는 일을 돋는 의로운 과업에 매진해 있는 신권 소유자의 위대한 형제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우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간 사회에는 지켜야 할 필수 요건과 따라야 할 어떤 규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약개조 제13조)

인간이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일은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고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어떤 행동 규범에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얻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여러분이 친구로 사귀는 소녀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의 자녀의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소녀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깊이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계명을 지켜 그들에게 합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기혼 남성은 아내와 자녀들을 깊이 생각해 주고 친절히 대하여, 절대로 신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말일 정도 가족 중에서도 아내와 자녀를 학대하는 일이 크게 성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됨은 놀라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어떤 사람은 가족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물론 사회내에서 자녀를 학대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방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었읍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내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이신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선택된 직업을 통해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여 생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은 실로 우리에게 만족을 얻게 합니다.

젊은이들이 나에게 와서 일생의 직업 또는 일을 선택하는 데 충고를 구할 때면, 나는 그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다음, 최선을 다해 행하고, 정직하고, 명예롭고 의롭게 일하며,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일해나가기를 언제나 그들에게 충고해 줍니다.

자유 기업체에서 성공을 거둔 한 기업 경영인은 젊은 사업가들에게 이같이 충고해 주었습니다.

“[근면하게] 일하십시오. 적재적소에 계십시오. 항상 결손하십시오. 남보다 뛰어나겠다는 내적인 욕구와 겨루어 보려는 소망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상식을 기르십시오.” 이러한 사업 지침에 따르게 되면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부나 사업체나 무역 단체나 기타 근로 부문에서 부정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빈번하게 보고들게 됩니다. 어느 경우에나, 그런 곳에는 도덕 규범의 위반이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있읍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범법자가 많은 돈을 받고 순회 강연을 다니는가 하면 영화 배우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의 뉴스에는 자신이 범하지도 않은 강도 혐의로 선고를 받고 복역한 후 감옥에서 풀려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들려 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알리바이를 재판관에게 대 주었는데, 그는 260마일쯤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서 절도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폭언 행위도 청소년 범죄에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개의 구호를 내세워 되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 열 시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오늘 밤 여러분의 부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보모 역할을 하고 흔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텔레비전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 시대가 겪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15세 된 어떤 소년이 이웃집의 노인을 무참하게 살인하여 기소되었는데, 그의 변호사는 그가 “무의식적인 텔레비전 도취”에 영향을 받아 범행한 정신착란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예비 심문은 “과도하게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텔레비전]에 도취하게 되면,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고 간단히 진술되었습니다. “그 상태는 일종의 정신 질환으로… 그 소년은 자신의 행위의 범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법률에 따르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솔트레이크 트리뷴, 1977년 8월 18일, A4페이지)

자녀들은 순종을 배워야 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함을 자녀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나 자녀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는 일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많은 조사 결과를 보고 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녀는 생활하는 데서 어느 정도의 지시와 제지를 받기를 원하며 그들의 생활을 지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자연 법칙과 땅의 법칙은 인간의 위안과 즐거움과 안전과 복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유익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행복하게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위에 관한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칙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기쁨과 복리를 가져 오든가 아니면 해를 끼치고 슬픔을 가져 오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때때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특히 규칙이나 규범에 흔히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내게 와서 자기들은 “이렇게 하라” 또는 “저렇게 하라”는 말을 신물이 날 정도로 듣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대로 행할 자유가 있으나, 우리는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르며, 그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대답해 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10)

십계명의 하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 위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최근에 내가 들은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친구들과 같이 야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찰리, 찰리!”하고 부르는 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들려 왔습니다. 그는 곧 배트를 내려 놓고, 윗옷을 집어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가면 어떻하니. 게임을 끝내야지!” 하고 다른 선수들이 외쳤습니다.

“난 지금 가야 돼. 어머니가 부르시면 곧 오겠다고 했거든.”하고 찰리가 대답했습니다.

“못 들은 척 하면 되잖아” 소년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난 들었는걸”하고 찰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네가 들었는지 모르시잖아.”

“난 알고 있는 걸. 나는 가야 돼.”

그러자 그 중 한 아이가 드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게 내버려 두자. 그는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저 애는 자기 엄마 치마 꼬리에 매달려 있는 아이같이 엄마가 부르면 곧 달려 간다니까.”

찰리는 뛰어가다가 멈추어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머니와 한 말을 지키는 것이 어린 아이같은 것은 아니야. 그것은 어른다운 일이야. 어머니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소년은 누구와 한 말도 지킬 수 없어.”

그 후 찰리는 유능한 기업인, 대기업체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측근자들은 언제나 “그의 말은 곧 계약서와 같다.”라고 말했으며, 한번은 기자 회견에서 어떻게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소년 시절부터, 아무리 큰 유혹을 받아도 내가 한 말을 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그 후에도 이런 습관은 이제까지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청소년을 위한 도덕 담화집의 “참되고 성실한 사람”에서 인용, 솔트레이크시티, 큐비나일 인스트럭터, 1891년, 122페이지)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약을 지키고 우리 부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겠다고 서약했으며, 하나님은 항상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를 부

르십니다. 그가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면, 배트나 골프채나 낚시대나 무엇이든지 나 놔두고 굽히 그가 명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할 때, 성공과 행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리차드 지스 코트 장로는 1950년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기계 공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는데 곧 우루파이로 31개월간의 선교 사업을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와 친구들은 그렇게 되면 나의 직업 분야에 박대한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통고하며, 내가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교 사업을 마치자마자 곧 새로 창설된 해군 핵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절대 기밀 사항이었으며, 테네시주, 오크리지에서 창설 과학자들에 의하여 초기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내가 지휘자로서 파견된 어느 모임에서, 나는 나에게 선교사로 나가지 말라고 충고하셨던 교수들 중의 한 분이 나보다 훨씬 낫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나를 참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험일 게 해 주었습니다.”(엔사인, 1977년 5월호, 102-3페이지)

우리가 완전히 정직하거나 믿을 만하지 못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정한 주단도 불사하지 않는 사람이 소위 “정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철학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그들의 이름이 비판적인 대중 앞에 넉혹하게 들추어져 정의로 이끌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날이 올 것이며, 아무 죄없는 그 가족은 그들이 법과 질서와 전전한 도덕 행위를 거슬리는 것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울 교훈이 많으며, 생활에서 이러한 교훈을 적용한다면 많은 고통과 근심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떤 일에서나 그것이 영적이든 세속적인 일이든 우리를 인도해 줄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의 목적을 전부시키려 맹세했으며, 우리들이 절을 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거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사망 외에도, 미역과 자존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영생까지도 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황금율에 따라 생활할 줄 알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행위를 다스려 나간다면, 우리는 자연히 다른 모든 계명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거나, 죽이거나, 거짓증거하거나, 간음하거나,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에 경전을 표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한 것인만큼, 유혹에 너무 쉽게 이끌리고, 교활한 악마에게 만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법자들에게 영화로운 회개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리라.”(교성 58:43)

그는 또한 범법하는 모든 인간을 용서해야 한다고 권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회개할 필요가 있으며, 회개한 죄인에게 사랑과 우정의 손길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자,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세상 사람의 모범이 되

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
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백성이나 어리석은 처
녀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들은 언제 홍수가 닥칠지, 언제 신랑이 올
지 알지 못하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과 같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이니라.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마 24:42, 44)

우리 각자가 항상 준비하고 구세주를 맞
이하고 그의 영화롭고 승리에 가득 찬 과업
을 도웁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834년 6월 22일에 예언자 요셉에게 계시로
들려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
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요
구한 일 순종하기를 아직도 배우지 아니하
였고,

“나의 백성은 순종을 배우기까지 필요하
면 저들이 겪는 고난으로 징계받아야만 하
느니라.”(교성 105:3, 6)

우리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
이 아닙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해심으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무

한하신 지혜로 인간의 유익과 축복을 위하
여 마련된 것을 믿는 신앙에 의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을 떠
난 지 얼마 안되어 이 교훈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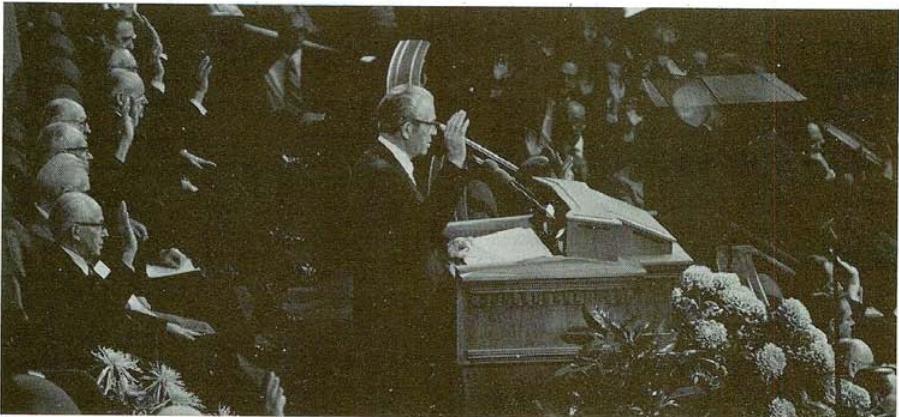
“주께서 저들에게 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떼의 첫새끼를 주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 명하시니, 아담은 그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더라.

“여러 날이 지난 뒤, 주의 한 천사가 아
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바치느뇨? 아담이 저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모세서 5:5-6)

우리도 그것이 계명을 지키기에 충분한 이유
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담과 같이,
“주께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일에 우리를 인도해 주는 참되고 영
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예언자 스펜서 더블
류 킴볼 대관장이 계십니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할 때 축복을 받
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
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역원지지를 묻는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합니다.

1. 교회의 개종자들과 우정을 나누도록 힘써 노력하십시오. 침례받은 개종자들에게 즉사로 가정 복음 교사를 지명하여 극히 개인적이고 관심 있는 태도로 그들과 우정을 나누게 합니다. 이를 가정 복음 교사는 작성인 개종자에게 적합한 활동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도록 신권 역원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교회의 회원들과 함께 사교적인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받아 의로움을 느끼지 않고 활동적인 말일 성도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야 합니다.

2. 아론 신권 청남 청녀 프로그램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 청소년의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표현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보람있고 흥미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청소년을 구하는 것은 곧 세대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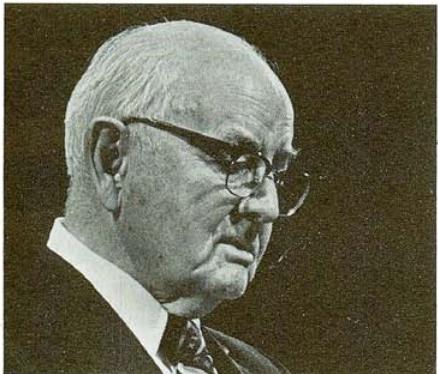
3. 와드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역원에게 큰 책임감을 불어넣어 주어 교회의 여성들을 상호부조회에 등록시키고 충분히 활동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 모임을 활용하여 더욱 많은 여성들이 이 위대한 조직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감독님들이 이에 관하여 상호부조회 회장님들과 함께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가정 복음 교사에게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더욱 큰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웃과 친지와 접촉하여, 아주한 사람들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그들이 새로운 거주지에 도착하는 대로 곧 방문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5. 수련 장로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더 활동적으로 일하십시오. 현체제의 프로그램에서는 장로 정원회가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하에서는 대체사와 칠십인까지도 이러한 사람을 도움도록 부름을 받을 수

용서의 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대관장님께서는 우리에게 (1) 청소년과 성인들이 비활동적이 되지 않도록 막고, (2)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용서의 법칙을 적용하기를 촉고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두 분의 홀륭하신 보좌님들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분들은 위대한 분들이며 이 위대한 교회의 많은 짐을 나누어 지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모임을 끝내기 전에 몇 마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청소년이 비활동적인 성인이 되지 않도록 막고, 많은 수의 성인들을 재활동화시키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사항을 제시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 정원회는, 신권 집행 위원회를 통해서, 특히 대제사 가정 복음 교사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에게 대제사를 가정 복음 교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회원들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칠십인을 그려한 가정의 가정 복음 교사로 임명하여 가정 복음 교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비회원에게 선교사의 역할까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월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활을 축복하게 되며, 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사업을 강화하게 됩니다.

6. 여터 해 동안 우리는 수련 장로와 그들의 부인, 그리고 비활동적인 장로들이 함께 만나는 모임을 갖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영감적이고 유능한 교사의 지도하에, 그들은 주님의 집에 가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겠다는 목적으로 복음에 대한 지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임을 위한 공과 과정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신권 집행 위원회의 지시하에 준비되었으며, 우리는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들께서 이 중요한 과업에서 그것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수많은 청남 청녀가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편히 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에 관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책임을 생각해 보시고 이 구원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나는 남편과 사별한 어느 젊은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몹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고, 남은 전재산이란 보험금 2000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험 회사는 가장의 사망이 확인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젊은 미망인은 진급

한 때에 대비해서 그 돈을 저축해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그 미망인이 은행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안 한 친척이 고리로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줄랐습니다.

몇 년이 지났으나 그 미망인은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못하였으며, 채무자가 자기를 피하여 돈 이야기만 하면 허울좋게 구실을 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미망인에게는 돈이 필요했지만 찾을 길이 막연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라고 그 미망인은 증오에 찬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전의 사람이 부양 할 가족이 있는 젊은 미망인을 속였다는 것을 생각만이라도 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라고 그 미망인은 되풀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부친의 살인자를 용서해 주었다는 캠프튼 감독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감명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음속에 있던 원한을 깨끗이 씻어 버리겠습니다. 돈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그 사람을 맡기겠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그녀는 다시 나를 찾아와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맛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빌려 준 돈은 한푼도 받지 못하였으나 새로운 평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용서가 낳는 기적, 한국 번역 출판부, 265—266페이지 참조)

나는 능욕을 당한 어린 딸을 가진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놈을 평생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 여인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되풀이 말했습니다. 그 행위야말로 악하고 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상을 듣

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나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행위요, 다시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증오심을 품고 몸을 떨었읍니다. (용서가 넣은 기적, 266페이지 참조)

이 여인과 자신의 예쁜 얼굴을 망쳐 놓은 남자를 용서해 줄 만큼 자제심을 발휘한 말 일성도 소녀를 비고해 봅시다. 연합 통신 기자인 닐 코베트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센프란시스코 신문에 실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범한 사람다면 누구나 그렇듯이 그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는 동정해야지요! 라고 센프란시스코에서 꾀한으로부터 칼로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삼주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에이프릴 아론은 말했다. 22세의 성실한 물론으로……비서인 그녀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소녀이나 오른쪽 눈을 잃었으며…… 상황회 무용 파티에 가던 중 센프란시스코 골든 케이트 공원 근처에서 꾀한을 만났으며 그가 휘두르는 칼에 눈을 잃은 것이다. 그녀는 또한 꾀한과 다투며 피하다가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칼로 심한 상처를 입었으며, 겨우 꾀한을 피해서 달아나다 물론 교회 가까이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한 번씩 반쯤 도망갔을 때 꾀한한테 잡히고 말았어요. 하이힐을 신었기 때문에 빨리 달아날 수가 없었읍니다”고 에이프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리에 입은 상처는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의사들조차 절단해야 할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날카로운 흉기조차도 에이프릴의 명랑성과 사랑을 해칠 수는 없었다. ……저는 누군가가 그를 도울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해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는 이유를 아는 분이 계시겠지요? 그를 찾아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또 저지를 거예요.

“……에이프릴 아론은 자신이 당한 비극을 대처해가는 용기와 선한 마음으로 센프

란시스코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아 왔다.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에 있는 그녀의 병실은 각지에서 온 문병의 꽃으로 가득 찼으며, 그녀를 시중들던 간호부는 그녀만큼 축복을 기원하는 카드나 인사말을 많이 받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용서가 넣는 기적, 266페이지에서 인용)

다음 기사는 로스엔젤리스 신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흔히 철저한 복수심과 악한 감정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감정을 단호히 씻어 버린 사람의 용기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마빈 더블류 메릴의 유괴 살인범으로 세 사람이 체포되었다. 마빈은 나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났으며, 나는 어려서부터 개인적으로 그를 잘 알고 있다. ……흑인 우체부 직원인 앤젤로 비 로린스가 와그너 스테이션의 우체부를 대표해서 그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낭독하였다. 메릴 장로도 20년 이상을 우체국에서 근무하였다. 예배당과 각 방에는 제복을 입은 체신 계통의 조객들이 줄을 이었다. ……로린스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의 행위에 동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수치심으로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한 이처럼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에 대해 범법자와 똑같은 국민인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나의 죄 많은 악한 마음으로도 그러한 행위에 응당 잔혹한 형벌을 가하고 싶으나, 주님의 조용하고 작은 음성은 ‘보복은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의 힘을 굳게 믿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몽고 장로인 메릴은 구세주께서 갈보리에서 ‘아버지시며,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간구했을 것입니다.”(용서가 넣는 기적, 267페이지에서 인용)

나는 어느 이웃 사람이 “나는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더러워요. 그들은 세상에서 나쁜 일을 많이 했

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읍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도 선량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한 듯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한 것에 대하여 책임질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악하고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같이 동포의 악한 행위로 심판받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범한 악한 행위로 슬픔을 당했습니다.

다른 이웃 사람도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도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증오해요. 그들은 잔혹하고, 사악하고, 무자비했거든요.”

나는 이 이웃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해요.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잔혹하고 사악한 것 뿐이었으요. 그들 중에는 참으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답니다.”

나는 불붙는 전쟁터에 참가한 두 명의 군인을 알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잠시 동안의 휴전을 틈타 적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곳에 물론 장로가 계십니까?”라고 물어 보았답니다.

저쪽에서 “예, 내가 물론이요.”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 참호로 가서 부상당한 친구를 축복하는 것을 도와 주실 수 없으십니까.” 조금 전만 해도 서로 적군이었던 이들 두 사람은 함께 ‘비무장지대’를 건넜습니다. 한 사람이 기름을 붓고, 다른 사람은 인봉하여 부상당한 친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커다란 평안이 그들의 영육에 것들었읍니다. 다시 그 사람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자기 진지로 돌아갔으나, 그 역시 새로운 평안의 감정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개인 한 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또다

른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두 명의 교회 지도자가 서로 반목하게 되어 누구도 양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 종일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후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이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산기슭으로 갔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우리는 두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화해시키려 온갖 수단을 강구해 보았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여덟 시, 아홉 시, 열 시, 열한 시, 열두 시, 새벽 한 시, 두 시…… 밤은 빨리도 지나갔으며, 나는 정말 지쳐버렸습니다. 교리와 성약을 다시 펴 들었읍니다. 우연히 161 페이지가 펼쳐져 나는 구절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거의 숨이 막히는 듯했으며, 우리가 읽은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는 죄를 범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로서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나 주가 그 죄를 용서하여 주나니,

“옛날에 있던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하여 기회를 노리며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심한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

“너희는 마음속으로 이같이 말해야 하나니, 나와 그대 사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그대 행위에 따라 그대에게 갚으시게 하자하라.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여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를 교회 앞에 데리고 와서 계명으로나 계시로써 경전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저를 다스릴지니라.”(교리와 성약 64

나는 두 사람의 적대자들이 서로 용서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를 읽어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 7-13)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듯이, 주님께서는 다음의 주제로 돌아가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 6: 14-15)

물론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쉬운 걸, 단순한 복음, 저속한 표준이나 규범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가는 큰 것이나 얻는 것이 또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다른 쪽 뺨마저 갖다 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언의 항의도 없이 모욕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으나 저주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에 대해 그분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니잠 27: 27) 고 대답을 알려 주셨습니다.

윌리암 제닝스 브라이안은 ‘영감의 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개발하기에 가장 어려운 미덕은 용서하는 마음이다. 인간은 복수심을 갖고 타고난 것과 같다. 적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것도 인간이다. 보복한 일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인간은 천구나 적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보다는 그들을 보복한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다.” (인디펜던스 시온 출판사, 1925페이지)

용서란 우리가 피해받은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와전히 씻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잊는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권고입니다. 중국의 철인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를 입었거나 물건을 잃었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웃이나 친척 혹은 배우자로부터 받는 해란 대체로 본다면 처음에는 지극히 사소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차비로우신 만큼 우리도 차비로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니잠 12: 7)란 말씀은 또 다른 황금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짐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 12: 31) 주님께서 그렇게 차비롭고 친절하시니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나온 미망인이나 캠프톤 감독, 에이프릴 아론, 그외에도 가증한 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고 스메반과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훌륭한 모범을 보인 것으로 보아서도 우리는 용서를 통해 완전함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질투, 탐욕, 원한의 불모화된 사막을 지나면 아름다운 낙원의 계곡에 이른다. 우리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온통 혼란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을 항상 보고 듣는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아직도 아름답다. 중심을 벗어난 것은 인간이다. 태양은 아직도 낮을 밝히며 만물에 생명을 주고 있다. 달도 밤을 밝혀 주며 대양은 세상에 먹을 것과 교통을 제공해 주며 강은 땅을 적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물을 대 준다. 시간이 흘러도 산의 웅대함을 바꾸지는 못한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웃으며 떠어 논다.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 낸 것들이다.

“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자기를 정복할 수 있다. 인간은 극복할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계속 이 세상에서 화평을 얻을 수 있고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용서가 넣는 기적, 271페이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

스도의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야 합니다. 곧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스스로를 포함시키고, 모든 인류, 온 나라나 지방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증오, 원한, 적대 감정 등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맡기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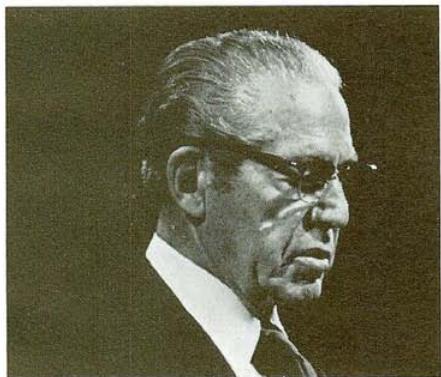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를 때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1977년 10월 2일, 일요일 오전 모임

복음의 빛

엔 웰顿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실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들리게 하라”

성경의 첫마디는 다음 같은 말로서 시작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창세기 1: 1-4)

우리는 이 성구에서 빛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읍니다.

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빛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겠읍니다. 빛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우리가흔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말의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과학적인 면과 철학적인 면에서 빛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간단히 하기 위하여 웨스터 사전에 나타나 있는 관념상의 정의를 인용한다면 빛이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 또는 영적인 조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과학자들은 빛이라는 물질의 본질에 대하여 서로 이해를 달리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힘(에너지)은 빛(주로 태양 빛)에서 나온다는 설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현상적인 빛이 없이는 우리 주변의 물건을 볼 수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으며, 영적인 빛이 없이는 지식이나 이해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완전한 암흑 속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빛을 통하여 정신을 밝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흑이란 빛이 없는 상태, 빛을 받을 수도 반사할 수도 없는 상태, 이해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악한 욕망을 보이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암흑이란 빛과 진리가 결여되어 예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인용하여 이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밝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예수께서 또 일터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 12)

: 12)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려 날까 합지요

“진리를 죽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이라 하시니라”(요한복음 3 : 18-21)

이사야는 이 땅과 주민에게 미칠 배도와 암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읍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쳤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이사야 24 : 5-6)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깁깝함이 만인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이사야 60 : 2)

이 배도의 기간은 이 지상에서 복음의 빛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암흑기라 불리우게 되었읍니다.

보다 최근에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면 빛이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리니, 이 빛은 나의 충만한 복음이 되리라”(교성 45 : 28)

우리가 성실하게 견디면 빛과 진리를 받게 된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니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 : 24)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88 : 67)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누가 이같은 축복을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만물보다 낫아지신 것같이 높이 올라가셨으니, 이로써 만물을 아시사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니, 곧 진리의 빛이 되셨느니라.

“이 진리는 빛을 말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빛이라. 저는 또한 태양안에 계시나니, 태양의 빛이시요, 그 태양을 만드신 힘이시니라.

“저는 또한…달의 빛이시요…

“또 별 빛이시니…

“또 땅이시요, 그 땅의 힘이시니 곧 너희가 서 있는 땅이시니라.

“빛을 발하여 너희에게 광명을 주는 빛은 너희 눈을 뜨게 하시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는 그 빛이시니라.

“그 빛은 하나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느니라.”

“그 빛은 만물 안에 있어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또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이니, 곧 보좌에 앉으사 영원한 품 안에 계시며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힘이니라.”(교리와 성약 88 : 6-13)

소위 말하는 암흑기의 배도에 관하여는 참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이 대배도에 관하여 거듭 예언하였으며, 이 땅과 주민에게 임할 암흑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인용된 경전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만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복음이 지상에서 없어져 버릴 때 인간은 되보하게 된다는 사실

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신권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이래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진리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다음 경전에서 밝혀주고 있는 바와 같이,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인 열고니, 무엇이든지 진리이면 곧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이면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라.”(교리와 성약 84 : 45)

구세주께서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을 받으실 때 이 세상에는 암흑이 덮쳤습니다.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때가 제 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회장이 한 가운데가 젖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누가 복음 23 : 44-46)

그와 같은 순간에 미대륙의 주민들은 그들의 예언자들이 주님의 사망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정되었던 시간에 표적과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없었던 폭풍과 천둥과 번개가 일어났으며, 크고 무서운 파괴는 온 지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후에 사흘 동안 절은 암흑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암흑으로 인하여 빛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지라, 촛불이나 햇불이나 잘 마른 나무에 불을 질려도 전혀 빛을 내지 못하였고,

“지면에 덮친 암흑의 안개가 심히 짙은지라, 불빛이나 빛이나 어스름한 빛이나 달이나 별들조차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너파이 삽서 8 : 21-22)

이 암흑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대륙의 “다른 양”을 방문하시리라는 것에 대하여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

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복음 10 : 16)

우리는 복음의 회복을 준비하는 요세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과 관련하여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는 더욱 분명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속하여야 할지를 알기 위하여 열심히 구할 때 요셉은 다음과 같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 : 5)

그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의 주의를 빛과 어두움에 대해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내가 이전에 미리 계획하여 둔 곳에 은밀히 나아가…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속의 소망을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나는 어떤 힘에 의하여 완전히 사로잡혔으며 놀라운 힘에 암도되어 저항력을 잃고 혀가 굳어버려서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칼칼한 어두움이 나를 둘러쌌으며, 한동안은 내가 이대로 곧 죽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간구하면서도 거의 실망하여 상상의 세계에서의 파멸이 아니라 나를 결박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실체에 의하여 나의 몸을 파멸 속에 내던지려는 순간, 바로 이 매우 놀라운 순간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이 빛 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깨달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 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

옵니다. (요셉 스미스 2서 15—17절)

요셉은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는 이 지시에 따랐으며, 다시 지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때 까지 (약 4년 후) “평범하게” 살아갔읍니다. 다시 그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사함받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장과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지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였읍니다. 이것은 전에 얻은 것과 같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지시를 얻을 수 있다고 완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우러러 간구하고 있을 때 한 줄기 광채가 내 방에 것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 빛이 점점 퍼져 마침내 내 방은 한 낮의 햇빛보다 더 밝아지더니 흘연히 누가 내 침대맡에 나타나는 것이었읍니다. 그때 그분의 발이 마루 바닥에 닿지 않는 것으로 나는 그분이 공중에 서 계심을 알았읍니다.

“…그분의 온 몸이 형용할 수조차 없이 희었으며 그분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고 방이 그토록 밝은데도 그분의 주변은 더욱 밝았읍니다. 내가 처음엔 그분을 보고 두려워 하였으나 곧 두려움은 내게서 물려갔읍니다.” (요셉 스미스 2서 27, 29—30, 32절)

이 분은 천사 모로나이였읍니다. 그는 물론경이라고 번역될 금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읍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회복을 공표해 주었으며 (또한 구약과 신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사건이었읍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지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인 하나님의 신권과 영향력을 통하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빛과 진리를 선포해 주었읍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일생 동안 지닐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과 축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알고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복음의 구원 교리로써 우리는 우리 생의 빛을 사용하여 세상에서 암흑을 몰아내고, 인류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인하신 인생과 구원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한 사람, 곧 암흑의 왕자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상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과 같이 그 예언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의 권고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많은 빛과 진리를 얻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빛을 따르고 어두움을 멀리 하도록 가르쳐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읍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면에서도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악은 어두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경고하셨읍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인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려 있으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니라.” (교리와 성 약 68 : 25, 28)

우리와 아들과 딸들은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자녀에게 행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며, 성신의 위로의 영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암흑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빛과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최근 캐롤린 피어슨과 렉스 더 아제베도씨가 작곡 작사한 뮤지컬 중에는 매우 큰 의

미를 전해 주는 짧은 노래가 있습니다. 제
목은 “작은 빛을 보라”입니다. 가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길은 어둡고 넘어질 것만 같을 때,
그때에 할 일은
밝고 작은, 옳고 작은 내면의 빛을 바라
보라.

그 빛은 매일매일 더 밝아지리라.
그 빛은 그대가 가야 할 길을 밝혀 줄 것
이며
결코 희미해지지 않으리라.
하늘 위의 아버지를 늘 맘에 모시라.

그가 그 빛을 불이시리라.

우리에게는 충만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
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빛에 따라 생활하고
그것을 세상에 가르치라는 권고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
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
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
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 : 16)

우리 모두가 이같이 생활하여 의로운 행
실과 주님의 빛으로써 어둡고 격동하는 세
계에 밝은 날의 둑이 트게 할 수 있기를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영의 근본적인 요소 즉 기도, 예배, 협
신, 거룩한 것에 대한 존중은 일상 생활에
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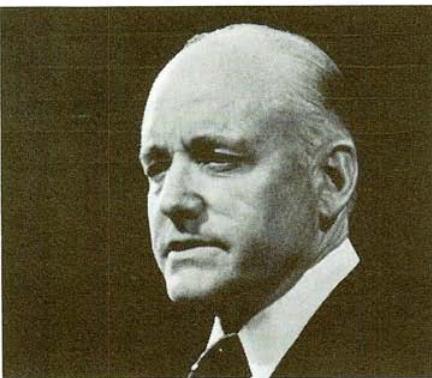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리 와드 비처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크림을 달라고 기
도하고는 씨끼기 우유를 먹고 사는 것은 좋
은 일이 아니다.”(플리머스 연단으로부터의
격언, 윌리엄 드라일 스테일 편, 뉴욕 : 애
풀튼, 192페이지) 이것은 1세기 전의 말이
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씨끼기 우유를 달라고 기도하나 아무 것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니다.

현대는 마치 거룩한 것에 대한 협신이나
경건이 비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
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
의적인 “현대”인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
습니다.

위험한 순간, 막중한 책임, 큰 근심, 비
통한 슬픔 등 우리를 만족과 안정된 일상 생
활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인
간으로 하여금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합
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기도가 단지 위급한 때에만 부르짖는 데
발적인 익침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완전히 이기적인 기도이며, 하나님을 우리
가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리
공이나 봉사 기구로서 생각하는 것에 지나
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높으신 분
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모든 다른 도움이
끊기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만 가장 높으신 분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생활의 요소 중에 기적적인 성공과
인간 영혼에 대한 축량할 수 없는 가치를
기록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
버지와의 경건하고 겸손하고 헌신적인 대화
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하나님여 나의 부르짖는 소
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
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1-3)

아마도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고통 중
에서 뿐만 아니라 기쁨 중에서, 궁핍한 중
에서 뿐만 아니라 풍족한 중에서도 바라다
보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줄곧 하나님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는 끊임
없이 기도하고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구하였습니다. 더욱기 주님은 그가
와서 성취해야 할 일이 자신의 일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세계 역사
상 가장 자신을 낮추어 가장 높으신 이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주 기도로써 경건과 감사를 표
하였으며 산상수훈에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
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
6:9)

“주기도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시오며’처럼 쉽게 잊혀지고 간파되어 버리
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문의 말은……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영광스러운 왕국
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사이의 계곡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마치 팔호
속에 들어 있는 말과 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큰 적으로부터 구해 달라고 구하기
위하여 굽히 지나쳐 버리기가 보통입니다.”
라고 어떤 작가는 말하였습니다. (찰스 에
드워드 제퍼슨, 예수의 성품, 솔트레이크시
티 : 팔리아멘트 퍼블리셔, 1968년, 313-14
페이지)

예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오며”라는 말을 첫머리에 둘 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경건하고 겸손하
며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태도가 갖추어
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기도의 준
비가 갖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
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
과 그분이 계시는 곳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생활을 하고, 그와 같이 말하고 행
동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
록 권고하셨습니다.

구세주의 아버지에 대한 경건성과 그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온 세상을 희망차고 거
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서 가르치시고 경배드렸던 성전도 아버지께
대한 헌신과 존경을 이룩하는 방법으로 지
어졌습니다.

이 성전의 건축 양식은 고요하나 끊임없
는 경건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히브
리인은 성전의 바깥 틀로 들어 갈 수 있는

특권을 지녔지만 성전의 안뜰 곧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지성소는 단 한 사람만이 1년에 특별한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많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위대한 원리가 가르쳐졌습니다.

도덕이 타락되어가는 과정에서 경건은 사라져가는 첫번째 덕의 하나이며, 우리 시대에 이 경건성의 상실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예수의 많은 동향인의 마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더욱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돌보지 않는 사람이 왜 그의 성전을 돌보아야 했겠습니까? 그들은 성전의 뜰을 시장으로 타락시켰고, 신앙 깊은 사람들의 기도와 친송 소리를 탐욕스러운 돈바꾸는 사람들의 홍정 소리와 양의 우는 소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실 때처럼 격렬한 감정을 노출시키신 적은 없었습니다. 즉시 예수는 노하였으며, 악한 사람들이 채 일어나는 일을 알기도 전에 돈은 성전 바닥에 흘어졌고 가축은 거리에 내쫓아졌습니다.

이 같이 격렬한 행동을 보이게 된 이유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세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경건한 자들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인간의 근심과 걱정을 위로해 주는 위로의 집이며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요 2:16) 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에 대한 그의 헌신은 그의 영혼에서 불을 밝혔으며 칼과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조차에까지 예수가 얼마나 조심스러워 하였는가는 맹세에 대한 그의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정한 양식의 기도와 경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편지를 크게 중요시하여 그것을 결코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이름으로 맹약하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구세주의 존경심이 지극하여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이나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에까지 미쳤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은 하늘로 맹세하는 버릇이 있었으나 예수께서는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그의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땅을 두고 맹세하였으나 땅은 아버지의 디딤돌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불경한 것이었습니다.

이야말로 경건한 마음 가짐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권능과 위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그의 영광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불경스럽게 취급되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격하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회에는 기도와 경건과 예배의 정신이 없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통하여 현명하고 명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통하여 치명적인 요소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와 성약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날마다 어느 때든지” 맹세를 의롭게 바치지 않습니다. (교성 59:11) 그들의 대화는 힘이 났지만 거룩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재치가 있었으나 현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실험실에서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은 제한된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위에서 부터 오는 무한한 능력을 모독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까지 경건성의 결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 마음을 정화시키는 예배의 시간

이 되어야 하는 순간에 예배당으로 불경스럽게 들어오거나 나가고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전이란 천국의 분위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다 보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세상과 그의 사업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생리학과 의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캐럴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전례없이 기도가 인간과 국가의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념의 결여는 이 세상에 멸망의 시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깊은 능력과 완전은 비참하게도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읍니다”(리더스 다이제스트, 1941년 3월호, 36페이지)

인간이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몰몬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관하여 이야기했듯이, “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모로 9:20) 상태라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 해 전에 메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격동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처럼 근심에 시달리고 있으며, 마음은 불길한 예감으로 무겁게 짓눌리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 세상에는 세번째의 세계 전쟁의 무거운 구름이 나즈막히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왜 과거의 경험으로 앞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 참된 영적인 표준을 지키는 것은 교회 회원의 임무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모든 우발적 일 사건에 대하여 준비를 보다 잘 갖추게 됩니다.”(대회 보고, 1948년 4월, 64-65페이지)

기도, 경전, 예배, 혈신, 거룩한 것에 대

한 존중—이러한 것이 우리의 영의 근본적인 요소이며 우리는 일상 생활을 통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잊고 말합니다.

말일성도의 군목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에게 경전한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보낸 서한이 있습니다. “전투 중에서 군목이 마음만 먹으면, 절대자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일단의 병사들의 신경 중심계에 점화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한 마디, 고개짓 하나, 기도 하나, 이야기 하나, 미소하나, 이 모든 것들은 광란과 불안정이 질서인 이 곳에서 이 성과 안정을 가르치는 놀라운 기적을 발휘합니다.”(해롤드 비 리, “기도”, 신학 연구원 교사 모임에서 행한 연설, 브리검 영 대학교, 프로보, 유타, 1956년 7월 6일, 19페이지)

주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행동 규범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 율법에는 오늘날의 경우에 적합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사람이 크림을 달라고 기도하고는 씨끼기 우유를 먹고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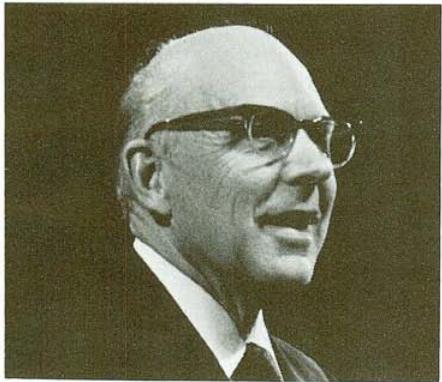
그러나 씨끼기 우유를 달라고 기도하고는 전혀 아무 것도 먹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놀기도 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的 참된 의미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경전하고, 신실하며, 예배와 혈신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구원의 봉사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교회의 선교 지역에서는 자녀를 이미 모두 키워 놓은 부부를 필요로 합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나는 남미의 몇몇 선교부에서 지역 선교사를 도와야 하는 특별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대부분의 나라에는 연간 평균 수입이 미국의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를 젊은이들이 많은 회생을 이미 해왔으며, 여유가 있는 우리에게서 여전히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기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 사항을 대략 설명했을 따름입니다.

이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선교사

를 도와준 것에 대하여 처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내가 실제로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인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형제님은 묘하게도 기금을 요청하시지는 않으시고 기금을 보낼 곳도 알려 주지 않으셨군요.” 나는 그 사실에 대해 회개해야겠습니다. 나는 사실 주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교회 본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내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들은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부인은 첫 번째 수표를 보내면서 조카의 도움을 빌어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제 작은 수입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주님은 나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 부인은 99세의 장님이었읍니다.

다섯 살 된 어린 아이의 서명이 있는 카드에는 어머니가 대신 아이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써 보내고 5센트짜리 동전 한 잎과 4페니가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는 용돈의 일부를 선교사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15세의 청소년 한 사람은 이렇게 썼읍니다.

“2달라가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교회의 모든 회원이 2달라를 보낸다면 6백만 달라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편지도 있었습니다. “여덟 아들의 아버지로서 저는 내 아들 중에 누구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는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을 동봉합니다.”

한 늙으신 부부는 그들의 신전에서의 성약을 기억하여 다음과 같이 써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녀 일곱을 모두 선교사로 보냈읍

니다. 그 당시보다 선교 사업을 하는 데 더 많이 돈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써 보냈읍니다.

“10월 대회가 있는 후에 우리 가족은 가족 회의를 열어 돈을 모으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성탄절을 위하여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돈을 모으는 것이었지요. 다섯 살과 여섯 살의 아들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깡통을 모으고, 나무를 쌓고, 낙엽을 모으고 자동차와 차고를 청소하였습니다. 두 살짜리 뼈키도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쌓는 일을 도왔고 식탁을 차리는 일을 도우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피아노를 가르쳤고 아빠는 8년 동안 저축해 오시던 돼지 저금통을 깨뜨렸습니다. 한 아들이 이빨이 빠져서 그 치료비로 25센트 썼을 뿐 고스란히 그 돈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모은 전액(81.85불)을 송금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송금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다음과 같은 짧은 편지도 있었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의 형제님의 지시에 따라서 송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여전히 도움은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 사항은 매일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지역 선교사의 수는 37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부에서처럼, 급격히 발전하는 지역에서는 또 다른 필요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만 140,000명의 개종자들이 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작은 지부들은 많은 개종자를 내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봉사의 직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능력은 있읍니다마는 교회 정책이나 행정에 경험이 없습니다. 이들 새로운 지도자들은 경험이 많은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올바르게 조직하고 올바르게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

다. 누가 이러한 원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역 대표가 가르칠타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문 일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광대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담당해야 하는 지역이 넓고 때로는 미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할 시간조차 그들에게는 없읍니다. 교회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는 성인 부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이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사실 교회에는 이러한 부부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봉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부름은 여러분의 은퇴를 연장시키고, 골프장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이동식 주택에서 여러분을 멀리해 줄 것입니다. 이 부름은 여러분에게 깊은 영성과 진실한 기도와 강한 신앙의 행사를 요구하는 목표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봉사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신권 지도자를 찾아 자신의 합당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권 지도자는 여러분이 대관장님으로부터의 부름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그들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매우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러분의 건강 진단서를 각별히 유의하여 복음 선교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가져다 주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가 장성하여 가정을 꾸민 뒤라야 합니다. 건강은 필수 조건입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싶은 마음과 물질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 사업이란 감상적인 여행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언제나 충족시켜 준다면 그것은 일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은 출생, 사망, 결혼, 기타 가족의 행

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때보다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도전적이고, 낙담되고, 실망되고,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봉사하고 있는 부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생활은 불편하지만, 최고의 즐거움, 곧 부지런히 일하고 비이기적으로 봉사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암몬은 이러한 종류의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물론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겪은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또한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의 기사요,”(엘 28:8) 여러분도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실정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의 성질은 젊은 선교사들의 그것과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점은 경험이 없는 지도자에게 경험이 많은 부부가 지도력의 원리(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를 가르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지부나 지방부를 감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회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행하는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개인 및 가족에 비 프로그램의 원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건, 동업 또는 전문직에서 전문가로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8개월입니다만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봉사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대부분의 부부의 필요 사항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다양합니다. 이 봉사 사업에는 매달 약 400 내지 500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자녀들이 부모로 하여금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부부 중에서 서로 쳐다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우리도 합당한지 알아 봅시다.” 봉사하고 싶은 사람 중에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추천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밟아야 할 예비 단계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를 보게 되거나 교회 회원을 알고 있으면 그들에게 그들의 메시지에 관하여 물으십시오. 이 봉사는 주님을 위한 봉사의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생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봉사가 구원의 지름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라,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보라, 힘을 다하여 낫질하는 자는 창고에 쌓아 두는 자니, 파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육을 구원시키느라.”(교성 4:4)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의쳐 단 한 사람이라도 네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그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16)

우리가 모두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가 살아 계시고, 그의 살아 계신 예언자, 스派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통하여 그의 사업을 지시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청녀— 참다운 수호자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청년의 생활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을 발하여야 합니다.

인생을 통하여 겪는 여러 가지 잊지 못할 경험 중에서도, 선교사가 한 구도자를 인도하여 침례를 주었을 때 그가 느끼는 기쁨과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간증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영혼을 감동시키는 느낌과 견줄 것은 없습니다.

Kim볼 대관장님께서는 모든 합당한 청년에게 선교 사업을 나갈 준비를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영적인 암흑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많은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다는 점을 교

회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나, 여전히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도시와 마을의 교회 가족은 다른 가족을 교회로 이끌어 와야 합니다. 곧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지부가 발전하여 와드가 되고 스테이크가 됩니다.

지역의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방방곡곡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이 사업의 성장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계속되어 갑니다. 교회의 선교 사업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현재 봉사하고 있는 2만 5천 명의 젊은이는 3만 5천이 될 것이고, 다시 5만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장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와드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거룩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지시하셨습니다. “……여러 국민에게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며 바다의 여러 섬에……외국으로 보내라. 모든 국민에게 찾아 가라.”(교성 133:8) 우리의 선택된 청년 중에는 방종된 생활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교회의 청녀, 특히 교회의 젊은이와 교제를 하고 있는 청녀에게 대하여 말씀드려고 합니다. 나는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마는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과 긴급성 때문에 적선적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떤 청년은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젊은 신권 소유자와 교제를 하고 데이트를 하시는 교회의 젊은 자매들은 그들의 도덕성에 대한 참다운 수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참다운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파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은 동반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존경하도록

격려해 주는 합당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물론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읍니다.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행해 주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젊은 자매 여러분은 젊은 남성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청년은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생각되는 웃음을 입습니다. 머리 모양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에 맞추어 손질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로 차를 몰게 할 수 있읍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저분한 옷차림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유행의 첨단을 걷는 의상을 입을 필요가 없읍니다. 유행이란 생산자들이 물건을 팔기 위하여 만들어 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올바름 또는 젊은이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은 상품이 팔리는 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교회의 방법을 세계가 봄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영향력은 별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빛과 같이 모든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청년에게 미치는 여러분의 영향력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표준과 의복과 태도의 표준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예비 선교사와의 접견 결과 우리는 몇몇 젊은 자매들이 극히 낙심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는 참으로 추하고 여러분에게서 기대되는 것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행동이 있읍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되어 육신이 약하도다”(마 26 : 41)

젊은 자매 여러분, 현재 합당해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젊은 형제와 교제할 때, 고상한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독이 그들을 선교사로 부르겠다는 인상을 받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속에서나 혹은 집안에서 함께 있는 젊은 형제는 주님의 사업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청년은 수없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레이트하고 있는 젊은 형제는 선교 사업을 위하여 훈련을 받고 신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감독은 이러한 젊은 형제가 합당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이 머리 위에 손이 놓여졌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신권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칠판을 베푸는 등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레이트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더 높은 신권을 받을 수 있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어 하며, 합당하다면 언젠가 그 권능과 영적인 축복의 열쇠를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훈련을 받아 선교 사업을 할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읍니다. 그가 존경하는 젊은 자매은 여러분 그가 심한 합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읍니다.

교육을 받고 성장한 젊은 청년에게는 이상이 있으며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읍니다. 몇 개월 지나면 이들은 선교사가 되어 영으로 구도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교성 42 : 14) 선교사들은 영으로 가르치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영을 얻고자 하는 소망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여야 합니다. 곧 계명대로 생활하고, 행동에서나 생각에서나 건전하여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주께서는 불결한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엘 34 : 36)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는 자로다”(시 24 : 3-4) 시편 저자는 하나님

의 율법에 따라야 할 청결한 행동, 곧 청결한 마음, 청결한 생각, 주님과 조화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나는 선교사의 부름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교사 한 사람에게 차를 물라고 부탁했읍니다. 우리는 산 위까지 차를 물고 올라갔습니다.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 시간 후에 그는 결국 그가 숨겨 왔던 문제와 죄의식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행한 행동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다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그 선교사가 그가 받은 부름의 정신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관심사는 합당성파 메이트와 사교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지시는 우리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든 교회의 회원은 이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합당한 연령의 청년은 예언자로부터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정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원은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주님의 계획의 일부를 담당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젊은 자매 여러분은 젊은 형제들을 준비시키고 예비 훈련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역할에 대한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향을 받게 될 젊은 형제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1977년 10월호 뉴이라에 실린 “모든 사람을 물론이라 여기고 대하라”는 기사에는 일

단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의무감, 흥분, 그들의 의견 등에 대하여 나눈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젊은 자매에게 제시된 질문 사항 중 하나는 “자매님의 임무는 무엇입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왠다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교회에 대하여 질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벌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로 하여금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격려해 줌으로써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그들을 격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자매로서는 여러분은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젊은 자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세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교회의 교리에 따라 여성의 임무를 존경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결하고 청결할 때 여러분과 메이트하는 젊은 형제도 청결하고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해 올 때 여러분은 “안돼요. 나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반대되는 일을 행하도록 저를 유혹하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거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온의 딸인 여러분은 올바른 모범을 보일 때 빛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메이트를 시작하는 일과 한 사람의 상대하고만 메이트하는 일을 삼가십시오. 어떠한 회생을 치루고서라도 달콤한 합정을 피하십시오. 사랑의 산책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발전시키고 서로 나누어야 할 재능

을 갖고 있습니다.

양서를 읽으십시오. 좋은 음악을 들으십시오. 치혜의 말씀에 담겨 있는 축복을 연구하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읽으십시오. 경전에는 가장 훌륭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메이트하는 남녀는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 있거나” “너무 늦도록 함께”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을 초래할 수 있는가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이성을 무시할 수 있는 감정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도덕의 힘은 희망과 자제력을 통해서 개발되는 훌륭한 덕입니다.

약 200년 전 영국의 정치가인 에드먼드 버크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다음 세대의 특징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말해 주겠습니다.” (에머슨 로이 제스트의 주요 명언집에서, 북크래프트, 1948년, 427페이지)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을 휩쓸고 있는 허위와 부도덕의 물결을 막을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신앙과 힘으로써 여러분이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돋고자 하는 마음이 이상스럽게 보인다하여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목표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1829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존 휘트먼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라.” (교성 15 : 6)

킴볼 대관장님은 더 많은 선교사가 배출될 것을 요구하셨을 뿐 아니라 더욱 잘 준비되고 더욱 강한 열망을 지닌 선교사가 배출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받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는 “[저들의]은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교성 4 : 3, 2) 봉사하여야 합니다. 청녀 여러분은 형제로 하여금 그의 부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훌륭한 현대의 선교사가 되도록 격려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젊은 형제들이 중에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들이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밭은 이미…추수할 때로다…힘을 다하여 낫질하는 자는…자신의 영육을 구원시키느니라.” (교성 4 : 4) 텍사스 산 안토니온 선교부장, 본 페더스토운 선교부장은 “낫을 사용하지 말고 콤바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종자가 없다면 교회는 황폐하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 엔사인, 1977년 10월호, 3페이지) 젊은 자매 여러분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이키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제의 일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를 격려하고 영향력을 주고 방패의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고전 2 : 9) 여러분이 젊은 형제로 하여금 합당하게 준비하여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여러분은 주님께 사랑을 보여 드리는 것이 됩니다.

어린 잔다크에 관한 맥스웰 엔더슨의 회곡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있습니다. “모든 여성은 그가 밟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잘것 없는 것

을 믿고 그 하잘것 없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 밖에 없읍니다. 그 인생을 믿는 바에 따라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얹매어 있어 믿음도 없이 산다면 그것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못합니다. 젊어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맥스웰 앤더슨, “잔 오브 로레인” 뉴욕 : 드라마티스츠 플레이 서비스, 1945년, 2장 4막)

젊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필요한 때에 형제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엘 5:14)를 일으키는 힘을 지닌 영향력과 영을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태어난 교회의 젊은 형제들이 얼굴에 영을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열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으며, 파괴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는 열쇠를 창조주에게서 받았으며, 그리하여 젊은 형제를 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목적은 성공할 것입니다. 끝날에는 의가 이겨야 하며,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젊은 자매인 여러분에게 합당한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복음의 회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여러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목표로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실망, 슬픔, 괴로움, 근심, 좌절 등을 직면한 우리에게 주는 권고.

길르앗의 유향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걱 정과 근심에 싸여 불안한 사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망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고 끊임없이 근심과 좌절과 수치와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이라는 곳에 상처를 고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물질은 나무나 판목에서 나오는 수지로, 고대 세계의 주요 교역 물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길르앗의 유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은 고통을 멀게 하고 고쳐 주는 능력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길르앗의 유향은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고
길르앗의 유향은
죄진 영혼을 고쳐 준다오.

(“질로잇의 유향” 오락 노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49년, 130페이지)

최근에 나는 우리 집 주치의에게 순전히 신체적인 병만을 고치는 데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경험을 쌓은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체의 20퍼센트를 넘지 못할 겁니다. 나머지 80퍼센트 가량의 시간은 신체 조직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환자의 신체에 영향을 주어 생긴 병을 치료하는 데 보낸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박사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질병은 다른 문제점의 단순한 증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최근에는 큰 병이 하나씩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큰 병은 아직도 미해결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에게는 몸과 같이 만질 수는 없으나 육신과 똑같이 신체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만질 수 없는 부분을 마음, 정신, 정서, 예지, 감정 등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묘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실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질병도 있으며, 이 영적인 질병은 심한 고통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은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병이 났을 때, 그것이 신체상의 질병인지 영적인 질병인지를 가리기가 곤란한 경우는 참으로 많습니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잘 섭취하며, 적당하게 운동하고 신체를 해치는 것들을 금하여야 하는 일 등의 기본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율을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 그 어리석음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영의 건강을 위하여도 규율이 있습니다. 이 규율은 목파될 수 없는 단순한 규율입니다. 왜냐하면 그 규율을 무시하면 점차로

슬픔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간의 일시적인 신체의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영적으로도 질병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방법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염을 막고 영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중한 질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근심, 슬픔, 수치, 투기, 실망, 시기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 부근에 빈 터가 있습니다. 인접한 마당은 잘 손질되고 있으나, 빈터는 항상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빈 터를 가로지르는 길이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좁게 났습니다. 자전거길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길은 쓰레기를 모으는 곳이 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깎은 잔디를 약간 버렸습니다. 그 잔디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처 마당에서 몇 개의 나뭇가지를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종이 조각과 플라스틱 그릇이 여기에 쌓였고 마침내는 깡통과 병들이 쌓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곳을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조금씩 버린 것이 결국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빈 터와 흡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텅 빈 채로 열어 놓고 아무나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곳에 무엇이 버려지든지 그것을 간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의식적으로 허용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잔디 부스러기와 종

이가 던져진 다음에는 다른 것들도 별로 나쁜 것같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모아진 더러운 생각으로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맙니다.

몇 년 전 나의 마음속에 몇 개의 풋말에는 아주 분명하게 표시된 짧은 말이 써여 있었읍니다. “출입금지” “쓰레기 금지” 때때로 이 풋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야 할 때도 있읍니다.

나는 간직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유익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어떠한 것도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가 내 마음속에 고상하지 않은 것으로 어지럽히려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잡초가 그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나의 노력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일생 동안 이러한 쓰레기 몇 가지를 던져 버리기도 하였읍니다. 때때로 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린 쪽을 향해 다시 친절한 방법으로 그것을 되풀려 보내기도 하였읍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들을 수없이 쫓아 버려야 했읍니다. 나는 그곳의 풋말에다 어떤 말을 써 블이기 전까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읍니다.

나는 내 마음속을 추한 상념, 실망, 근심, 시기, 수치, 증오, 걱정, 슬픔, 절시 등의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마당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쓰레기는 모두 치워 버리십시오! 없애 버리시기 바랍니다!

“출입금지” “쓰레기 금지”라는 풋말을 박고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상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간직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입은 환자에게 의사가 맨 먼저 하는 치료는 상처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의사 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염 물질을 없애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면에서 그와 같이 행하면 여러분은 다른 관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근심에 써여

뒤죽박죽이 되기는 쉽습니다.

어떤 항의시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걱정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배웠읍니다. 그분은 보기 드문 성자 같으신 분이었읍니다. 그분은 깊은 영적인 힘을 지닌 불변하고 침착한 분이었읍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나는 그분이 병자나 다른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함께 할 수 있읍니다.

그분은 일생을 교회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봉사하며 보냈읍니다.

그분은 한 개의 선교부를 관리하였으며, 해마다 갖는 귀환 선교사 모임을 기다렸읍니다. 그가 늙어서 밤에 운전할 수 없을 때 나는 그분을 모시고 귀환 선교사 모임에 참석하였읍니다.

이러한 행동이 수천 배로 내게 깊어졌읍니다.

우리 두 사람만 함께 있을 때 그분은 나에게 그의 체험으로 얻은 교훈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분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마을에서 자랐읍니다. 소년 시절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야망을 갖고 교육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였읍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안정된 생활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는 장래성이 있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으며, 아내와 그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아내는 첫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읍니다.

아기를 해산하려는 날 밤 문제가 생겼읍니다. 마을에 단 한 분뿐인 의사는 외딴 곳의 병자를 치료하고 계셨읍니다. 그들은 의사로 찾을 수가 없었읍니다. 여러 시간을 헤매다 보니 산모는 절망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읍니다.

마침내 의사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상태가 위급함을 깨닫고 속히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곧 모든 일은 순조롭게 되었읍니다. 아기는 출생되었고 위급했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젊은 어머니는 아기가 출생된 바로 그날 의사가 다른 가정에서 치료했던 환자의 병원체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의 친구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읍니다. 이제는 올바른 것이란 아무 것도 없게 되었읍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 투성이었습니다. 어린 아기를 돌보고 동시에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하였읍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슬픔은 더해만 갔읍니다. “그 의사에게 말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그 의사가 내 아내에게 병을 감염시켰어. 그가 조심했더라면 내 아내는 살 수 있었어.” 그는 그 밖의 다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으며, 비통함이 점점 더해 갔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문을 두드렸읍니다. 조그만 아이가 와서, “아빠가 오시래요. 말씀할 게 있대요.”라고 말하는 것 이었읍니다.

“아빠”란 스테이크 부장이었읍니다. 슬픔에 싸여 상심한 젊은이는 그의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려 갔읍니다. 이 영적인 목자는 그의 양떼를 지켜 보면서 그에게 편가 이야기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었읍니다.

이 현명한 종으로부터 나온 권고의 말은 너무도 단순한 것이었읍니다. “형제님, 내 버려 둡시다. 아내의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형제님이 아무리 발버둥쳐야 일을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그대로 둡시다.”

나의 친구는 이것이 그의 시련이요, 예수님이 겪으신 것 세마네의 고통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하였읍니다.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무서운 잘못이 저질러졌으니 누군가가 그에 대하여 보상해

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자제하기 위하여 고통스럽게 투쟁하였읍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읍니다. 결국 그는 순종해야 한다고 결정했읍니다.

순종은 강력한 영적인 약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 현명한 영적 지도자의 권고에 따르기로 결심하였읍니다. 그는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하였읍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했을 때는 이미 늙은 후였읍니다. 내가 늙을 때까지 나는 그 가난한 시골 의사가 피로와하고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의료품도 넉넉하지 못하고 병원 시설도 갖추지 못한 가운데에도 뛰어다니며 이 환자 저 환자를 돌보다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사은 생명을 살리려 무진 애를 쓰던 분이었고 대부분 성공하였지요.”

“두 사람의 생명이 저울대에 올려진 위급한 순간에 그는 조금도 지체없이 일을 하였던 것이지요.

“내가 늙은 후에야 결국 그것을 이해하였답니다. 하마터면 내 생애와 또 다른 사람의 생애를 망칠 뻔하였지요.”

그분은 “형제님, 그대로 내버려 둡시다.”라고 권고해 준 현명한 영적인 지도자를 주신 것에 대하여 무릎을 끌고 수없이 많이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적의, 고통, 실망 또는 투기심으로 피로와하는 분이 계시면 그러한 감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들의 그러한 감정을 제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 속의 그와 같은 감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형제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자매님, 그대로 내버려 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기 위하여는 영적인 힘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만 구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말합니다.

기도는 좋은 흐름이 있는 영적인 약입니다.
이 약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지시 사항은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네 집 떠나 올 때

기도했느냐? ...

맘에 슬픔 가득할 때

걸르앗의 귀한 유향

빌려 왔느냐?

편히 쉬게 하는 기도

밤도 낮 되게 하니

어둠 근심 오면 기도

잊지 말아라.

(찬송가, 121장)

때때로 우리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그 짐을 오랫동안 지고 있지 않습니다. 짐을 덜어 버립니다.

어떤 짐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질서있게 정돈되어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돈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이 아주 사소하고 심지어는 하찮은 것인 경우가흔히 있습니다. 고도님이 여러분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 해가 지나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습니까? 성장해서 그러한 일쯤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항상 마음에 품고 속상해 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정리하시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이 여러분을 올바르게 부름을 주거나 해임시키지 않았다 해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잊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좋은 흐름이 있는 영적인 약입니다. 이 약을 사용하는 방법도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형제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자매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셋고 달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위의 세상으로부터 흐린 데가 있는 더러운 막을 말끔히 걷어버리게 되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하더라도 태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들보가 빠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해보다 더 나은 평화가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칭호, 곧 평강의 왕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따르면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 : 27)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그것을 달래고 고쳐 줄 수 있는 유향은 걸르앗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복음 14 : 14 - 18)

나는 위대하신 보혜사이신 그분을 증거하고, 이를 증거할 권능을 지닌 자로서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1977년 10월 2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가장의 역할과 책임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결혼한 형제에게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라는 권고

몰 문경에는 그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아버지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실려 있읍니다. 그 아버지는 그 땅의 제재사장이었으며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의 가르침에서 돌아섰을 때 그의 실망은 어찌했겠습니까!

다른 의로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는 아들의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께 간구 했읍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한 천사가 그의 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보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주의 종, 앤마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꼳 이는 너의 부친이라, 저가 네게 진리를 알게 하려 두터운 신앙으로 간구한지라.”(모사이야서 27 : 14)

경전에 의로운 아버지의 간구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읍니다. 가정에서의 의로운 지도력의 권능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읍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 모이신 회중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남편과 아버지라는 위대하고 고귀한 명칭을 가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남자, 여자, 청년, 청소년, 어린이 등으로 모두 거친 세상에서 동류의식을 갖기 위하여 서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나는 오늘, 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나 세상의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많은 남편과 아버지를 꾸짖고자 여러분 앞에 섰읍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문앞에 도사리고 있읍니다. 이혼, 불신앙, 부정직, 마약 사용, 가정 생활의 파탄, 주체성의 상실, 불안정 및 불행,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지도력의 상실로 초래되는 것들입니다.

남편과 가장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해 봅시다. 창조 직후 남자와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최초로 지시가 주어졌읍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세기 2 : 24)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신성한 계획에서 결혼을 그분의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성별하셨읍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태초부터 분명히 구별되었읍니다.

예언자는 여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고 정숙하고 우아한 여성은 창조의 결작품입니다.” (레이비드 오, 맥케이, 북음의 이상, 임프르브먼트이라 출판사, 1953, 449페이지)

이 결작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님은 남자에게 부양자 및 보호자가 되도록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의 계획이 유효하다면 남편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지도력을 발휘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의 필요 사항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레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아내인 엠마 레이 맥케이 자매님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로스엔젤리스에 도착하자 우리는 월샤 블바드에 있는 세차장에서 차를 세차하기로 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놀라울정도 내 팔꿈치 아래 쪽에서 ‘저기 계신 저분이 할머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나는 고개를 돌리자마자 일곱 살 정도된 갈색 눈을 가진 아름다운 꼽슬머리 소년을 보았다.

“‘무어라고 그랬지?’하며 나는 다시 물었다.

“‘저기 계신 분이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요.’

“‘응 그래,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그분이 나의 남편이거든. 그런데 그건 왜 물지?’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 올랐으며 그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를 쳐다 보시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아빠가 엄마에게 그렇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면 난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을 거예요.’

“‘저런, 아빠가 왜 미소를 짓지 않으실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혼을 하지 않겠지요?’라고 그는 나에게 묻는 것이었다.

“‘물론 안하지. 우리는 벌써 이렇게 50년

을 살아 왔는데, 그건 왜 물니?’

“여기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혼을 하니까 그렇지요. 아빠도 엄마와 이혼하려 하고 있어요. 난 아빠도 엄마도 다 사랑하고 있는데……”

“그는 말을 잊지 못하였으며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했다.

“‘참 안되었구나!’

“그러자 그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귀속말로 이렇게 속삭였다.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여기 있으면 곧 이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구세주와 신권과 나, 멜기세덱 신권반 1974—75년도 교재(207—208페이지)

남편 여러분, 항상 아내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세차장에서 그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더라면 그 어린 소년은 여러분에게서도 그와 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두 번째의 것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마련하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가족이 살아가기에 충분하도록 준비하는 일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야 하며 이것을 성취하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아내를 돌보아 주는 한 여러분의 아내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능하게 되지 않는 한 아내를 강제로 돈벌이 하려 보내어서는 안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루 24시간 그녀에게 감사와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슬픈 경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배웠나니, 끝 거의 모든 사람은 사소한 권리와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자마자 불의한 짜매력을 행사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파”(교리와 성약
121: 39)

아내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녀는 의롭지 못한 일에 여러분을 따를 필요
는 없읍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아내이고,
동반자이며 가장 좋은 친구이고, 완전한 반
려자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큰 잠재력과
재능과 능력을 축복으로 주셨읍니다. 역시
그녀도 자아 표현과 발전을 위한 기회가 주
어져야 합니다. 그녀의 행복은 여러분의 큰
관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행복한 생활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법을 배워
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책임은
의로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칭호 다음 두번쩨의 중요한 것은
가장이라는 칭호입니다. 영생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축복은 자녀를 가질 축복을 받는 가회입니다.
모든 건강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
들은 그의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은사를 부
여하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첫째로, 영예롭고 존경받는 이름입니다.
나는 훌륭한 그의 이름을 나에게 준 아버지
께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 이름은 내가
자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름이었
습니다. 그 이름은 여섯 살 때부터 선교사
로 나가기 몇 달 전까지 감독이란 칭호가
언제나 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
이 자랑스러웠는지! 그 책임에 나를 관
여시키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읍니다.
복지 농장에서 일하는 것, 예배당을 청
소하는 것, 와드 재정 기록을 정리하는 것,
밀가루 부대를 창문으로 운반하는 것 등은
모두 나의 어린 시절의 생활의 일부였읍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별명까지도 얻었읍니다.
나는 자랑과 존경으로 그 별명을 받아
들이려고 하였읍니다. 그 결과 조금 더 크
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

버지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 이와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겠지요?

자녀들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물려 주는
것은 아버지 여러분의 의무가 아닙니까?

둘째로 모든 어린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
기로 원합니다. 나는 옛날 우리 가정의 안
정에 대하여 이따금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것은 원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요새였읍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릴 때 신권에 의해 축
복을 받았읍니다. 필요할 때 아버지께서 가
족을 위해 축복을 하실 경우에도 그 권능을
행사하셨읍니다.

자녀들에게 신권의 권능으로 축복된 가정
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가 아니
겠습니까?

세번째로, 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어느날 큰 교훈을 나에게 가르
쳐 주었읍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내
가 일자리를 구해 뉴욕으로 이사를 하여 집
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내 중심가
에서 시작하여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다가
변두리까지 나가게 되었읍니다. 코넥티컷
에서 마음에 꼭 드는 집을 찾았읍니다. 그
것은 뉴잉글랜드의 방사형 숲속에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읍니다. 우
리는 그 집을 택하게 되어 모두 기뻐했읍니
다. 그 집을 사기 전에 마지막으로 뉴욕까
지 교통 시간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
과 나는 몹시 실망하게 되었읍니다. 편도에
만 한 시간 반씩 걸렸읍니다. 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모텔로 돌아가서 그 집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더 구해볼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은 “우리는
그 집을 사겠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집
을 구하러 다니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읍니
다.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읍니다. 만일 그
말이 진실하다면 나는 빨리 회개할 필요가
있읍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

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그들에게 정직, 근면,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네번째로, 자녀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출판된 신권반 교재에 브라이언트 에스 헝클리 장로가 1955년에 쓴 다음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인디아나폴리스 근교에 있는 어느 국민학교 학생 326명을 대상으로 각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나 익명으로 작문을 짓게 했다.

“교사는 이 작문의 내용이 아버지들로 하여금 사친회에 적어도 한 번씩은 참석하도록 이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값싼 차를 타고 오는 사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 사람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밀려 왔다. 운행장, 노동자, 회사원, 상인, 농부, 제과업자, 양복점, 경영자, 제조업자, 청부업자 등 재산, 기술, 외모 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왔다….”

“회장은 어린이가 지은 작문에서 아무 것이나 하나를 뽑아 읽었다.

“나는 아빠가 좋아요!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그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가 많았다. ‘아빠는 내 인형의 집도 지어 주셨고 해변가로도 데려 가 주셨고 총쏘기도 가르쳐 주셨고, 숙제도 도와 주셨으며, 공원에도 데려 가셨고, 폐지도 사주셔서 키워서 팔게 하셨지요.’ 즉 모든 작문은 ‘아빠가 나와 함께 놀기 때문에 나는 아빠가 좋아요!’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다.

“자기 집이나 자동차나 이웃이나 음식이나 옷에 대해서 털한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아버지들은 여러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결국 그들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자녀에게 친한 벗이 되든가 아니면 낯선 사람이 되든가 둘 중의 하나가 되게 마련이다.

“너무 부유해서 혹은 너무 가난해서 자녀와 놀아 줄 수 없는 사람이란 없다.”(구세

주와 신권파 나, 웰기세백 신권반 1974—75년도 교재, 223—224페이지)

나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지도력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남편과 가장 되시는 여러분 속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감을 받아 가족을 의롭게 인도하고 이끌며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하고 유일한 조직의 가장입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어 의로운 남편이고 아버지가 되는 임무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매리온 저 름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복음이 안겨 주는 안전성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영적인 율법을 알아야 하고 그 율법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내 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 세상에는 물론 다음에 올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으로는 한 형제입니다. 바벨탑도 영의 언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영으로 듣는다면 내 말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모두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릴 때 걸음마를 배우며 넘어질 때부터 나는 중력

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중력을 보지 못했고 다만 그 영향력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만물에는 중력이 미치고 있으며, 모든 만물의 위에나 아래 그리고 주변에는 중력이 미치고 있고, 모든 물체는 각자의 위치를 지켜 이 법칙에 따라 지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는 한계와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발명이나 모든 움직임은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취하여지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동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의로 뛰어내렸을 수도 있고 우연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좌절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떨어져 그 결과를 겪어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구제 장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낙하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공중을 낙하하는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낙하산을 갖지 않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죽고 맙니다. 낙하산의 구제력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관계가 없습니다. 뛰어내릴 때 펼 낙하산이 없으면 그는 생명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무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법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읍니다.

이 지구상에서 20초 동안만 중력의 법칙이 중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완전히 질서를 잃고 혼돈되리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과학자가 아니지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 만물에는 중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중력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마는 그것의 영향력을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중력의 법칙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포괄적인 법입니다. 사실 중력의 법칙은 이 법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법칙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법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법을 결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중력의 법칙처럼 이 법의 영향력을 보았으며 나의 생애에서 그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윤법입니다. “세상의 빛과 구속주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세상에 오신 진리의 영이시라. 그 안에 사람의 생명과 빛이 있으니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느니라.”(교성 93 : 9-10.)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윤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는 윤법으로 보호받으며 윤법으로 완전케 되며 성별되나”(교성 88 : 34)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은 엄한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윤법을 깨뜨리며 윤법을 감당하지 못하며 도리어 제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며 즐겨 죄 가운데 거하려 하며 온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윤법으로나 자비나 정의나 심판으로 성별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저들은 여전히 더러움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니라.”(교성 88 : 35)

“보좌에 앉으신 이는 만물을 품으시며, 만물은 저 앞에 있으며, 만물은 저를 둘러 있으며, 저는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을 통하여 계시며, 만물 주위에 계시나니, 만물은 저로 말미암아 있고, 저로 인하여 있으니, 곧 저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시라.”(교리와 성약 88 : 4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윤법이 이 세상에서 단 20초 동안 중지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력의 법칙을 위시한 모든 다른 법칙이 이 포괄적인 윤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법칙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지상의 모든 만물이 일순간에 혼동될 것을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윤법은 이 세상에서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교성 3 : 1)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윤법으로 다스림을 받을 것은 윤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윤법의 조건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만물에게 윤법을 주셨고, 이 윤법으로 폐와 계절에 따라 만물은 운행되느니라.”(교성 88 : 42) 또한 “어떠한 왕국이나 제각기 한 윤법이 있고 윤법에는 다 어떠한 한계와 조건이”(교성 88 : 38)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8 : 39)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윤법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윤법을 주신 이를 따라 침수로써 침례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윤법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윤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회개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칠 것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질 것과, 주 앞에서 기도하고 올바르게 생활할 것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달하면 침례를 받도록 가르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성스러운 윤법을 저버리고, 성실하여 순종한 자들이 앓게 될 보좌를 포기하는 부모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어 자녀를 왕자와 공주로 거느리고 그의 왕국에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국민에게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며 바다의 여러 섬에 보내라. 외국으로 보내라. 모든 국민에게 찾아가라. 먼저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이 유

대인에게로다.”(교성 133:8)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변자인 예언자로부터 타락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율법을 전파하는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장로가 있다면 그가 어찌 의롭다 함을 알겠습니까?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권고를 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슬픈 사람은 경전에 들어 있는 복음의 율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들은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서 각 창문을 지날 때에 “아직까지는 다 편찮다”고 말하거나 지붕에서 미끌어져 면서, “주님, 살려 주세요. 제가 떨어집니다! 살려 주세요. 주님, 떨어져요! 걱정 마세요, 주님. 못에 걸렸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희생, 봉사, 도덕적인 순결, 십일조와 현금, 정직 등에 대한 율법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복음의 율법을 이루는 많은 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마련된 보호와 구원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모으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곳에서 뛰면 여러분의 몸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중력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력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까? 이 율법이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의 한계와 조건을 불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영이 타락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영원의 영광을 진실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만물에 영원한 율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 놀란다.
태초로부터 끝날까지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사업을 알고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의 계획과 율법은

진리요 영원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한 율법을 무시 하더라도

율법의 성스러운 구역을 벗어나

사탄의 소리를 따를지도

인간은 다시 옛 길로 돌아서야 하리니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

복음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물론경에 담긴 위대한 주제를 고대 예언자 모로나이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다음과 같이 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온갖 좋은 은사를 취하며 사악한 은사나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않도록 하라.”

“...다시는 흘어지지 않도록 하고...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더불어 맷으신 언약이 성취되게 하라.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지 못하리로다.

“거듭 이르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를 대속하사 흠이 없는 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너희가 성결하게 되리라.”(모로 10:30)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이 거룩한 율법에 맞는 생각과 행동이 되기를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귀한 선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찰즈 에이 디데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장로님의 간증이 수년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간증이 장로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다시 활동 회원이 되라는 권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교회 내의 특정한 회원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그다지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며,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다리가 너무도 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오늘도 내일도 일상 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고 또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게 될 5,000명의 부모와 100,000명의 조부모와 수많은 형제, 자매, 친척 그리고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가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귀환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 자리에 그들에게 보내려고 한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선교 사업을 행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귀환 선교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여러분 모두에게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읽어 드리기 전에 이 편지에 나오는 인물과 성품은 가공의 인물이나 성품이 아니고 살아 있거나 죽은 실제 인물 즉 많은 귀환 선교사와 매우 흡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브라운 장로님 !

장로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듣기 싫어하시지는 않겠지요? 내가 장로님을 알기 시작할 때도 바로 그 호칭을 사용하고 계셨고, 더욱이 장로라는 호칭은 영원히 나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알게 되었던 때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무더운 여름 오후였지요. 장로님과 동반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언덕을 향하여 자전거를 밀며 올라오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흰 샤크에 베타이를 매고 계시면서도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었습니다. 2, 3일 동안 우리는 장로님이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달려 내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님이 우리 집 현관 벨을 눌렸을 때 네 명의 어린 아이는 모두 그 짙은 외국인이 누구이며 이웃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로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냉홍차를 편하자 장로님은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하시면서 정중하게 사양하셨습니다. 후에 내가 장로님이 무엇을 하는 분이며 방문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는 그것은 선교사로서 정말 훌륭하게 사양하는 방법이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장로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처음 미국인의 강한 액센트에 놀랐고, 다음에는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 즉 인디언 사진, 남미의 폐허 사진, 세 개의 고리로 묶은 손으로 만든 동판 등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크리스토퍼 컬럼버스가 신세계를 발견했을 때 신기한 느낌을 갖고 흥분하였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자주 방문하심에 따라 급속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으며, 우리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었읍니다. 또한 우리에게 몇 마디의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란 말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동반자와 함께 우리가 따라야 할 홀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어느날 우리는 장로님이 떠나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장로님은 전 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적절한 말이었는데 우리는 다시 새로운 동반자를 사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새로 온 동반자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게 되었으나 장로님은 우리가 처음 만나 사귄 분이었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장로님의 임기가 2년임을 알게 되었고, 물론 장로님은 떠날 때 소식을 알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은 두 달 후 간단히 적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두 잘 나왔지만 장로님을 알아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임지에서 타고 다니던 자전거 대신에 말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웃차림 때문이었으며, 특히 짧은 구례나릇과 두발이 걸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버팔로빌(본명은 윌리엄 프레드릭 코더이며 서부 범경 개척자로 후에 유명한 홍행사가 되었음)의 전설을 재현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아

닌가 하고 생각하여 이 사진을 보고 웃었읍니다. 선교 지역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느껴지게 했고 우리 가정으로 영접하게 했던 이유인 홀륭한 성품을 저버린 것을 뜻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장로님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장로님이 선교 사로 봉사하면 때의 모습의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다음 편지를 몹시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장하였고 한 사람씩 침례를 받았으며, 신전 결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동반자 중 몇 명으로부터 결혼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기뻤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편지는 결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히 장로님께 그 이유를 물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으로 솔트레이크로 잘 기회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장로님이 사랑하신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장로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도시를 보았을 때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장로님은 믿으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미 보았던 솔트레이크 계곡, 태버내를, 신전, 회원들에 관해서 장로님은 입의 침이 마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곡에 들어가 “바로 이 곳이라”라고 의친 브리감 영 대관장까지도 마음속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요셉 스미스의 첫 번 시현과 그것이 세상과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 설명했던 것과 꼭 같은 방법으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장로님을 방문하고 싶었읍니다. 아직도 우리는 미소를 짓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증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읍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 진실함을 알고 있읍니다.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깃들이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이며, 이 교회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유일한 참된 살아 있는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장로님의 간증을 나는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읍니다. 장로님은 신성한 권능인 성신의 권능으로 나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어떻게 느꼈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는 새로운 목적과 교회와 진리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초가 되었읍니다.

그렇습니다. 솔트레이크에 도착한 바로 그날 장로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장로님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옛날 선교사로 봉사하시던 도시에 복음이 들어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유령에 시온이 세워졌습니다. ‘잘 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로님의 옛날 동반자 한 분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주저하였고, 당황해 하였으나 드디어 그는 장로님이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회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비활동” 회원이 되었으며 그것은 수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쳤던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장로님을 만나 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주유소로 차를 물고 갔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을 찾았는데, 장로님은 우리를 알아보고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나는 장로님의 얼굴에서 당황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까지 타 들어가고 있는 담배를 숨기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장로님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장로님의 자매님과 자녀들과 생활과 장래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무언가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마지막 모습을 보았고 장로님이 돌아서지 않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솔트레이크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하여 장로님께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를 모릅니다. 나는 주유소 앞으로 차를 물고 가 보았으나 장로님은 이미 거기에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장로님의 생애에서 최상의 때라고 항상 말씀하시던 것을 회상하더라도 언짢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읍니까? 왜 “최상의 때”는 항상 과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되고 미래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물로 주기 위해서만 제정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될지를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엘마는 다음과 같은 말로 간증하였습니다.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른대로 너희가 많은 증거를 가졌음에 너희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 영생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주어진 이 생이 지나며, 보라 우리가 생을 누릴 동안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의 어둠이

다가 오느니라.”(엘마서 34:32-33)

사랑하는 장로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만 선교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대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요. 나는 이것을 그날 장로님의 간증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있어 버리지 않도록 기록되어 있으며,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다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울법이요, 빛이니,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딜진대 너희가 살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허락하겠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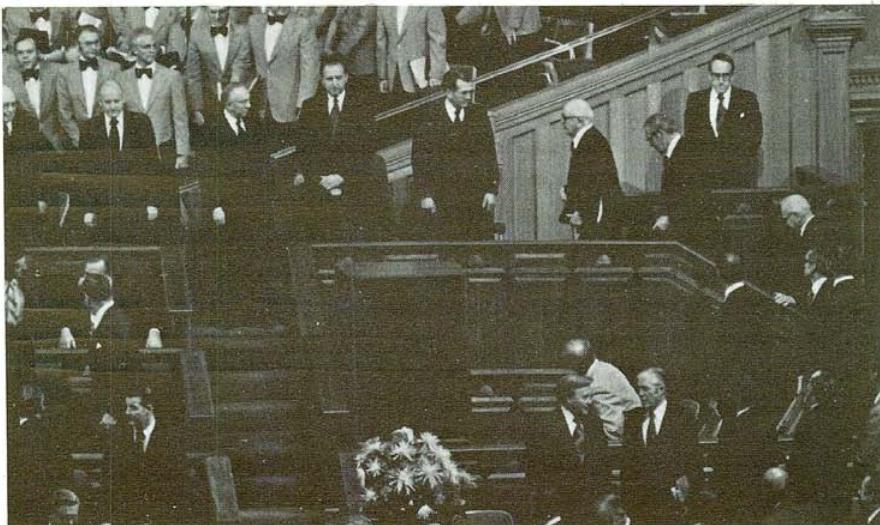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계명을 주었으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울법이요 또한 선지자라 이는 진실로 나를 증거하였기 때문이니라.”(니살 15:9-10)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 문을 닫으셨습니까. 전에 장로님이 나의 집에 발을 들여 놓으신 것처럼 내가 장로님의 집에 들어셔야 할까요? 시간이 있을 동안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이 장로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장로님을 염려하고 있읍니다. 동반자로 함께 봉사한 선교사가 장로님을 잊지 않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장로님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대로 오십시오. 우리는 팔을 벌리고 장로님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장로님의 간증이 수년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간증이 장로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신의 능력에 힘입어 나는 계시의 영을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며 우리는 오늘 날 살아 계신 예언자 스페너 더블류 퀸볼 대관장님을 모시고 있으며, 그의 지시와 권고에 따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장로님의 생애에서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태버네를 안으로 들어오시는 퀸볼 대관장과 뒤따라 오시는 태너 부대관장과 롬니 부대관장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가지 일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왕국 건설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며, 또 예언자의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보다 많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경전을 읽고 계명과 우리의 지도자의 권고를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 자신의 부족함에 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을 받고, 나는 주님과 단상에 앉아 계시는 교회 지도자와 나와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은 여러분이 모두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순간에 느끼는 놀라

움에 가까운 감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행위와 실천을 통해서 나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가 여기에 있을 때나 선교 지역에 있을 때나 언제나 도와 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나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형제와 그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이미 내려진 다른 결정이나, 나의 결점과 나의 생활 양식을 잘 알고 인내로써 지도해 준 나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에이 테이스 엘 그렌 선교부장님,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과 리차드 웨이번스 장로님과 베다 어빈 숙모님과 이미 고인이 된 다른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교회 지도자들이 나의 생에 있어서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동력이 되었던 계속적인 모범을 보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친절하시고 사랑스러운 구세주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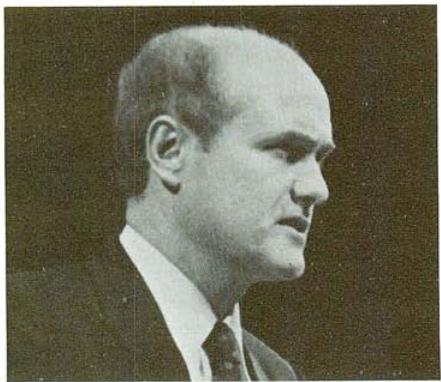
나의 아내 앤과 나의 자녀 레리, 아네테, 마커스, 조나단, 나단과 앤드레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왕국 건설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어디서나 기꺼이 도움을 주겠습니다.

헨리 벤 다이크는 수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멸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이 생애를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용감하고 충실히 기쁘게 생활하는 것이다” (에머슨 로이 웨스트, 주요 인용집, 북크래프트사, 1968년, 101페이지) 우리도 이렇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그들은 단념하지 않았다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 이외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 훌륭한 건물에서 특별한 영을 느끼며 주님의 예언자와 종관리 역원과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무한한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의 나의 이러한 느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는 훌륭한 부모를 가졌으며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며 훌륭한 가정을 갖는 등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충분히 잠잘 수 있었으며 그 의도 많은 축복을 받았

습니다. 나는 대기업체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업체에서 세계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최대의 축복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결손한 선교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의 가정을 찾아 준 데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그들이 나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단념하지 않을 만큼의 사랑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경우는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교육과 사회적 배경과 경력과 가문 때문에 나는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들에 대해 측은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니다. “이 훌륭한 청년들이 그와 같은 보잘것 없는 메시지를 전하다니.” 그들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나를 방문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그 젊은이를 통하여 전해지는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애에서 얻었던 모든 지식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단념하지 않았던 이 선교사들과 나에게 선교사를 보내기를 거부하지 않을 만큼 큰 관심을 가졌던 선교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은 디어도어 엘 버튼 장로입니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생애에서 받았던 가장 중요한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이 그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하여 회복되고, 살아 계신 예언자이신 스페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지시에 따라 계속 전파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아니였더라면 나는 현재와 같은 나의 가족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갖지 못했을 것이며 나의 자녀들에 대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장남은 현재 영국 맨체스터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의 둘째 아들은 내년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이 부름은 인간의 이해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이 기

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침례 받을 때 후에 신전에서 침례 의식을 행할 때도 역시 주님께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생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께 대관장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충실히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 이외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오 주여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그와 같은 중대한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름을 발음하시느라고 애쓰신 톰 니 부대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세에 가면 나의 부친께 나의 이름을 바꾸어도 괜찮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킴볼 대관장님, 총판리 역원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간증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친절하게 둑기를 부여해 주시고 나를 키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모든 자들의 그 놀라운 도움과 내 생애에서 미친 훌륭한 감화에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의 아내 도시코와 나의 자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킴볼 대관장님, 그리고 복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힙클리 장로는 내가 뜻나기 선교사였을 때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그와 같은 중대한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주님께 지금도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오 주여,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도 나의 영혼 속에서 나의 가슴 속에서 “산 너머나 바다나 곧은 길 어느 곳에나 주 원하면 내 가리라 주께 대답하리니”(찬송가 164장 참조)라는 음성을 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7)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 옵니다.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혼들릴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

개를 의칠 수 있다면”(엘 29:1 참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오늘날에도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스페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님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지지합니다. 물론 경은 참되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최고점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순수한 행동에서나, 달성에서나, 인정을 받는 일” 특히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최고점을 획득합시다.

○ 설교단으로 향해 걸어오면서 나는 막 중한 책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언자께서 나의 손을 꽈 쥐시며 “나는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형제님을 지지합니다”라고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킴볼 대판장님의 느낌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나에게 자주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격려를 받은 것은 언제였느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평가되거나 등급이 매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행동이 부모에게 인정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속히 알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견책은 가정에서 즉시 행해집니다. 그와 같은 부모의 평가는 삶에 있어서 이상을 갖는 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같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만한 인정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학점은 획득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노력합니다. 군에 입대한 자들은 무수한 겸열과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취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지급되는 급료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홀륭한 일을 행하면 높은 급

료와 보다 나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상품을 생산해 내는 자들과 식품을 생산해 내는 자들은 많은 소비 조직에 의해 평가를 받습니다. “최고급”에는 보다 높은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자유 국가의 정부에서는 선거에 의하여 지도자를 평가합니다. 신문과 잡지는 구독자의 수에 따라 인기가 평가됩니다. 텔레비전은 시청자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빈약한 프로그램은 대개는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역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견해가 올바르다면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높은 수준의 성취와 훈련에 도달하기 위한 동기 부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개념은 우리들이 높은 목표를 설정해 주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성취하려는 타고난 이러한 욕망에도 불구하고 높고 훌륭한 평가의 성취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더욱 범람하고 있는 영화와 서적과 잡지와 영국물과 텔레비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부도덕이나 폭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폭력 영화나 부도덕을 묘사한 이러한 “저속한” 영화가 “가장 우수한” 영화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스러운 의사 표시는 자유의지의 영원한 원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은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어떠한 세력이 언론의 자유를 이용하여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과 애속을 수반합니다. 모든 일에는 언제나 반대가 있기 마련임을 알고 있으므로, 여러 형태의 외설이 완전히 없어질 날이 곧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훌륭한 생활을 하는 개인의 생활에서는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려 깊은 자들은 전전하고 가치있는 문학과 예술과 습관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훌륭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음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생활에 쓰이는 물건을 선택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것”과 “저속한 것”들 사이의 투쟁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적은 그가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이거나 전술상의 기지를 찾고 있으며 그가 얻은 교두보는 다음 공격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허용하는 승리의 회수는 그 전투의 마지막 승패에 실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적은 어떻게 이 전쟁을 행합니까? 그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외설과 투쟁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그의 전투 계획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외설에 관여되어 있는 자들은 곧 개인의 행동에 관한 편견을 갖게 된다고 말해 줍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말해 줄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습관과 같이 탐닉의 결과는 그를 결박하게 되며 폭력이나 외설은 오관을 둔화시키고 앞으로 보다 거칠고 보다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곧 그는 무감각해져서 특히 자신의 가정과 가족에게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일 수도 없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행동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에 피임을 받아 놀랍고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희생자가 된 그러한 젊은이도 전에는 존경받는 남편과 사회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이 외설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취급했읍니다. 그것을 보았던 자들은 세상에 그러한 일도 있을까 하고 서로 농담했읍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호기심에서 그것들을 자세히 연구하여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이러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기회를 살고자 했읍니다. 그가 이러한 것들을 보다 자주 보게 됨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영에 사로

잡하게 되었읍니다. 곧 그는 그의 친구로부터 더 많은 의설적인 것을 구했고 그들은 이 악한 것들에 대해 토론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였읍니다.

그가 세상의 일에 관해서 잘 알게 됨에 따라 그는 그의 친구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읍니다. 이 젊은이는 적의 방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말았읍니다. 그의 친구는 그가 본 그림에 나타난 대로 실천에 옮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그의 영적인 감수성은 약화되었읍니다. 그도 그 사실을 인정했읍니다. 그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아래에게 접근했읍니다. 그녀는 그의 제언을 듣고 놀라 큰 충격을 받았읍니다. 그가 지각없는 요구를 계속했을 때 그녀는 드디어 그와의 어떠한 관계도 거절해 버렸읍니다. 그의 빛나간 상태로 말미암아 그는 다른 곳에서 폐락을 찾으려 했으며, 결국 그는 그녀와 가족과 자존심을 잃게 되었읍니다.

경전은 우리가 적의 전술과 전략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물론경에서 니파이는 오늘날의 투쟁을 보았으며 명백히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읍니다.

“보라 그 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여,

“많은 다른 자들을 탈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쓰게 하며……”

“또한 보라 다른 자들을 달콤한 말로 꾀어 저들에게 지옥이 없다 하며 이르기를, 악마란 없는 것이며,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잡아 무서운 사슬로 얹어 맸 때까지 하며, 그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리니,”(니이 28:20-22)

위대한 예언자 물론은 타락한 백성들을 보고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그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모로 9:20)자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물려가고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얼마나

비극적일까요?

만일 우리가 사탄파의 전쟁에서 계속 진다면, 경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를 움켜 잡을 최후의 사슬은 얼마나 가공스러울 것이겠습니까? 또한 그와 같은 상태는 사전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아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사전에는 의설을 이러한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독, 혐오, 성냄, 타락자, 손상, 부패, 외곡, 감염, 그릇 인도함, 해독, 비꼬임, 약화됨, 망쳐짐, 내가 이러한 말들에 대해 생각할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우리에게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신앙개조 13조)을 구하라고 훈계하신 말들이 생각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보고 몸서리가 납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알리는 신호는 나팔 소리였읍니다. 내가 부르는 전쟁의 신호는 육욕의 것이 아닌 전전하고 “가장 우수한 것”을 발견하라는 외침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기쁨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나는 우선 자녀들이 읽고 보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부모되시는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훌륭한 독서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잠자리에 들 때 전전한 이야기를 읽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동 문학 중에서 여러분의 어린이들이 고상한 이상을 갖도록 해주는 가장 훌륭한 작품을 택하십시오. 나는, 어떤 어린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후 그렇게 실현했던, 작은 엔진에 관해 말한 그의 단순한 이야기에서 받은 강렬한 영향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읍니다. 얼마나 자주 나는 마음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후에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생김을 느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부모에게 안겨 좋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끊고 기도하며 자란 어린이와 난폭한 멜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후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어린이들과의 차이점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손자나 손녀와 함께 독서 프로그램을 세울 것을 조부모님들께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있을 만큼 가깝다면 그들의 성격 형성과 이상의 구축에 도움이 될 책을 읽게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고전이나 현대 문학 중에서 양서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읽으라는 개인적인 편지와 함께 보내시고 그들로부터 답장을 받으십시오.

다음으로, 나는 청소년에게 여러분이 읽고 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모와 협력할 것을 제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상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읽을 것과 보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다음으로 나는 가족에게 전전한 영화를 관람할 것을 제언합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보는 영화를 알아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허락을 받은 영화만 관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모든 말일성도에게 경전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것을 이해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성스러운 책은 교활한 적대자를 막는 방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각자 자기의 경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집회와 밤에 가지고 가십시오. 한가한 시간에 그것을 읽으십시오. 경전의 연구와 명상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행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나의 한 친구는 지난 여름에 그의 가족이 휴가를 갔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했기 때문에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로부터 고등학교 연령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들떠 있었읍니다. 그의 부모는 현명하게도 이때 가족들과 경전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경전을 읽는 대부분의 10대의 자녀들은 어린 동생들을 놀려대는 것을 그쳤고, 어린 동생들은 형들이 말하는

것에 흥미를 갖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족은 그들의 휴가 중에 신약의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읽었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은, 적대자들이 순수하지 못한 서적과 그림을 보여 줌으로써 너무나 쉽사리 우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나의 호소는 우리는 우리의 생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점”에 이르도록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홀륭한 성적을 획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홀륭한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사랑할 만하고 전전하고 칭찬할 만한 일로써 채우기를 바랍니다.

성취하려는 욕망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하는 창조주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성적표에 점수를 매겨 줄 분이십니다. 적대자는 우리의 지각을 약화시키고 무너지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의 평가 즉 심판을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활하고 간악한 세력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육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과의 경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칭찬할 만한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뚫리지 않을 겁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투쟁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홀륭한 나팔 즉 순수한 행동의 달성을 이루나 인정받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최고점을 획득하기 위해 나팔을 불시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네 주인의 기쁨에 참례할찌어다”(마 25: 21)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예수 그리스도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이 위대한 대회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30명 이상의 총판리 역원들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도 또한 무덤에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믿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 8-9)

그의 예언자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한 계시자 요한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계시해 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셨으며,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불찌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계 1: 18)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인디언의 선조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들에게 현재 위대한 흔 영, 훌륭하신 하나님 또는 그의 수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요단강에서 (마 3: 13-17 참조), 거룩한 변형의 산에서 (마 17: 1-9 참조), 니파이인들의 신전에서 (니살 11-26) 뉴욕주 팔마이라의 숲에서 (요셉 스미스 2서 17-25절) 나타나셨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신 그의 실제의 아버지 거룩하신 엘로힘이셨으며 그의 형상은 아버지와 같았으며 아버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구약 시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는 칭호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일컫는 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리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은 필요할 때마다 지상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민에게 아들을 소개하셨으며, 그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업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시대에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이 아닌 분리된 몸으로 지상에 내려와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사건은 시현을 받은 신앙이 강하고 준비된 젊은이에 의해 나타내졌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오실 때 그를 알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산이나, 강이나, 화산은 많은 사람에게 신이 됩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아무런 형체나 능력이나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창조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 사실을 매우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아브라함서 2:8)

아브라함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같이 나 아브라함은 사람이 사람이 이야기하듯 주와 얼굴을 마주 대고 말씀드렸고 주께서는 친히 손으로 만드신 일을 내게 말씀해 주셨더라”(아브라함서 3:11)

그리고 모세는 그의 창조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위에 있더라.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궁은 곧 나의 이름이라…”(모세서 1:2-3)

주후 1세기 경에 이 땅에는 경전을 읽었던 많은 무리들이 바운티풀 땅에 있는 신전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기이하게 여기며 놀라와하면서 그 죽으심의 표적이 이미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서로서로 이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는지라…

“저들의 영혼을 궤뚫어 가슴을 불붙게 하였으며,

“세번째 소리가 들릴 때 이를 깨달아 듣게 되었으니, 소리가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 읊을 받았으니”, 이것은 새로운 소개였습니다.

요단강에서 그의 아들을 소개했을 때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이를 알아 듣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니, 보라 저들이 보배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자 무리 가운데서 서십에, 온 무리의 눈이 저에게로 향하였으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고, 저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무리는 혹 천사가 저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였느니라.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너암 11:3, 6-11)

그들에게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긴 설명을 마치시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나를 보았나니,”(너암 15:24)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칠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계시의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전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마 16:13-19)

하늘에서 매기 위한 하늘의 신성한 인봉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도 권능으로 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그는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견고한 계시의 반석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계시인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한복음 1:29, 34, 36)

베드로의 간증을 읽어 봅시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좋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1:13-18)

이것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간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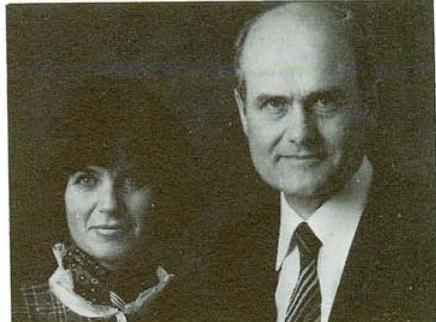
이 대회는 실로 위대한 대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주어진 놀라운 말씀을 하나도 빠뜨

리지 않고 나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돌아가서 전보다 더욱 위대한 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모든 훈계와 권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도 저와 같이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화평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대회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과 애정을 전해 주는 기회가 되고 또한 여러분의 생애에서 위대한 성공의 기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간증과 기도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

부쉬 장로 부처



복지사업 : 실천의 복음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복지의 여섯 가지 근본 원리 즉 사랑, 봉사, 일, 자립, 협남 및 청지기의 직분을 검토함.

이 찬송 [“촌음을 아껴쓰고”]을 부르니까 옛 날이 생각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음식을 만드실 때나 집안 일을 돌보실 때 이 찬송을 콧노래로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찬송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의 성약과 임무와 축복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배우기 위해 이 대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복지 모임에서 전할 말씀에 대하여 생

각하다가 나는 문득, 한 세대를 40년으로 생각한다면 이 위대한 복지 사업이 1936년 10월에 재설립된 이후 한 세대가 지났다는 생각을 하고는 더욱 기 놀랐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지도자들, 히버 제이 그랜트,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데이비드 오 맥케이, 헨리 디 모일, 해롤드 비리, 매리온 지 롬니, 그밖의 많은 분들이 나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권고의 말씀과 경전의 가르침이 나의 마음속에 되살아 납니다.

그분들이 복지 사업에 기여한 공헌과 교회 복지 사업의 눈부신 발전을 되새기면서 나는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특히 지역, 스테이크, 와드의 지도자들이 지나간 세대의 이들과 꽤같이 복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복지 사업에 힘쓰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몇 년 전, 종관리 역원의 교육 모임에서 롬니 부대관장께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평가에 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출 1:8) 섯듯이, 교회에는 앞서 가신 신앙의 선조들과 같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지 못한 감독과 스테이크부장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교회 복지 사업의 근본 원리, 1974년 3월 6일)

이 위대한 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소홀히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의 기본 원리를 다시 말씀드리고 이 세대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능하면 이 사업에 대한 영적인 유산을 강화시키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우리의 결음의 폭을 넓혀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첫번째 경륜의 시대 이후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의 세대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니 저들 산 위에서나 높은 곳에서도 복을 받아 번성하-

였더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모세서 7: 17-18)

자비로운 베냐민왕이 말한 이 진리를 우리는 물문경을 통하여 가르치는 지도자와 배우는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은 너희가 날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니,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모사이야서 4: 26)

니파이사서에서 우리는 니파이인들이 이 기심을 버리고 온전히 네 세대 동안 의로움 가운데에서 생활할 때 축복을 받았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적인 시온을 보고 환희에 잠기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또한 저들은 저들의 온갖 소유를 공유하였던지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속박된 자나 자유로운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자유로웠고, 저들이 모두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며,

“시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짓을 범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니파이사서 3, 16절)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서 약 4세대 전에 주님은 또 다시 현대의 시온에 대한 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밝혀셨습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 떡을 쟁으며 내 앞에서 거룩하지 않다.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아들 열 둘을 가졌는데 저들을 편애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아

비에게 순종하여 섬기나, 아비가 한 아들에게 이르기를 예복을 입고 여기에 앉으라 하고 다른 아들에게 누더기를 입고 저기에 앉으라 이르고 나서 아들들을 바라보고 나는 공평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보라 이를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내가 존재함같이 진실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 24-27)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1900년에 이미 이 복지 사업의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신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것들은 분리될 수 없읍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몸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한 쪽이 없이 다른 한 쪽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읍니다.

“말일성도는 영적인 구원의 복음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구원의 복음도 믿습니다. …실제로 선량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며 근면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들이 선량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면의 복음, 경제의 복음, 절제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메저렛 출판사, 208-9 페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1936년에 대관장단이 현재의 복지 계획의 형태로 이 개념을 재확인시켰을 때, 그들은 단지 당시의 세대에게 이상적인 시온을 건설하기 위한 보다 완전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세대에 와서 그들의 말씀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읍니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게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을 없애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겸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읍니다. 교회는 스스로 돋는 자를 돋

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대회 보고, 1936년 10월, 3페이지)

대관장단이 의도한 바는 오해할 부분이 없읍니다. 이 복지 사업은 성격상에서는 의적인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영적인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인간을 위하여 제정된 사업이며,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 사업의 장기적인 목적은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각자에게 깊이 잠재되어 있는 가장 좋은 성품을 기르고,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인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게 하는 데 있읍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 스테이크 부장단 특별 모임, 1936년 10월 2일)

세계 각지를 여행하여 사람들을 만나 볼 때 우리는 많은 회원들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이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의 성취는 육신의 정복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교훈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필요 사항을 둘보도록 격려할 때 그들이 훌륭한 성품을 갖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됩니다. 도움을 주는 자가 그들의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자신의 욕망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될 때, 복음의 힘이 그들의 생활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현남의 윤법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신체적인(물질적인) 구원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감사하는 태도로 받는 자는 참된 시온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써 물질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모두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자립하여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계획입니까! 시온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치장을 하게 해 주는 이 복음의 원리에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복지 사업이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것은 실천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생활의 가장 유품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이 사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원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믿고 있는 이 사업의 근본되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척도는 넓은 의미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척도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 34—35. 모로 7: 44—48; 뉴 10: 25—37, 14: 12—14 참조)

둘째는 봉사입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구원하며,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끊주린 자들을 먹이고, 예언의 영에 따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 4: 13)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 27)

셋째는 일입니다. 일은 행복, 자기 존중,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일은 모든 성취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태만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 3: 19 참조) 실업 수당으로 물질적, 사회적, 정서적, 또는 영적인 복지를 얻으

려는 의도는 얻기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일은 교회 회원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생활의 신조이어야 합니다. (교성 42:42; 75:29; 68:30-32; 56:17 참조)

넷째는 자립심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그 회원들에게 자립하고 독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교성 78:13-14 5:8 참조)

각 사람의 사교적, 정서, 영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은 우선은 그 개인에게 있고, 다음은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세번째로는 그 사람이 교회의 충실향 회원인 경우에 교회에게 있습니다.

참다운 말일 정도라면, 신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지와 가족의 복지에 대한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주님의 인도와 자신의 노력으로써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서 필요 사항을 자신과 가족에게 충족시킬 것입니다. (딤전 5:8 참조)

다섯째는 현납입니다. 이것은 희생까지도 포함합니다. 현납이란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돋기 위하여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 사업을 통하여 회원은 생산 사업에서 노동함으로써, 데져렛 산업에게 물질을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적인 재능을 나눔으로써, 관대한 금식 현금을 바침으로써, 그리고 와드와 정원회의 사업에 응합으로써 현납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은 가정 복음 교육, 또는 방문 교육으로 시간을 현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칠 때 곧 현납하는 것입니다. (엔사인, 1976년 6월호, 3-6페이지 참조)

여섯째는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청지기의 직분이란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한 영적, 물질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족과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교성 104:11-15 참조) 충

실한 청지기란 의롭게 관리하고, 자신을 돌보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자입니다. (교성 104:15-18 참조)

이상의 원리가 복지 사업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모두 배우고, 순종하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원에게 가르치시고, 가장 되시는 분은 가족에게 가르치십시오. 이 진리를 적용시킬 때에 비로소 이상적인 시온이 건설될 수 있읍니다.

시온이란 주께서 그의 성약의 백성에게 주신 이름으로,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실망하는 자를 성실하게 돌보는 자를 말합니다. (교성 97:21 참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 (모세서 7:18)

신권 사회에서 가장 높은 이 반차는 사랑, 봉사, 일, 자립, 그리고 청지기의 직분 등 현납의 성약으로 둑여진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대로 생활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활동과 프로그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여러분 해 동안 우리는 개인과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당히 강조해 오고 있읍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이 이 지시에 대하여 잘 응하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를 바랍니다.

상호부조회에서 “계약하는 생활”로써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절약하는 것, 재정 문제를 혼명하게 계획하는 일, 개인의 전장에 대한 예방, 교육과 사회 진출을 위한 적절한 준비, 가정 생산 및 비축에 대한 적절한 관심, 그리고 정서면에서의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밭을 갖고 있다면 식품

비를 절약할 수 있고 신선한 파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딸이 밭에 나가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으면서 주고 받는 이야기의 가치를 누가 해 아릴 수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잘고, 수확하는 영원한 윤법의 교훈에서 오는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적인 통조림을 만들기 위한 가족의 단결과

노래 부를 찬송곡을 알려주는 킵볼 대관장 : 뒷면에 태버내클의 거대한 파이프가 보인다.

협동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자원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얻는 더욱 큰 이익은 겸소하게 생활하고 우리의 자녀에게 개척자의 유산을 물려줄으로써 배우게 되는 생활의 교훈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의 예산을 세우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함께 세워보고, 그 과정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십대의 아들이 여름 방학 동안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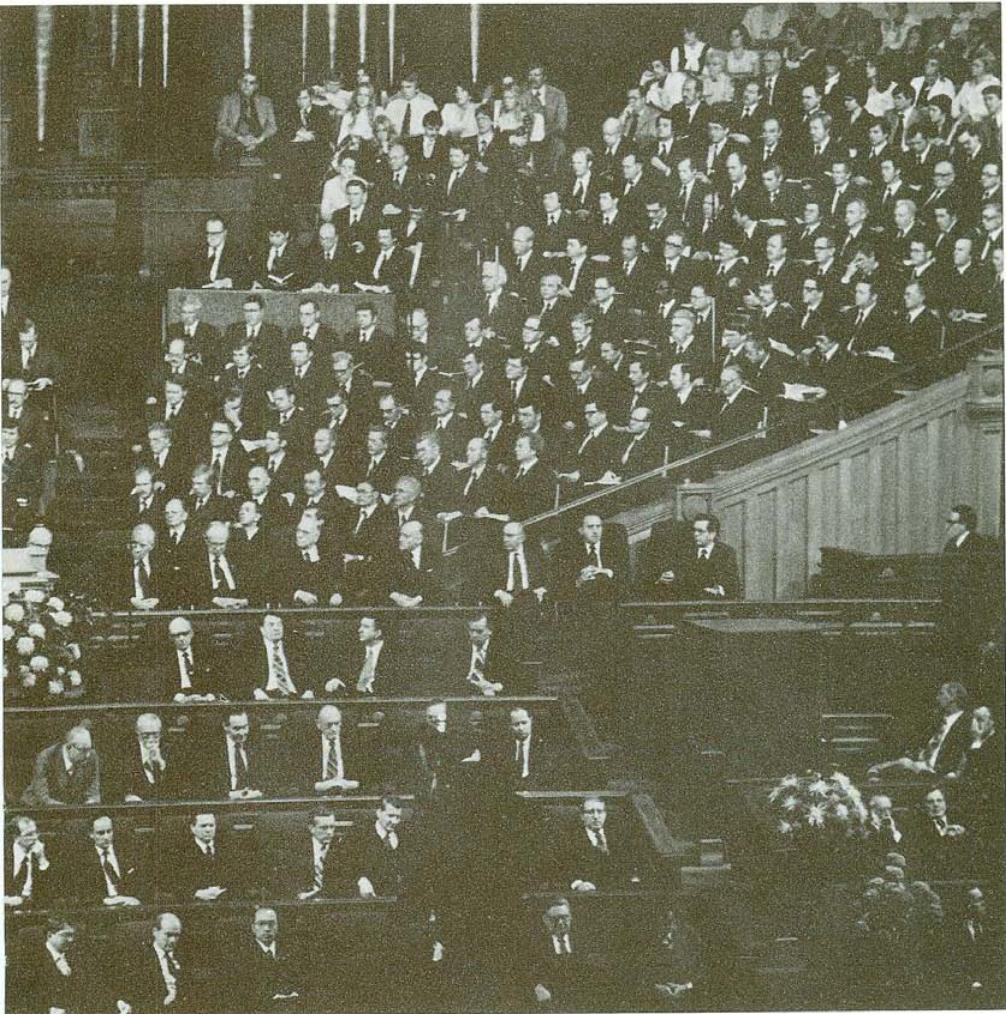


을 하여 낡은 냉장고를 바꾸는 일에 돋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보다 나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맹 퇴치와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진, 교회 잡지, 그밖의 모든 종류의 양서를 읽을 수 있는 기쁨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기도, 친절한 말, 완전한 대화 등을 통

하여 정서적인 힘을 기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바르고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생활할 때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쉽게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유대인의 전통(짐승을 통제 구워 신 앞에 바치는 의식)나 재앙에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얻는 생활 방식을 발전시



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는 옳은 것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권고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이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일에 대비할 수 있으며, 주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위로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참으로 시온의 스테이크는 “폭풍우가 내리칠…때에 방어진이 되며…대피소가”(교성 115:6)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혁명하고 겸소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개인과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개념을 올바르게 배우고, 실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금식의 법에 관련하여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자발적인 금식 현금을 바쳐야 합니다. 이 현금은 적어도 두 끼를 금식하고 그에 해당되는 식비를 바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조반으로 계란 하나를 먹으므로 불과 식사 비용이 몇 센트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풍족할 때에는 식사비의 몇 배로 판대하게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단 두 끼니의 식사비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만 하다면 몇십 배라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대회 보고, 1974년 10월, 184페이지)

금식 현금은 가난한 자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금식 현금에서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현금이 충당될 수 있고, 복지 생산 계획에서 필요 한 생필품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보다 판대하게 금식 기금을 바칠 때 우리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개인 및 가족의 책임에서 교회의 공

식 복지 활동의 책임(때때로 교회 예비 프로그램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나 창고 자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으로 화제를 옮겨 몇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강조하겠습니다.

1. 교회의 원조를 받는 자에게 그들이 받은 도움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일하고 봉사하게 하십시오.

2. 훌륭한 분별력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복지 생산 계획을 확보하고 운영하십시오. 우리가 비단 음식과 상품만이 아니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질서있고 겸소하게 행하십시오.

3. 개인과 가족이 어느 정도 한도에서 자신들을 돌볼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영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4.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지역의 전문가를 활용하십시오.

5. 끝으로 정규적으로 모든 행정 단위에서 효과적인 복지 사업 위원회 모임을 가지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위대한 사업에 매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너무도 많은 일이 우리의 자발적인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와 단계는 우리 자신에게나 주님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됩니다.

현재 봉사하고 계신 지도자되시는 여러분은 과거 여느 세대의 지도자와 같거나 그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은 교훈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현납과 극기로써 구세주를 여러분의 생활에 받아들여 보다 영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자들 중에 이보다 더 행복한 자들이 없었더라”는 기록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이 사업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이 모든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복지 사업에서의 감독의 역할

매리온 지 르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감독과 신권 정원회의 임무는 회원의 물질적 및 영적인 복지를 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게 되도록 함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30, 40년전에 주로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며, 직접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모두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복지 사업에 관계되는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독의 역할이고, 둘째는 신권 정원회의 책임이며, 셋째는 교회의 복지 사업과 일반 복지 사업의 차이점입니다.

감독의 역할

교회가 두 돌을 맞기 전인 1831년 12월에

주님은 감독의 책임이 “주의 창고를 지키며 …교회의 기금을 받으며” 그것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교성 72 : 10, 12)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 달 후 주님은 감독의 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 내며 부유한 자와 교만한 자를 낮추므로 써 저들의 부족량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라.”(교성 84 : 112)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감독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습니다. “감독에게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다.” 그는 “모든 물질적인 일을 조정합니다……감독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지녀야 합니다. 감독은 ‘교회의 기금을 받으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가난한 자를 찾아 내어… 저들의 부족량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감독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교리와 성약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는 모든 권세와 책임이 부여되었읍니다. …이 임무와 책임은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도 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권세와 기능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명령과 분별력이 감독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기금이나 와드의 재원으로 와드의 어떤 회원에게 언제, 얼마만큼의 원조를 해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감독만이 지니고 있는 책임이며 임무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감독의 고귀한 임무입니다. 감독은 이 임무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이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도움의 요청이 오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독과 상호부조회”, 제이 루벤 클라크, 1941년 7월 9일)

킴볼 대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지시가 주어진 이후,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더나 오늘날의 지침서나 다른 책자에서도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독 지도서에는 감독의 5가지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복지 사업 책임자”입니다. 이 지도서의 24~26페이지에는 감독이 행해야 할 구체적인 임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감독은 복지 사업 지침서에 수록된 이 부분의 지시 사항을 읽고 연구하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복지 사업 기구를 통하여 회원의 영적 및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올바르게 돌보아 주려면 감독은 각 와드 회원의 필요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와드 회원의 필요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중요성에 관하여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1944년 10월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감독이 와드 전체를 자세하게 살펴보아 도움과 설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둘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홀하게 행해져서는 안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는 합당한 권능을 지닌 사람이…와드 내의 모든 가정을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감독 자신이 방문하여, 와드 내의 궁핍한 자에게 합당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교회 복지 계획의 원리”, 감독 모임, 1944년 10월 6일, 567페이지)

훌륭한 감독은 와드 회원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관하여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감독은 와드 내의 신권 및 보조 조직이나 와드 회원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독은 와드 상호부조회,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 그리고 신권 가정 복음 교사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와드 회원의 필요 사항을 알아야 하는 것 이외에 감독은 개인이나 가족이 어느 정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지 사업의 근본 원리입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행해 준

다면, 그것은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 사업의 목적은 “자립심, 근면, 자기 존중심”을 양양시키는 데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립 능력을 인정하여, 온 힘을 다해 일함으로써 자립하여야 합니다.

한 개인의 자립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그 사람 자신에게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에게 있습니다.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 부모에 대하여는 자녀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궁핍한 부모를 도우려 하지 않는 자녀는 배운 망덕한 자녀입니다.

끝으로, 개인이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였고, 그의 가족이 그를 돋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 후에, 교회는 복지 사업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능력껏 일하겠다는 이러한 회원을 둘보아 “가족 수와 형편과 부족량과 필요량에 따라” 도움을 주게 됩니다. (교성 51 : 3)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결정한 다음, 감독은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에서는 감독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는 이러한 면에서 혜아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비활동 감독이란 바로 이 주례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 모임을 갖지 않는 감독이라고 말씀하시던 리 대관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비활동 감독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비활동 감독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음 주부터 이러한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사회 사업에 관하여 1970년 10월에 있었던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교회의 많은 회원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풍족한 사회에서 우리 회원에게 부딪히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어 왔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냐하면 이러한 기관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시대의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은 의복이나 음식 보다는 상담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감독을 통하여 교회의 사회 사업 기구로 문제를 의뢰하도록 천거된 회원은 그들이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신권[생산]프로그램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신권 정원회의 책임

복지 사업에서의 감독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특히 스테이크 부장되시는 분들께 복지 사업에 있어서 신권 정원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신권 정원회는 감독과 같은 임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필품을 생산하고 물품을 모으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신권파의 관계, 고결한 정신, 비이기적인 형제애 등은 정원회 회원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혹은 정원회 전체적으로 그들의 물질과 힘을 회생하여, 불행에 처한 형제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감독이 모든 궁핍한 자들이 스스로 자립 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물질적인 문제를 돌보아 준다면, 신권 정원회는 불행에 처한 형제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술가나 수공 기술자가 직업을 잃었을 경우, 감독은 그들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신권 정원회는 그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그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돌보아 주고 그가 신권의 임무에 활동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복지 사업에서 이 분야에 우리는 더욱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으로부터 받는 도움은, 도덕적인 면과 영적인 면은 단지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개인의 복지가 아닌 국가의 복지는 원조의 종류와 그 액수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도움의 배후에는 특별한 이익—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지지—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참재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퇴폐적인 원조는 국가와 개인을 파괴시키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교회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원조에도 때로는 가장 순수한 동기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종교적 계명과 훈계에 따라 원조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조에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조에는 분명한 이기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참된 종교인임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조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으로부터 나오는 도움은 이와 같은 원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교회는 공공연하고 직접적으로 교회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아야 하며, 감독이 이 계명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책임 수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 특권, 그리고 기능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돌보는 표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주의 창고를 지키며, … 교회의 기금을 받으며, … 부족액을 처리해” (교성 72 : 10-11) 주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울법을 주셨습니다. “내에는…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 …”

“모든 자녀는… 양친에게 양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장성한 후에 저들은 교회에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주의 창고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느니라.

“이 창고는 교회 회원의 현물로 유지되나니, 과부와 고아는 이곳에서 지급을 받으며 가난한 자도 그려하니라.”(교리와 성약 83 : 2, 4-6)

주님은 불행에 처한 형제들을 돌보기 위하

여 물품을 확보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감독에게 “가난한 자를 찾아 내며 부유한 자와 교만한 자를 낮춤으로써 저들의 부족량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교성 84 : 112)

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 부자에게 화 있도다. 너희의 재물이 너희 영육을 썩게 할 것임이라. 주께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분노하시는 날에 애통하며 울부짖기를 추수는 끝나고 여름이 지났으나 나는 구원받지 못하였도다 하리라.” (교리와 성약 56 : 16)

공공 사회 단체에서 주어지는 원조나 사적으로 주어지는 원조를 궁핍한 자들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읍니다. 받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은 상하지 아니하고, 심정은 애통하지 아니하며, 배는 만족을 얻지 못하며, 손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여 놓지 아니하며, 눈에는 탐욕이 가득하며, 제 손으로 몸소 일 하여 하지 아니하는 너희 가난한 자에게 화 있도다.” (교리와 성약 56 : 17)

주님의 계획에서는, 도움을 주는 자에게 오는 보상은 그리 많지 않아서 가난한 자를 돋는 자에게 축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돋지 않는 자가 축복을 잃게 되리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なり.” (교리와 성약 52 : 40)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자기의 뜻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 (교리와 성약

104 : 17—18)

그러나 주님의 계획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도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물질적인 도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만, 시기, 절도, 탐욕 그리고 나태함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공공 사회 단체나 개인이 사적으로 베푸는 자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을 지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들을 구원하려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임이라. 땅의 풍족한 것이 저들의 것이 되리라.

“보라, 주께서 오시리니, 보옹을 가지고 오실 것이요,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보상하시리니, 가난한 자가 기뻐하리라.

“보라, 저들의 세대는 대대로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라.” (교리와 성약 56 : 18—20)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주된 임무는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방문하여, 남편이 아내를 돌보듯이,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들을 구제하여야 합니다. 감독은 창고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영적으로는 그들이 마음을 청결케 하고 상한 심령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돈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활 수준으로 이끌어질 수는 없읍니다. 궁핍한 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궁극적인 영적 상태로 축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감독과 스테이크부장은 자신의 임무를 완전히 파악하여, 이 위대한 사업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온의 구속 사업으로 온전하게 수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아멘. *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현금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금식을 성스럽게 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음식과 의복을 거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며, 그의 현급으로 인하여 성별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주님께 바치는 현금에 관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분은 오늘 아침에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조반으로 계란 하나를 먹으므로 불과 식사 비용이 몇 센트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풍족할 때에는 식사비의 몇 배로 관대하게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단 두 끼니의 식사비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만 하다면 몇 십 배라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6개월 전에 킴볼 대관장님께서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주신 이래 금식 현금의 액수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기금은 세계 각처의 교회 회원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금의 원조를 받은 사람은 물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준 사람은 더욱 크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발적으로 현금을 바칠 때 우리는 현금 보다 훨씬 가치있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즉시 우리를 축복하” (모 2:24)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빚을 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복지 사업과에서 함께 일하는 제임스 오 메이슨 박사가 한 개발 도상 국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10대의 소년이 그에게 킴볼 대관장님께 전해달라고 선물 하나를 가져 왔습니다. 선물이란 꼬리를 활짝 편 공작 그림이었습니다. 깃털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도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소년의 채주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메이슨 박사에게 그 소년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메이슨 박사는 그 소년의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금식의 법

빅터 월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금식은 금식을 행하는 자와 도움을 받아야 할 자 모두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영원한 윤법과 마찬가지로 금식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도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금식의 법을 올바르게 지킨다는 것에는 목적이 있는 금식, 기도, 행동하겠다는 결의, 현급 등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금식의 법을 온전하게 지킬 때, 금식의 법은 금식하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위치에 선 사람에게 모두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상호간의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두 팔이 없는 불구였습니다. 출생시부터 불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발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우고 그토록 아름답고 정묘하게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년에게 인조 수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교부장에게 기금은 있으나 그 소년의 가족이 할 바를 다 한 후에라야 도와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의 가족이 복지 사업의 원리를 따라 준행하였음을 확인한 후에 우리는 소년에게 기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후에 우리는 새로 얻은 두 팔과 손이 있는 그 소년의 사진을 받았으며 사진과 함께 스스로 웃을 입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소년의 감사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은 금식의 법을 지키고 현금한 자들로 인하여 크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달 금식의 일부로 자발적인 현금을 바쳐야 하는 원리를 재강조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원리를 완전히 지키는 기회를 갖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금식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를 볼 보기 위한 물질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에서의 의로운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 줍니다. 경전에는 금식의 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판사직을 거절했던 앤마의 금식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읍에서 영적인 성공을 거둔 앤마는 앤몬아이하라는 곳으로 여행 하였습니다. 경전에는 이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앤몬아이하 성 사람들의 마음을 그의 수중에 넣어 크게 어지럽히니, 저들이 앤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더라.”(앨마서 8:9)

앤마는 영적인 많은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성읍의 백성들은 그를 욕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앨 8:13 참조)

그가 그곳에서 떠나 다른 곳을 여행하고 있을 때 그는 주님의 사자를 만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그곳 주민에게 회개를 외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앤마는 주님의 사자의 권고를 따랐습니다. 앤마는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려 날 동안 금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앨 8:26 참조)

그의 금식은 거의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앤마는 그의 앞에서 길을 마련해 주는 의로운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성읍으로 들어가자 그는 어느 낮 선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낮은 종이오니다. 무엇 먹을 것 좀 주시지 않겠나이까?”하고 청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천사가 시현으로 당신을 내게 알려 주시었으매 당신이 하나님의 성스런 예언자임을 아나이다. 이제 당신을 영접 하겠사오니, 내집으로 함께 가시면 음식을 나누어 드리겠나이다.”(앨 8:19-20)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자를 영접하도록 마련되고, 그의 일을 함께 할 앤율레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식의 결과로 앤마는 앤율레크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이 그를 돋는다는 확신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며, 그리하여 주님의 사업을 하고 싶은 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앤마는 금식을 마친 후에 앤율레크와 함께 앤몬아이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놀라운 사업을 행하였습니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사악함은 극심하여졌습니다.

금식에 관한 가장 위대한 교훈은 구세주 자신이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십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떠명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눅 4:2-4)

악마는 계속하여 여러 가지 꾀를 써서 구세주가 그의 사명을 저버리도록 유혹하여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눅 4:8)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찰릴리에 물아가시니”(누가복음 4:13-14)

금식의 법대로 생활한 이러한 예는 우리에게 몇 가지 기본되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금식을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그의 성역을 베푸는 기간 동안 필요한 내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금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금식의 법은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실천하여 할 때, 이와 같이 유혹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엘마는 그가 성공하지 못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엘마가 그의 사명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간증을 한 후에 주님은 위대한 힘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식의 이점을 취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생활하는 데에는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규적으로 매달 하는 금식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금식이거나, 계속적인 두 끼의 식사를 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금식을 하기에 합당한 목적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1. 구세주가 한 바와 같이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하여 :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려주며 암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쳐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야 58:6)

2.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돋기 위하여 :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야 58:7)

3. 생에 있어서 성공을 쟁취하기 위하여 :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이사야 58:8)

4.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

이사야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통하며 괴로와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밟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뱀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삼 갈을 것이다”(이사야 58:9-11)

금식과 기도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시작하신 예배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며 금식할 때 우리는 참된 목적을 말하게 되며, 최선을 다해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모든 복음의 원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행동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원리가 요구하는 바를 실제로 행하여야 합니다. 금식과 기도를 함께 행함

은 그 자체가 신앙의 기도입니다. 행함의 원리는 경전이 전해 주는 귀한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앤마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권세로써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도 금식으로 강화되었으므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금식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선을 다해 행할 때에 금식은 가장 크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때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감정이나 태도를 바꾸고 버리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의로운 목표를 향하여 용서하고, 강해지고, 회생하며,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36년전 이 대회에서 말씀하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해마다 수입의 10분지 1을 바칠 만한 회생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매달 첫주일에 두끼를 금식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현금으로 바칠 수 있을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나는 성도 중에서 협동 교단을 위해 준비된 자들이 10분1 이상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설명하신, ‘주님의 방법’이 적용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가 높아지는 때, 다시 말해서 성공과 자부심으로 정신이 높이 고취되는 때, 부자가 낮아지는 때, 다시 말해서 부자가 겸손하여지고 그들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지혜와 모범을 기꺼이 주어 가난한 자를 인도하고 지침을 줄 때가 이르렀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한 팀으로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신권이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십일조의 법을 지킬 수 없고, 금식 현금을 바칠 수 없으며, 전심으로 복지 사업 계획에 참여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나 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해의 왕

국의 율법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대회 보고, 1941년 10월, 112-14페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로써 우리는 36년전의 사람들보다 현재의 우리가 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계의 신권 소유자와 상호부조회 역원 되시는 여러분께서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시해 주신 보다 높은 율법대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보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복지에 관한 신권 정원회의 책임

고든 비 힙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모든 신권 정원회는 고통받는 회원을 도와
줄 전문 기술과 지식과 관심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 내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
사하고 있었을 때의 경험담 한 가지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는데, 그 전화의 내용은 그의 와드
회원 부부가 이혼하여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별없이 월부로 물건을 사들였기 때문에 그
들 부부는 계속 돈 문제로 다투어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끊임없이 채권 압류 통
고의 위협을 받았으며, 아내는 월부금 수금
원의 독촉때문에 집에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까지 저당잡혀 곧 집을 비
워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 남편은 아내에게 금전 관리를 할 줄 모
른다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
에게 돈을 뜯어 온다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이들에게 긴급한 필요 사항을 돌
보아 주었고, 그들이 예전과 같은 상호간의
사랑과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도 해
주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감독으로서는 그
들을 도울 수 있는 만큼 했다고 그는 말하
였습니다.

나는 그 남편이 신권 정원회에 소속되어 있
는지를 물었습니다. 감독은 그가 장로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감독은 정원회
회장단을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가 인비 사
항으로서 토의되었습니다. 정원회 회장단은
이 가족을 도울 위원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가, 회계사, 채권담당자,
정원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었던 것
으로 기억됩니다.

다음에 이들 부부가 감독에게 소환되어 그
들의 재정 문제를 이들 형제들에게 맡겨 보
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들 스스로가 짚어지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
을 이 위원들이 둡겠다는 이 제안에 감격하
여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에 지명된 사람들을 찾아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지불해야 하는 금
액은 한달 수입의 거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형제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약간 불리한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동차 두 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밖에 처분할 수 있는 품목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여러 채권자를 불러서
사실을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남편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찾아온 채권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설명해 주었고, 각
채무를 하나씩 갚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들은 채권자들에게 그들이 가족의 재산을 관
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고, 이 확신과 위
원회 위원이 전문가라는 분명한 인식을 받

은 채권자들은 순순히 돌아갔습니다.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예산 편성의 원리, 재정에 관한 책임, 그리고 금전 관리 등을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마무리 짓는 데에는 여러 달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생활에는 새롭고 만족스러운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채권자들은 이자율을 포기하고 원금만을 받았습니다. 집이 저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다시 것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원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경험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 해 전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펴는 일에 있어서 신권 정원회는 감독과 꼭같은 임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권의 관계, 고결한 정신, 비이기적인 형제애 등은 정원회 회원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혹은 정원회 전체적으로 물질과 힘을 회생하여, 불행에 처한 형제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돋보이게 하여 줍니다.

감독이 모든 궁핍한 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물질적인 문제를 돌보아 준다면, 신권 정원회는 불행에 처한 형제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물보아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술가나 기술자가 직장을 잃었을 경우, 감독은 그들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신권 정원회는 그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그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지켜 보고 그가 신권의 임무를 활동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감독과 상호부조회”, 1942년 7월 9일, 17-18페이지)

클라크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조는 궁핍한 형제의 실질적인

필요 사항과 문제를 돋는 갖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지어 준다거나, 적은 규모의 일을 시작하게 하거나 예술가인 경우에는 예술 도구를 마련해 주거나, 농부의 경우에는 씨앗을 주거나, 씨뿌리는 일과 타작 일을 돋겨나, 채권상의 진박한 문제를 충족시켜 주거나, 의복, 잠자리, 음식, 의료품 등을 제공해 주거나, 자녀의 학교 문제를 돋겨나, 그밖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에스테스 파크에서 행하신 연설, 1939년 6월 20일, 20페이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모든 신권 정원회에는 올바르게 활용하기만 하면 곤란을 당한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 지식, 힘 그리고 관심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학가 관중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한끼를 먹게 할 수 있으나,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복지 사업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개인이나 그의 가족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감독의 책임입니다.

궁핍한 자가 계속적으로 자신과 그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힘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신권 정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 해 전,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권 정원회는 그들의 힘을 모아 신권의 정신과 힘으로써,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이 정원회의 도움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임프로브먼트 이라, 1937년 10월호, 634페이지)

신권 정원회는 일요일 오전에 신학을 공부하는 반 이상의 것으로 주님이 계획하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물론 효과적인 복음 교육을 통하여 영성을 확립하고 간증을 강화시키는 것도 신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원회 기능의 일부에 지나

지 않는 것입니다. 각 정원회는 모든 회원에 대한 형제애로써 일을 해야 그 목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원리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가르칠 때 그러한 가르침은 예방 복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으로 준비된 정원회 회원과 그의 가족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잘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재정 및 자원 관리, 가정 생산 및 비축, 그리고 물질적, 정서적 및 영적인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활동을 육성하는 가르침은 정원회 회장단이 회원을 위하여 갖는 합당하고 합법적인 관심사입니다.

더우기 정원회는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이 복지 생필품을 생산하고 확보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훈련된 인력 자원입니다. 무우를 가꾸고, 건초를 모으며, 울타리를 만들고, 그밖에 복지 사업에 필요한 수많은 일을 기꺼이 수행하려는 강한 손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정원회입니다.

우리 스테이크의 정원회 역원 한 사람은 한 기업의 고용인이었으며, 그 기업의 기업주 역시 정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기업주는 일주일의 24시간 동안만 정원회 회장의 고용주였습니다. 이 정원회 회장은 그의 사장인 기업주에게 새벽 5시에 스테이크 농장에 나와 밭을 일구도록 지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직분상에서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였읍니다. 그들은 함께 형제애를 나누며 일하였읍니다.

이 기업인이 속해 있는 정원회에는 그의 다른 고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정원회는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의 팔로서, 효과적인 직장 알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실직자들이 직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잠재력이 있는 사람의 대우가 개선되었읍니다.

1831년에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장로들에게 교회를 돌아보도록 책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

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なり.” (교성 52 : 40)

각 정원회는 지명된 가정복음 교사를 통하여 모든 회원의 가정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권회 형제들은 가르칠 책임 뿐만이 아니라, 묻고 배우고 심지어는 성령의 힘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질의 필요 사항이 파악된 경우, 이 사실은 감독이 주축이 되는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감독의 지시와 상호부조회의 협조를 받아 긴급한 필요 사항을 들보아 줄 자원을 활용하게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하여 정원회 회장의 지시를 받아 장기 구제 방안이 제시됩니다.

형제 여러분, 상호부조회가 교회 여성을 위한 주님의 조직이듯이, 신권 정원회는 교회 남성을 위한 주님의 조직입니다. 여기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은 궁핍한 자를 도와야 하는 조직의 근본 목적의 책임을 지니고 있읍니다.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을 때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그들은 길 손을 구제하는 일에 기꺼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낙담한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줄 것입니다. 그들은 고아의 눈물을 마르게 할 것이며, 과부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비 에이치 로버츠, 교회사 요해, 4 : 112) 이 말씀이 신권 소유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권 정원회가 정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회원 각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때야 말로 놀라운 날, 주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정원회 회원입니다. 나는 나의 형제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 역시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약된 아들로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당황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언제 불어 닥칠지도 모르는 적대 세력에 굳건히 견디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는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이 실현되도록 우리의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가장의 임무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관리 감독단 제1보좌



아버지는 가족의 행복, 번영, 복지를 돌보도록 주님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복지를 돌보아야 하는 가장의 임무에 관하여 말씀하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한 끝에,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려야겠다

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가정의 수가 교회에서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자신의 임무 뿐만이 아니라 가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족이 절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이 가족의 부지를 소홀히 하게 되는 이유로는 대개 이혼, 부의 추구, 성스러운 책임에 대한 무관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생애에서 가장은 결코 그의 책임에서 해임되지 않습니다. 감독은 부름을 받아 얼마 동안 봉사하다가 해임이 됩니다. 스테이크부장도 부름을 받아 봉사하다가 해임됩니다. 그러나 가장의 부름은 그가 합당하게 생활하기만 한다면 영원한 부름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

복지라는 단어의 정의는 “행복, 번영 그리고 복지”입니다. 가장의 임무는 가족 각 사람의 행복과 번영과 복지를 돌보는 것입니다. 가장은 “자신을...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이 가족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족의 필요 사항을 볼 때마다 이를 돌보아 주며 그러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물

론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세대주가 이 임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브리감 영이 그의 아들 조셉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에서 아버지가 주어야 하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켈리포니아에 있는 금을 다 준다 해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감사함을 살 수 없을 게다. 네 엄마가 엄마 대신 몇 자네에게 적어 달라고 한다.

어머니 전 장은 여전하시다. 썩 좋은 편은 못되나 밥듯 일을 하실 때가 종종 있다.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하고 있는 너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서 대견스럽기만 하다. 늘 성실하거라, 네가 나 잘 때는 어린 아이였지만 돌아올 때는 구원의 장로로 돌아올 줄 믿는다.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거라. 네 앞에서 네 아버지가 그러하였다. 나는 늘 너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단다. 나는 네가 그려 할 것으로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를 축복해 주시길 빈다.

“너를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브리감 영”

(던 제시, 아들에게 보낸 브리감 영의 편지, 16페이지)

메릴랜드, 애너폴리스의 해군사관 학교에 다니던 아들에게 보낸 영 대관장님의 또 다른 편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야 하는 물질적인 면의 지도력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보아라,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네가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기록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할 때, 네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 정확성, 그리고 사업적인 습관을 얻게 된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많은 부분이 가치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잘 수행하는 것임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다. 밭을 잘려면 잘

갈아야 한다. 풀무를 돌리려면 잘 돌려서 쇠를 달구어야 한다. 우리를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이다. 보다 잘 행할 수 있고 인생의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기 위하여 지식을 얻기에 힘쓰거라. 그러나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노력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거라… 아버지, 어머니, 형, 누이, 친구들, 그리고 형제들 모두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브리감 영으로부터”

(제시, 서한, 305-6페이지)

가정에서 아버지는 가족과 가까이하여 그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절으로 보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가족 각 사람과 개인 접점을 가짐으로써 아버지는 가족의 필요 사항을 평가합니다. 나는 매우 자녀들과 개인 접점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말에 진실로 귀를 기울이는 순간은 두 사람에게 쉽게 잊혀질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져 대화를 이끌고는 편히 앉아서 자녀의 말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귀와 마음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언자 요셉 스미스의 아버지가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머리속에 그려 보십시오.

스미스의 가족은 농부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뉴잉글랜드 지방에는 일손이 모자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로 농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스미스는 아들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모두 필요로 하였습니다. 의심할 여

지 없이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 밭에서 일하였읍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있던 어느날 소년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와서 그에게 있었던 기이한 시현의 경험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스미스는 할 일이 많으니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어서 일하려 나가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멈추어 서서 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자들이 명한 대로 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두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녀들은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주의를 완전하게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할 바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께 보다 잘 준비된 귀기울이는 아버지가 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게든 나쁘게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행동과 사상을 배웁니다. 벤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자녀는 우리를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모범은 우리 자녀 앞에 비춰 주는 가장 큰 빛이 됩니다. 우리는 그 빛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효과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곧 복음의 원리를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서는 가족에게 그 원리를 믿게 하기는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받아 보지 못하고 자란 자녀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능력을 갖게 되겠습니까?

신뢰를 받지 못했던 자녀에게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을 신뢰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의 원리와 그밖의 복지 프로그램의 원

리를 가정에서 실제 모범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서 어떻게 자녀가 그러한 영원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든 복음의 원리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참여하고 모범을 보는 것 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가족에게 영적, 물질적인 지도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생활방식에 따라 좌우됩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날 때에 비로소 효과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향상 과정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 휴비 브라운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하며, 각 사람은 영원토록 함께 교류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지금이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때입니다.”(밀레니얼 스타, 1964년 2월, 126 : 51)

형제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재정 및 자원 관리, 건강, 정서적인 명랑성, 사회 진출 계획, 문명 퇴치 및 교육, 가정 생산 및 비축 등의 원리와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시기로 지금은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녀의 이야기에 보다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 의로운 축복사로서 가장의 위치를 지키기에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시기입니다.

오늘 모든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말한 높은 사명을 감당하리라는 결심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벧전 2 : 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뼈며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여성이 봉사해야 할 우선 순위는 첫째, 가정, 둘째, 교회, 셋째, 지역 사회입니다.

잠 언에는 이상적인 아내요, 어머니요, 근검한 주부요 봉사적인 여인의 모범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그 여인을 묘사한 다음 성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뼈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잠언 31:20)

복음의 근본되는 원리요, 복지 사업의 기본이 되는 가치이며, 복지 사업과 상호부조회가 전통적으로 옹호 온 원리는 봉사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여성은 이제 봉사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호부조회가 여성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와 희생을 요구했던 고난과 펩박과 역경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부 시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낙담한 자들에게 위로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병자를 간호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했다는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말일성도 여성의 봉사는 급속히 발전해 가는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나날로 복잡해 가는 문제로 가득한 사회에서 나할 것 없이, 전에 없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지 사업은 자발적인 봉사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봉사의 많은 부분이 여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우선적으로 봉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은 가족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일로 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정이 강해야 사회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여성에게 있어서 가정 다음으로 중요하며, 지역 사회에서의 봉사는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영역에서 또 다시 봉사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합당한 신권의 권능을 소유한 자가 신중하게 가족 상황과 기타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한 후에 부르는 공식적인 부름이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이러한 부름은 역원, 교사, 방문 교사, 선교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직책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봉사는 얼마간의 기간 동안 계속되리라고 기대되는 봉사입니다.

공식적인 부름 이외에 공식적인 임무 지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행하는 봉사의 전반적인 분야가 포함됩니다.

공식적인 임무를 지명하기 전에 신권 지도자나 상호부조회 지도자는 가정에서의 책임과 교회의 부름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게 합니다.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은 다른 사람의 특별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선 봉사를 하도록 개인적으로 요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것은 공식 요청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어떤 와드에 70세 이상의 자매들이 70여 명이 있다는 말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들의 현명한 상호부조회 회장은 이들 집에만 있는 고령의 자매들을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 70명을 일일이 방문하여 방문 교육 임무 또는 자선 봉사를 지명하였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자매까지도 집에만 있는 세 자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써 보도록 지명했습니다. 어떤 자매에게는 매일 다른 자매에게는 전화하여 건강과 안부를 묻는 임무를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매는 그녀가 병을 앓아 움직일 수 없을 때에도 계속 방문 교사 관리자로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녀의 상호부조회 회장은 그 자매가 매달 전화를 하기 전에 자신의 가장 예쁜 옷으로 갈아 입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주님을 위한 이 임무를 수행하는 이 봉사가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그와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임무 지명의 범주에는 태�렛 산업 위원회에서의 봉사, 또는 가내 공업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봉사, 또는 복지 통조림 사업에서의 봉사 등이 포함됩니다. 말일성도 사회 사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말일성도 사회 사업에서는 양부모를 앞선해 주고 인디언 학생 배치 프로그램을 돋는 등의 봉사를 행합니다.

자매들은 상호부조회 가사 모임 만찬회에서 위원장으로 봉사하도록 요청을 받거나, 복지 의류를 바느질하도록 요청을 받거나, 병자나 상가에서 봉사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에 상호부조회에서 공식적인 임무를 지명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특별한 과제에 대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는 교회에서 계속적인 직책으로서 행해야 하는 임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임무 지명은 부름이라기보다는 짧은 동안 행하는 일시적인 과제 또는 임

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교회 봉사의 또 다른 분야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단위에서 봉사하는 자선 봉사입니다. 이것은 모든 여성이 이웃의 궁핍한 자의 필요 사항을 공급해 주는 것을 기대하는 봉사입니다.

1975년도 복지 모임과 복지 사업 지침서에서 우리는 와드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 사항과 원하는 사항, 아니라 자매들의 재능과 능력을 명시하는 자원 목록을 제때에 작성해 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기록에는 전문 분야와 봉사할 수 있는 자매의 활용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복지 사업 모임, 1975년 4월 5일, 13페이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은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하여금 자매들을 격려하여 다음 사항을 봉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1. 자료철을 사용하여

가. 자매들에게 상호부조회 봉사를 지명합니다.

나. 관리 또는 조직력에 관한 가사반 소단위 반 또는 특별 훈련반을 제언하여 자매들에게 보다 많은 봉사의 기회를 줍니다.

다. 자매들에게 지역 사회 봉사 계획에 참여하도록 제언합니다.

2. 봉사하고자 하는 자매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 약속 시간, 신체적인 힘 등을 평가하도록 돕습니다. (기혼 자매는 남편과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봉사를 보다 쉽게 행하기 위하여 자매로 하여금 가족과 다른 사람의 협조를 구하도록 격려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책임을 감당하고도 시간과 능력과 힘이 남은 자매를 위한 세번째 봉사의 범주는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봉사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특정한 관심 분야나 전문 분야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합당한 대의를 위한 봉사라면 여성에게 요구되는 봉사의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상호부조회를 설립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대한 통찰력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바라다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지역 사회의 모랄을 바르게 심어 주고 가치관을 강하게 정립함으로써 사회를 도우십시오.”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 모임 기록, 1842년 3월 17일, 7페이지)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교회 부름에 대한 책임으로 지나치게 부담을 지지 않아 자발적인 봉사, 곧 사회를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도덕관을 높여 주는 도구가 되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복지 사업의 원리를 강조할 수 있는 자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의 영역을 “자신”에서부터 비회원인 이웃에게까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은 경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라고 훈계 하셨

습니다. (교성 58:27) 거의 모든 자매는 훌륭한 대업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을 가진 가족의 어머니는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발전에 참여함으로써 또는 가족에게 지역 사회의 훌륭한 대업과 가족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봉사의 기회를 회피하려는 구실을 대거나 아니면 현명치 못하게 지나치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기회를 올바르게 평가할 때에 비로소 “그는 간 곤한 자에게 손을 써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 민 “유덕한 여인”的 모범을 따르는 봉사의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자매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 심령이 가난한 자까지도 — 둘보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아멘. *

새로 부름을 받은 칠십인 정원회 회원 좌로부터 기꾸찌 장로, 부쉬 장로, 피노크 장로



말일의 사마리아인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복지 사업의 표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처럼 복지 사업과 복지의 원리에 관하여 훌륭한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이 위대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이 프로그램에 완전히 참여하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고를 들었으니 온 마음을 다하여 응해야 합니다.

교회 본부 복지 위원회는 대관장단, 심이사도 정원회, 관리 감독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그리고 서기인 웬 가드너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모두 오늘 아침에 대표로 나왔으며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이 현대의 복지 활동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누가복음 10장에 기

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구세주께서는 이 절정의 시대의 복지에 관한 가장 놀라운 교훈을 가르쳐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고 그것과 현대의 복지 사업 활동을 비교해 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울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빼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메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자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풀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25-37)

우리 모두가 이 순수한 기독교인의 홀륭

한 모범을 따른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살펴 보기로 합시다.

첫째,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불쌍한 느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도와 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친절한 사랑은 주님의 영에 감화된 사람은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 이입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대하여 느껴야 합니다. 진실로 구세주께서는 성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에게 보여주는 사랑으로 알려지고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3:35 참조).

둘째,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습니다.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여 부탁을 받지 않고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언자가 즐겨 부르셨던 “슬픔에 잠긴 나그네”(찬송가 96장)에서 우리는 구세주께서 단지 친절한 행위 때문에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자발적으로, 계속적으로, 비이기적인 마음에서 행하여졌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해 주었고 환자의 갈증을 축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응급 처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사마리아인은 “자기 짐승에 태워” —다시 말해서 교통편을 마련해 주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하고 간호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써 그는 상처를 낫게 해 줄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병 고침의 치명적인 단계에서 사마리아인이 다른 사람에게 간호의 일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힘을 희생하여 스스로 간호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전가시키기 쉬운 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영향

력이 큰 모범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사마리아인은 “이튿날에 메나리온들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을 내어 주어, 자기 자신이 돌볼 수 없는 봉사의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데 자신의 물질을 현납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마리아인은 자기 자신의 생업을 계속해야 하였으므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는 다른 사람 즉 전문가가 도와 주고 계속 돌보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덟째, 사마리아인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선 봉사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가 베푸는 도움의 한계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를 그곳에 버려두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노라고 약속한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봉사의 극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여덟 가지의 구제의 단계를 완수할 수는 없을지언정 복지 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성취할 수 있음을니다.

우리는 동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찾을 수 있으며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책임을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감독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교성 84:104-5 참조)

우리는 의료, 봉사, 음식, 거주지, 교통, 그리고 이에 관계되는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상호부조회 회원으로서, 방문 교사로서, 가정 복음 교사로서, 친구로서, 부모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혼신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식 천금 뿐만이 아니라 생필품을 만들고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하며, 유용

한 물품을 기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원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전문가로서 봉사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은 이미 언급된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제의 해결책이 발견되고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 도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시 한 번 온전하게 자립하게 될 때 달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여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일이 있습니다. 모든 신권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복지 사업 원리를 몇 가지 제언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침서에 나와 있는 양식과 관리 신권 역원의 지시에 따라 계통을 세워야 합니다. 올바르게 체계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지 사업 활동은 일관성이 없고 비능률적이 될 것입니다.

2. 우리의 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일깨워 주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3. 준비된 모임 순서에 따라 정규적이며 효율적인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모임을 가질 때 항상 지명된 임무에 대한 보고를 빌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신권 평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확인입니다. 지난 4월 대회에서 강조되었던 바와 같이, 복지 사업을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 모임에 대하여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모임이란 뷰티,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 모임, 월례 스테이크 복지 사업 위원회 모임, 그리고 월례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 모임입니다. (엔사인, 1977년 5월호, 88-90페이지 참조)

4. 복지 사업의 원리를 가르치고 실생활에서 그 원리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대회의 복지 사업 모임 보고를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에는 복지 사업의 원리에 대한 놀라운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가르쳐야 할 바, 감독으로서 와드 회원에게 가르쳐야 할 바 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5.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도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이미 생산 계획, 창고, 고용 프로그램, 말일성도 사회 사업 기구의 올바른 이용, 테处境 산업 등의 확립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립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6. 프로그램이 자발적인 봉사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나는 스테이크부장으로 봉사하면서,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선한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 변성케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생의 변화를 입고 행복을 얻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리 대판장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직업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한 이 사업을 교회의 봉사 사업으로써 달성하여야 합니다. 정규 고용인이나 시간제 고용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온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사업은 전례 없이 급속히 발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헌신하여 완전히 자립하여 남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훌륭한 복지 사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돋고 그들의 권위와 자존심을 존중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참으로 진실한 것이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